




1학기 평가내용 안내

- ① 평가는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합니다.
- ② 지필 평가는 2회 실시하고 수행평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간에 평가하며 실적을 누적하였다가 한 학기에 한 번 점수화 합니다.
- ③ 배점 기준은 지필 60%, 수행 40%, 합 100점 만점입니다.
- ④ 수행평가 날짜는 추후에 알립니다.



<1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평가영역	1차고사(30%)		2차고사(30%)		논설문 쓰기	모방시 쓰기	수업내용 수시평가	책대화 (독서)
	선택 형	서답형 (서술)	선택형	서답형 (서술)				
영역만점	70점	30점 (20점)	70점	30점 (20점)	10점	10점	10점	10점
반영비율	21%	9%	21%	9%	25%	25%	25%	25%

[1] 

문학, 쓰기, 읽기와의 첫 만남

(1)문학의 숲과 나무

❶ 자화상(윤동주)

❷ 최척전(조위한)

(2) 쓰기와 읽기로 만나는 세상

❶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소광리 소나무 숲(신영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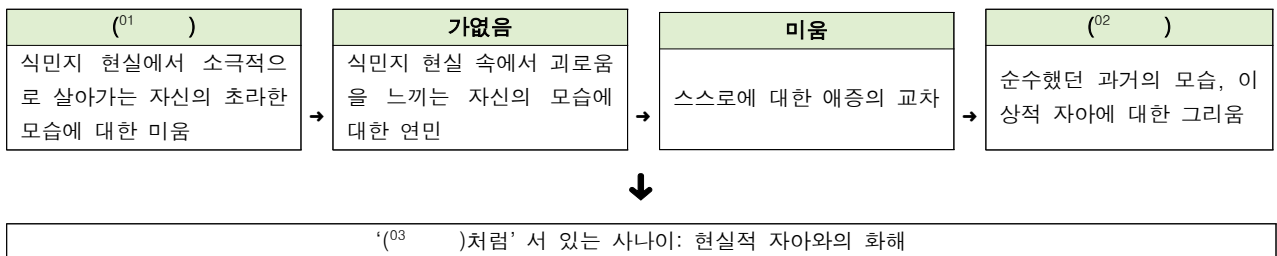
❷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이영희)

단원	1. 문학, 쓰기, 읽기와와 첫 만남 - (1) 문학의 숲과 나무	교과서	14~15쪽
학습 주제	작품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각 요소와 작품 전체의 유기적 관계성을 파악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화상'을 감상하며 작품의 구성 요소들을 이해한다. • '자화상'을 통해 구성 요소와 작품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이해한다. 		

01 '자화상' 핵심 정리

화자	외딴 ⁽⁰¹⁾ 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미움, 가엾음, 그리움을 느끼다가 분연된 자아와 화해함.	주제 자아 성찰과 암울한 현실 속 자신에 대한 애증(愛憎)
제목 및 시어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화상: 스스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는 의미 • 우물: ⁽⁰²⁾의 매개체 • 사나이: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현실의 초라한 자아) • 자연: 초라한 자아와 대조되는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조화로운 대상 	
어조	고백적, 독백적	
표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를 열거법을 통해 표현함. • 2연의 장면이 ⁽⁰³⁾연에서 변형·반복됨으로써 구성에 안정감을 부여함. 	
시대적 배경	일제 강점기	

02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감정 및 태도 변화



03 시어의 상징성

⁽⁰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은 달, 구름, 하늘, 파란 바람,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이 담긴 공간 • 화자의 얼굴이 비쳐 사나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간 	→ 자아 성찰의 매개체
-----------------	--	--------------

04 윤동주의 '자화상'과 이육사의 '절정' 비교

	윤동주, '자화상'	이육사, '절정'
어조	종결 어미 '~버니다' 등의 사용을 통해 ⁽⁰¹⁾ 적 어조를 형성함.	현재형 시제 및 강력하고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⁰²⁾ 적 어조를 형성함.
태도	부정적 현실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 ⁽⁰³⁾ 적 태도를 지님.	극한적 상황에 몰린 상태에서 ⁽⁰⁴⁾ 을 추구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를 보임.

• 자화상(운동주)

갈래	서정시, 자유시
제재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성격	고백적, 성찰적
특징	① ‘~입니다’로 끝나는 구어체를 사용하여 산문적으로 표현함. ② 열거법, 반복법, 점층법 등의 표현 방식을 사용함. ③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가 두드러짐.
주제	자아 성찰과 암울한 현실 속 자신에 대한 애증

01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시의 제목 ‘자화상’은,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찰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 ×)
- (2) ‘우물’은 사나리와 화자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 (○, ×)
- (3) ‘가을’은 작가가 살고 있는 일제 강점하의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 ×)
- (4) 우물 속에 비친 ‘사나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초라한 화자의 모습을 의미한다.
(○, ×)
- (5) 화자의 분열된 자아는 끝내 화합하지 못하고, ‘사나리’는 추억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 ×)

02 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표 하시오.

- (1) 운동주의 ‘자화상’과는 다르게 이육사의 ‘절정’에서는 극한적 상황인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로 인식하며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 / 관조적) 태도가 드러난다.
- (2) 일제 강점하에 살고 있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성찰적 / 낙관적) 태도가 드러난다.
- (3) 평이한 문체를 사용하여 (남성적 / 고백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0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행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 ㉠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 ㉡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 ㉢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 ㉣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1) 초라한 화자의 모습과 대조되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드러난다. ()
- (2) 참된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화자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드러난다. ()
- (3) 앞서 나온 내용을 반복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얻으며 분열된 자아의 화합의 모습이 드러난다. ()
- (4) 순수했던 자아의 모습을 떠올리며 느끼는 감정으로, 화자의 내적 갈등과 반복이 통합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 준다. ()

어휘 체크

04 다음의 어휘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 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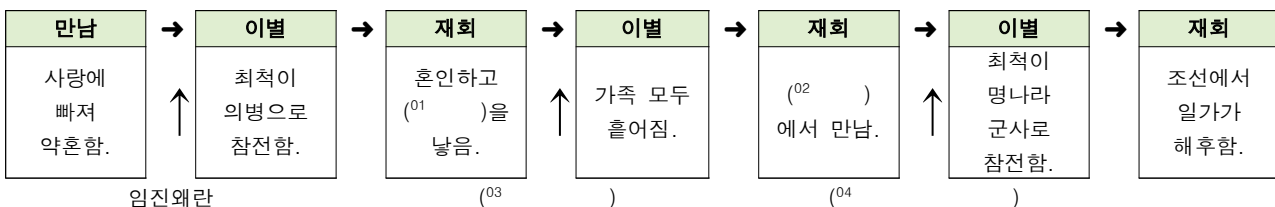
- (1) 애증 • • ㉠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 (2) 연민 • • ㉡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
- (3) 자화상 • • ㉢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
- (4) 성찰 • • ㉣ 사랑과 미움을 아울러 이룸.

단원	1. 문학, 쓰기, 읽기와와 첫 만남 - (1) 문학의 숲과 나무	교과서	20~27쪽
학습 주제	작품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각 요소와 작품 전체의 유기적 관계성을 파악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척전’을 감상하며 작품의 구성 요소들을 이해한다. • ‘최척전’을 통해 구성 요소와 작품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이해한다. 		

01 ‘최척전’ 분석

인물	(⁰¹)	전쟁과 이산(離散) 속에서도 사랑과 행복을 쟁취하는 인물로, 용맹하며 생각이 주도면밀함. 명예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사랑을 키우는 인물	주제 (¹⁰)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⁰²)	사랑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강인한 의지와 지혜로운 태도로 전란 속에서 역경을 극복하는 인물	
주요 소재의 의미		옥영의 꿈: 최척과의 (⁰³)를 암시하는 (⁰⁴) 통소 소리, 옥영의 시: 최척과 옥영의 (⁰⁵)의 매개물	
사건 전개 방식		‘만남 - (⁰⁶) - (⁰⁷)’의 과정이 반복됨.	
배경	시대적 배경	-임진왜란, (⁰⁸), 명·후금 전쟁 -조선 중기(거듭된 전란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 현실을 반영함.) -실재했던 임진왜란, 정유재란, 명과 후금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함.	
	지리적 배경	조선 → 중국(최척), 일본(옥영) → (⁰⁹)	

02 ‘최척전’의 내용 구조



작품에서 반복되는 (⁰⁵)의 기능 → 전쟁의 참혹함을 부각시키고, 마지막에 찾아올 행복을 극대화함.

03 ‘최척전’과 다른 군담 소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최척전’	다른 군담 소설
공통점	(01)을 배경으로 함.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공은 평범한 인물임. •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을 (⁰²)으로 보여 줌. • 적강 화소(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옴.)가 나타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공은 민족적 (⁰³)임. •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을 보여 주는 내용이 제시됨. • 적강 화소가 사용되어 이원론적 공간이 설정됨.

• 최척전(조위한)

갈래	군담 소설, 애정 소설, 한문 소설
제재	최척 가족의 이산(離散)과 재회(再會)
성격	사실적, 불교적, 우연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시대적 - 조선 시대, 공간적 - 조선, 일본, 중국, 안남
특징	① '만남 - 이별 - 재회'가 반복됨. ② 전란으로 인해 고통받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남.
주제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01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정유재란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지게 된 최척은 여유문을 따라 중국에 들어가하고자 하였으나 중국말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 ×)
- (2)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고 용맹한 최척의 모습을 보여 주어 그의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 ×)
- (3) 연곡사에서 최숙이 몽석을 만나는 사건은 고전 소설의 우연성을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
- (4) 옥영이 자살하려는 결심을 접은 것은 돈우의 극진한 보살핌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 ×)

02 다음은 '최척전'의 인물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 (1) '옥영': 최척에게 먼저 구애의 쪽지를 보내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왜적에게 잡혀간 상황에서 남장을 하여 어려움을 헤쳐 나갔고, 최척의 통소 소리를 알아듣고 ()로 ()를 읊어 남편에게 자신을 알리는 지혜를 갖춘 인물이다.
- (2) '여유문'과 '돈우': 각각 최척과 옥영에게 ()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0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구절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 ㉠ 옥영의 꿈에 장륙불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 ㉡ 최척의 통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했다.
- ㉢ 최척은 시 읊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얼이 빠진 사람 같았다.

- (1) 최척의 감정이 이입된 표현으로 최척의 근심을 살펴볼 수 있다. ()
- (2) 왜적의 배에 아내가 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최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 (3) 나중에 최척과 옥영이 재회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이다. ()

어휘 체크

04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관포지교(管鮑之交), 측은지심(惻隱之心),
혈혈단신(孑孓單身), 천우신조(天佑神助)

- (1) 의탁할 곳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고 말했다. ()
- (2)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겼으며, 또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
- (3)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 ()
- (4) “참 기이하기도 하다!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왔구나.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

01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 표를 하시오.

- (1) 여유문이 죽고 난 뒤 최척은 신선이 되는 술법을 얻으려 축으로 건너갔다가, 송우를 만나 장사를 하러 안남으로 떠났다. (○, ×)
- (2) 최척은 가슴 속에 맺힌 한과 슬픔을 담아 통소 연주를 하였고, 옥영은 이 통소 소리를 남편의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 ×)
- (3) 최척은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를 듣자마자 한달음에 왜적의 배로 달려가 시를 읊는 사람이 옥영이 맞는지를 확인했다. (○, ×)
- (4) 최척과 옥영이 탄 배가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던 것은 고전 소설의 우연성을 보여 준다. (○, ×)

02 소설의 다음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당대의 현실이 드러나도록 빈칸을 채우시오.

- (1)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고 말했다. ⇒ ()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지고 망연자실한 최척의 심리를 추측해 볼 수 있다.
- (2) 옥영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 ()을 잃은 슬픔 때문에 죽음까지 결심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옥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3) “우리 일가족이 왜적의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혼인하여 나 혼자 편안히 잘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전쟁으로 인해 () 공동체가 붕괴되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채로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이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03 ‘최척전’과 다른 군담 소설을 비교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표 하시오.

- (1) ‘최척전’의 주인공은 (평범한 / 비범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다른 군담 소설의 주인공은 (평범한 / 비범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 (2) ‘최척전’의 경우 전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난을 (사실적 / 비현실적)으로 드러내는 반면, 다른 군담 소설의 경우 전란 속에서 주인공의 (영웅적 / 평범한) 활약상을 전기적으로 형상화한다.

04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을 정리해 보자.

조선(남원)	최척과 옥영이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는 공간
↓	
중국(명)	정유재란 당시 ()이 가족과 헤어지고 머물게 되는 공간
일본	()이 왜적 돈우를 따라가 머물게 되는 공간
↓	
안남(베트남)	최척과 옥영이 우연한 계기로 ()하게 되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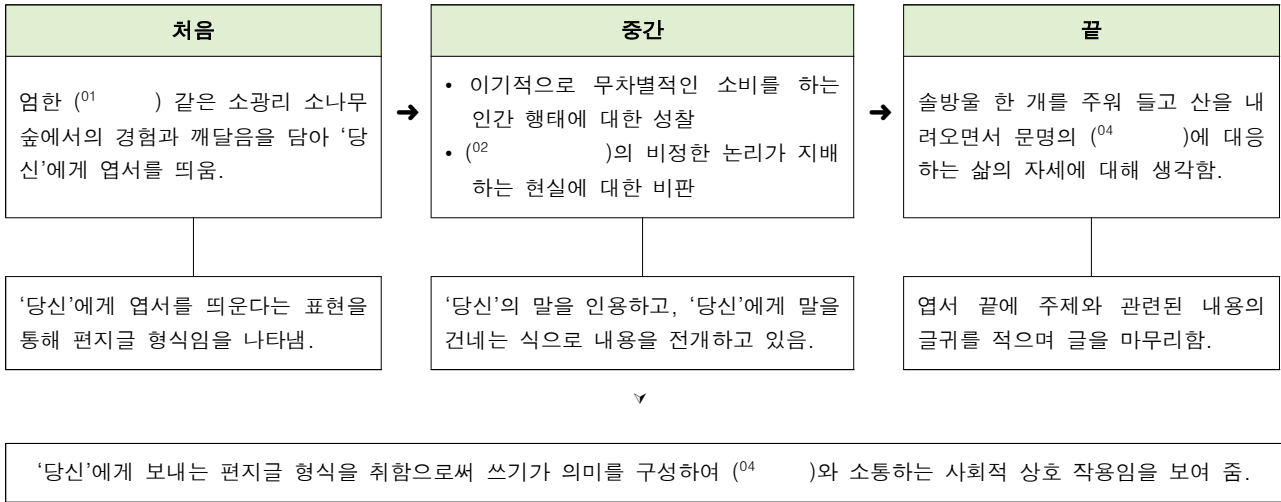
어휘 체크

05 어휘에 맞는 뜻을 골라 연결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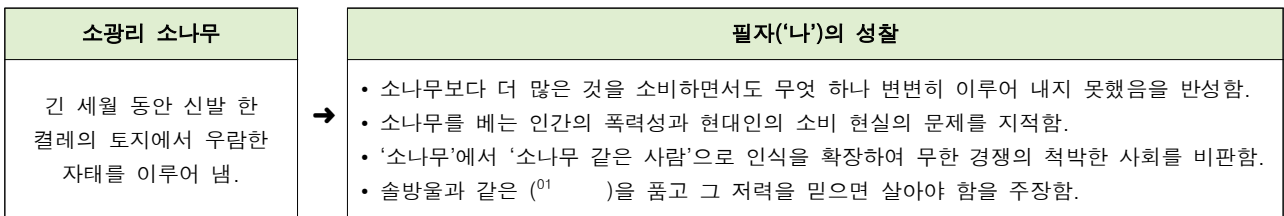
- | | | | |
|---------|---|---|-------------------------------------|
| (1) 의병 | • | ㉠ |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 |
| (2) 지기 | • | ㉡ |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 |
| (3) 우연성 | • | ㉢ | 어떤 일이 인과에 근거하지 않는 것. |
| (4) 전기적 | • | ㉣ | 기이하여 세상에 전할 만한 것. |

단원	1. 문학, 쓰기, 읽기와와 첫 만남 - (2) 쓰기와 읽기로 만나는 세상	교과서	36~38쪽
학습 주제	쓰기가 사회적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해한다.		
학습 목표	쓰기가 의미를 구성하여 독자와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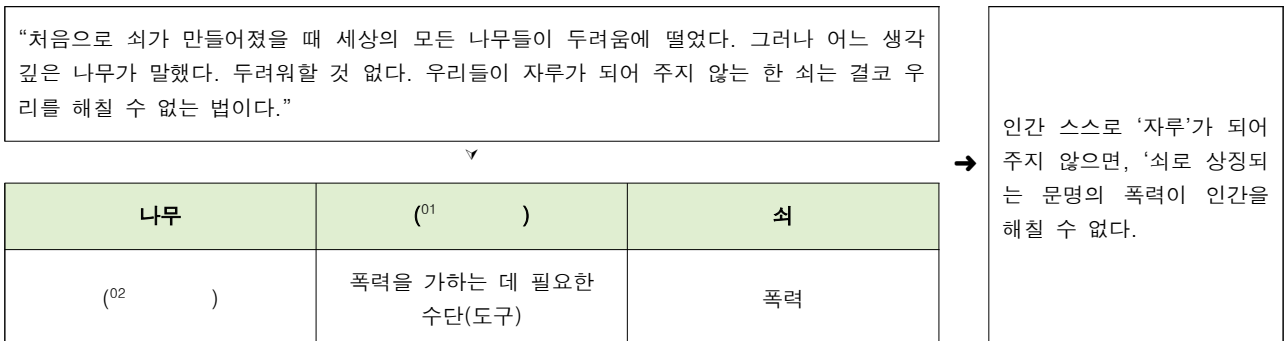
01 글의 구성 방법



02 소광리 소나무를 통한 필자의 성찰



03 엽서 끝 글귀의 의미



갈래	현대 수필, 서간체 수필
제재	소광치 소나무 숲의 소나무
성격	비판적, 사색적
특징	①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을 취해 독자와 상호 작용하는 글쓰기를 보여 줌. ②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과 비판적 인식을 보여 줌. ③ 이기적이고 소비적인 인간과 대조적인 존재로 '소나무'를 설정하여 교훈과 깨달음을 제시함. ④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문제로 확장함.
주제	무차별적인 소비와 무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소나무'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필요성

01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이 글은 내용 전개 과정에서 '당신'의 말을 인용하여 독자와 상호 작용하는 글쓰기를 보여 주고 있다. (○, ×)
- (2) 필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소광리의 숲에 갔기 때문에 그곳이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다고 느꼈다 (○, ×)
- (3) 필자는 소나무를 무분별하게 잘라내는 것을 인간의 삶에 확장 적용하여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
- (4) 필자는 사람이 지구 위의 최대 생산자이자 소비자라는 말에 동의한다. (○, ×)
- (5) 산관일을 하는 사람들이 큰 나무를 베어 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이유는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가 사람을 해친다고 믿기 때문이다. (○, ×)
- (6) 필자는 암석지의 굵고 뒤틀린 나무보다 금강송의 곧은 등치에서 지조를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
- (7) 필자는 소광리 소나무 숲을 통해 현대 문명 사회의 부정적 속성을 깨닫고 절망하고 있다. (○, ×)

02 필자가 깨달은 바에 맞게 빈칸을 채우시오.

- (1) '신발 한 켤레의 토지'만을 차지한 채 우람한 자태를 이루어 낸 ()를 보고, 많은 것을 소비만 하는 자신을 반성하였다.
- (2) 경복궁 복원 공사 현장에 가 보았던 경험을 떠올리고, 인간이 자연에 가하는 ()에 대해 인식했다.
- (3) 산관일을 하는 사람들의 불문율과 관련하여 산천의 아우성을 자아내는 인간의 폭력적 () 행태를 반성했다.
- (4)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에 관한 신화를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을 잃지 않아야 함을 깨달았다.

03 다음 글에서 (1)~(3)의 의미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 쓰시오.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 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 (1) 인간 ()
- (2) 폭력을 가하는 데 필요한 수단, 도구 ()
- (3) 폭력 ()

어휘 체크

04 다음의 어휘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 하시오.

- | | | |
|--------|---|-----------------------------------|
| (1) 풍상 | • | ㉠ 많이 겪은 세상의 어려움과 고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2) 경이 | • | ㉡ 갑자기 침범하여 공격함. |
| (3) 전략 | • | ㉢ 놀랍고 신기하게 여김. 또는 그럴 만한 일. |
| (4) 참습 | • | ㉣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

단원	1. 문학, 쓰기, 읽기와 첫 만남 - (2) 쓰기와 읽기로 만나는 세상	교과서	43~47쪽
학습 주제	읽기가 사회적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해한다.		
학습 목표	읽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한다.		

01 '최척전' 분석

찬성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과학자의 연구 자유 보장)	↔	반대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에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⁰¹) 치료와 과학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생명체를 죽이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수반하며 (⁰²)를 초래할 수 있다.	
논쟁의 이면에 자리한 쟁점				
(⁰³)				

02 제1차 사회 계약의 내용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제1차 사회 계약	국가가 과학이 (⁰¹)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과학자 공동체의 (⁰²)를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함.

03 제2차 사회 계약의 내용과 문제점

제2차 사회 계약	
'산학 협동'이라고 하는, 과학의 산업화와 (⁰¹)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의미함.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⁰²)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 과학 연구를 지원함.	
(⁰³)가 커지고, 과학 연구 활동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 과제 방식으로 바뀜.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과학자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게 되어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자주적으로 (⁰⁴)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됨. 지원을 받기 위해 실험 과정, 방법, 결과 등을 조작하는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행위가 나타나게 됨.

갈래	논설문
제재	과학 연구의 자유
성격	예증적, 과학적
특징	① 대립하는 입장의 주장과 논거를 제시함. ②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입장과 관련한 사회적·역사적 배경의 변화를 제시함. ③ 상반된 주장을 절충해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함.
주제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한 상반된 입장

01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이 글은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한 입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 ×)
- (2) 읽기의 사회적 상호 작용은 필자와 독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집단과 집단, 지역과 지역, 시대와 시대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
- (3)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연구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가 인간 복제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란 사실을 근거로 제시한다. (○, ×)
- (4) 제1차 사회 계약의 영향으로 과학 연구의 비밀주의가 커지게 되었다. (○, ×)

02 다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 (1) ‘제1차 사회 계약’은 ()을 위한 과학 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국가는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과학자 공동체의 ()을 존중한다는 내용이다.
- (2) ‘제2차 사회 계약’은 과학의 ()와 상품화가 가속화된 경향으로 과학 연구 활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 (3) ‘제2차 사회 계약’의 영향으로 과학 연구가 거대 연구 과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연구 ()가 커지고 개별 과학자들이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연구 지원을 받기 위한 비윤리적 연구 ()가 나타났다.

03 과학 연구의 자율성에 대한 두 입장과 관련된 내용을 <보기>에서 각각 고르시오.

<보기>

- ㉠ 2013년 3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의과 대학이나 병원 등 특수한 환경의 의학 연구에만 적용되었던 ‘임상 시험 심사위원회(IRB)’의 설치 및 운영 의무가 ‘모든 인간 대상 연구’로 확대되었다.
-최병인, ‘임상 심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의무 확대에 대한 제언’
- ㉡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노벨상 과학 부문 수상자 중 88명의 연구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수상자들은 원하는 주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사이언스 2016년 9월 28일 자

과학자의 연구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과학자의 연구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
(1)		(2)

어휘 체크

04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 (1) 수반(隨伴) • ㉠ 어떤 분야나 부문에서 가장 으뜸이 되거나 중심이 되는 부분.
- (2) 기간(基幹) • ㉡ 쳐들어 높임.
- (3) 화신(化身) • ㉢ 어떤 일과 더 붙어 생김.
- (4) 제고(提高) • ㉣ 어떤 추상적인 특질이 구체화 또는 유형화된 것.

[0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화상(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
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01 **수능형**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시각적 심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③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과거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ㅂ니다’의 상대 높임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고백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 ⑤ 2연의 표현이 6연에서 유사하게 반복되며 점층적으로 시적 정서가 깊어지고 있다.

02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딴 우물가에 가서 우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 ② 화자는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통해 분열되어 있던 자아와 화해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스스로에 대한 애증을 교차적으로 느끼며 심리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 ④ 화자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힘들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있다.
- ⑤ 화자는 문득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 그리움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고 있다.

03 이 시와 <보기>에 드러나는 화자의 어조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① (가)는 독백적 어조가, <보기>는 대화적 어조가 드러난다.
- ② (가)는 냉소적 어조가, <보기>는 상징적 어조가 드러난다.
- ③ (가)는 고백적 어조가, <보기>는 의지적 어조가 드러난다.
- ④ (가)는 남성적 어조가, <보기>는 여성적 어조가 드러난다.
- ⑤ (가)는 지사적 어조가, <보기>는 성찰적 어조가 드러난다.

04 이 시의 제목인 ‘자화상’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을 새롭게 구축하는 화자의 모습을 의미한다.
- ②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가진 화자의 태도를 의미한다.
- ③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의미한다.
- ④ 타인의 모습을 통해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배워 나가려는 화자의 태도를 의미한다.
- ⑤ 얼굴 생김새에 대한 치밀한 묘사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전달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의미한다.

05 ㉠에 사용된 심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 ① 삼월(三月) 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② 해와 하늘빛이 / 문둥이는 서러워 // 보리밭에 달 뜨면 / 애기 하나 먹고 //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 서정주, ‘문둥이’
- ③ 안개 자욱-한 화원지의 벤치 위엔 /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 가벼운 웃음과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었다.
- 김광균, ‘외인촌(外人村)’
- ④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 아침이면 / 세상은 개벽(開闢)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 ⑤ 오늘도 피 끝에 홀로 오르니 /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 정지용, ‘고향’

06 **주관식** <보기>에서 ㉠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보기>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
하구료마는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
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 나는지금
(至今)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
의내가있소 /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
할게요 //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反對)요
마는 / 또꽤달았소 /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
고진찰(診察)할수없으니꼭섭섭하오

- 이상, ‘거울’

07 **기출 변형**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화상’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는데, 이 제목은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인 것이다.

- ① 1연의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에서 화자가 우물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투영해 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2연에서 밝은 달, 흐르는 구름, 펼쳐진 하늘, 부는 바람이 우물 속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물이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임을 알 수 있다.
- ③ 3연의 ‘사나이’는 화자에게 미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체이며, 원형적 모태(母胎)를 떠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 ④ 4연~5연에서 화자가 사나이에 대한 감정이 변화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다층적임을 보여 준다.
- ⑤ 6연에서 사나이가 ‘추억처럼’ 있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며 느꼈던 내적 갈등 상태를 극복했음을 보여 준다.

08 다음 중, 이 시의 화자와 처지 및 정서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 이육사, '교목'
- ② 뻘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어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③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最後)의 나 //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 눈물과 위안(慰安)으로 잡는 최초(最初)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④ 진주(晉州) 남강(南江) 맑다 해도 / 오명 가명 /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 굴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09 [주관식]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이 서서히 통합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 주는 시어를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10 이 시를 감상한 관점이 이질적인 것은?

- ① 현실을 살아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소재가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 ② 평이한 산문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
- ③ 화자가 자아의 모습을 돌아보며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의 변화가 주된 시상의 흐름을 이루고 있어.
- ④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은 현재 초라한 화자의 모습과 대조되면서 화자의 상황을 더욱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어.
- ⑤ 시인은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인물이야. 부정적 시대 현실 속에서 지식인이 느껴야 했던 어려움을 성찰의 정서를 통해 잘 보여 주고 있어.

[11-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척전(조위한)

(가)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騎兵) 10여인을 이끌고 남원 성에서 나와 금석교 아래에서 말을 씻기고 있었다.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 중국 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고 말했다.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겼으며, 또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 총병(吳總兵)의 천총(千總) 여유문(余有文)이라 하오. 집은 절강성 요흥(姚興)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살 만은 하다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나니,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노닐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며 웅색하게 살 이유가 무어 있겠소?”

이윽고 최척에게 말 한 필을 주어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갔다.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면밀하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 문장에도 능했으므로,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였다.

(나)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왜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왜적은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소홀히 했다. 두 사람은 왜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왜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 연곡사에 이르렀다. 그런데 연곡사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심 씨가 울며 최숙에게 말했다.

“어떤 아이 울음소리기에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은가요?”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였다. 최숙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어루만졌다. 잠시 후 최숙이 승려들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소?”

혜정(慧正)이라는 승려가 앞으로 나오며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길가의 시체 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붙잡하여 거두었습니다. 혹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다) 이때 옥영은 왜적 돈우(頓于)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돈우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왜장(倭將) 소서행장(小西行長)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하였다.

돈우는 명민한 옥영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주어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다. ㉣옥영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옥영의 ㉤꿈에 장륙불(丈六佛)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옥영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란 법도 없을 것 같았다. ㉥이에 억지로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

11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연곡사에서 최척은 우연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몽석과 극적으로 재회하게 된다.
- ② 최척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여유문과 신뢰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 ③ 옥영은 돈우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자살을 할 만큼 현실에 대해 크게 낙담하고 있다.
- ④ 여유문은 최척에게 자신을 따라 구석진 땅에 가기보다는 조선에 머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 ⑤ 전쟁 통에서 아이를 거두었던 승려는 자신의 예상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놀라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지고 혈혈단신으로 남은 최척의 망연자실한 마음이 드러난다.
- ② ㉡: 이후에 벌어질 가족 간의 재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 ③ ㉢: 고전 소설이 갖고 있는 우연성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 ㉣: 돈우의 이러한 품성 덕분에 옥영이 왜적의 손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 이제는 가족을 잊고 자신의 처지를 체념적으로 수용하려는 옥영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13 ㉥의 의미와 관련 있는 한자 성어로 묶인 것은?

- ① 지기지우(知己之友), 지음(知音)
- ② 금란지계(金蘭之契), 백미(白眉)
- ③ 관포지교(管鮑之交), 견원지간(犬猿之間)
- ④ 백아절현(伯牙絕絃), 죽마고우(竹馬故友)
- ⑤ 간담상조(肝膽相照), 낭중지추(囊中之錐)

14 **수능형**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유문: 최척을 거두고 아껴준다는 측면에서 반동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최척: 의도적으로 명나라 장수에게 접근해 가족을 찾을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에서 주도면밀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③ 심씨: 손자를 찾기 위해 감옥에서 탈출하여 연곡사로 찾아간 모습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 ④ 돈우: 옥영을 붙잡았으나 애정을 갖고 보살폈다는 점에서 옥영에게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장륙불: 자살을 하려는 옥영에게 살아야함을 강요하는 것에서 종교적 깨달음을 주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15 ㉔와 가장 유사한 정서를 보이는 것은?

- ①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 물살 몰아 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 서정주, '견우의 노래'
- ② 서럽게 / 아, 엄숙한 세상을 / 서럽게 / 눈물 흘러 // 살아가리라. /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신동엽, '봄은'
- ③ 생각하면 / 삶이란 /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 안도현, '연탄 한 장'
- ④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 까맣게 물랐다. //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 그는 몰랐다.
- 신경림, '갈대'

16 **서술형** 이어지는 소설의 내용을 고려할 때, ㉔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5점]

[17-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척전(조위한)

(가) 이때 최척은 요흥에 머물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여유문이 누이동생을 최척에게 시집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보이자 최척은 완강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일가족이 왜적의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㉔이런 처지에 혼인하여 나 혼자 편안히 잘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유문도 최척의 생각을 의롭게 여겨 더 이상 혼인을 권유하지 않았다.

(나) “백승! ㉔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고급 천하에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나와 함께 배 타고 오월(吳越)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며 남은 생을 즐기는 게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의 할 일 아니겠나?”

최척이 홀연 깨닫고 마침내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났다.

(다) ㉔경자년(1600) 봄이었다. 최척은 송우를 따라 한 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베트남)으로 장사하러 갔다.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浦口)에 정박해 있었다.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이튿날이 되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 빛은 비단처럼
[A] 고왔다.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

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이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일본 배에서 연발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뿔다.

최척은 홀로 선창(船窓)에 기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짐 꾸러미 안에서 통소를 꺼내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어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 보려 했다. 최척의 통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했다.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연발하던 소리가 똑 그쳤다.

(라)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게다가 방금 시를 읊던 소리도 아내 목소리와 흡사해.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야.”

그러고는 자기 일가가 왜적에게 당했던 일의 전말을 자세히 말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랍고 희한한 일로 여겼다.

그 자리에 두홍(杜洪)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였다. 두홍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히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소!”

송우가 두홍을 말리며 말했다.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다. ㉔ 최척은 앓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마) ㉕옥영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통소 소리를 들었다. 조선 가락인 데다 귀에 익은 곡조인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 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 본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밖에서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허둥지둥 일어설 듯이 배에서 뛰어 내려왔다.

최척과 옥영은 마주 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다하자 피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이들 주위를 빙 둘러서

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보다 여기고 있었다. 한참 뒤 이들이 부부 사이임을 알고는 모두들 놀라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참 기이하기도 하다!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왔구나. ㉖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17 밑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최척은 여유문의 누이와 혼인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눈에 밝혀 혼인하지 못했다.
- ② 여유문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최척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를 더이상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 ③ 송우는 안남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 최척을 억지로 데려가 옥영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두홍은 최척의 말을 듣자마자 상대방의 배로 가서 진실 여부를 확인해 주었다.
- ⑤ 사람들은 최척과 옥영의 만남을 보고 처음에는 둘이 부부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18 [A]의 표현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요하고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주인공의 슬픈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아름답고 흥겨운 자연의 이미지가 초라한 주인공의 모습과 대조되며 주인공의 처지를 더욱 부각하고 있다.
- ③ 속세와 대조되는 이미지의 자연을 활용하여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적막한 배경에서 구슬픈 연발 소리가 부각되게 하여 불교적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조용하고 평안한 자연의 상태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며 마음의 평안 상태를 찾은 주인공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9 (나) 화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며 기존과 다른 절충적 대안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 ③ 상대의 감정에 호소하며 자신의 처지를 부각시켜 상대를 설득하려 하고 있다.
- ④ 운명론적 세계관을 드러내며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0 ㉠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 ① 고복격양(鼓腹擊壤)
- ② 다다익선(多多益善)
- ③ 자가당착(自家撞着)
- ④ 전대미문(前代未聞)
- ⑤ 후생가외(後生可畏)

21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일부일처제라는 사회적 제도에 순응하려 노력하는 최척의 선비적 면모를 살펴볼 수 있어.
- ② ㉡: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송우도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삶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③ ㉢: 주인공들이 겪는 사건의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작품에 허구성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 ④ ㉣: 분쟁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 못 드는 최척의 모습은 그 당시 전쟁에 떨던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어.
- ⑤ ㉤: ‘두 인물이 그 시간에 그 공간에 함께 있었다’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설정은, 고전 소설의 특징인 우연성을 보여 주고 있어.

22 기출 변형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임진왜란(1592~1598년) 등 16세기 말 ~ 17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쟁들은 각국 백성들의 삶에 심대한 수난을 초래했다. 이러한 역사를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이 조위한의 ‘최척전’이다. 최척에게서 체험의 전말을 전해 듣고 이 작품을 썼다는 후기로 보면 이 작품이 실제 체험에 바탕을 둔 인물들의 이산(離散)과 귀향의 과정을 그린 유랑의 서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사 공간이 조선을 포함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에 걸쳐 있고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개인 간의 인간적 배려 및 전쟁의 참상에 대해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① 최척과 옥영이 가족들과 이별하며 겪는 여러 아픔들은 16세기 말~17세기 초 백성들이 겪었던 수난의 모습으로 연결될 수 있겠어.
- ② 두홍이 최척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은 개인간의 인간적 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어.
- ③ 최척이 통소를 꺼내 슬픈 곡조를 불 때 그 속에 담았던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은, 그가 겪은 이산(離散)과 유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어.
- ④ 최척과 옥영의 만남이 만남으로 가던 중 정박한 항구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 작품의 서사 구조가 아시아를 넘어서 여러 국가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 ⑤ 송우가 두홍을 말리는 것과, 모든 사람이 송우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은 혹시 분쟁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 태도, 즉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어.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신영복)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 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지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 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 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광리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합니다.

산판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 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不文律)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怒氣)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 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술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술발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의 한을 달래 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술바람입니다. 술바람뿐만이 아니라 술빛, 술향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高節)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금강송의 곧은 등치에서뿐만 아니라 암석지의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곧은 지조를 읽어 낼 줄 압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가꾸어 놓고 있었습

니다.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 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술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술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 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활엽수의 침습(侵襲)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 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술방울 한 개를 주워 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술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술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술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젠가 붓글씨로 써 드렸던 글귀를 엮서 끝에 적습니다.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 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드러난다.
-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③ 작가가 상상하여 만들어 낸 허구의 이야기이다.
- ④ 이상과 현실을 대비하여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의식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2 <보기 1>을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쓰기는 독자를 향해 대화를 시도하는 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글은 필자와 독자가 만나 대화하는 공간이다. 필자는 글을 대화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글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한다. 필자는 대화하는 자로서 자신이 글에 존재함을 알리고, 독자로 하여금 대화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그리고 자신과 독자가 일정한 관계를 맺어 대화를 나눌 만한 사이임을 말한다. 필자가 독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중의 하나는 자신이 독자와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동일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말하는 것이다.

<보기 2>

- ㄱ. 독자를 ‘당신’이라고 칭하여, 필자가 독자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임을 드러내고 있다.
- ㄴ. 필자가 자신과 ‘당신’을 ‘우리’라고 칭함으로써, 자신이 독자와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동일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나타내고 있다.
- ㄷ. 필자와 ‘당신’의 대화를 가정적으로 제시하여 필자와 독자 간의 상호 작용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03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연물이 처한 상황에 관한 인식을 사회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 ② ㉡: 무분별한 소비를 일삼는 인간이 소광리 숲의 소나무들과 대조됨을 말하고 있다.
- ③ ㉢: 소나무가 인간의 생이 끝난 후에도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내적 속성을 고려하여 대상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야 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비정한 경쟁이 만연해 있는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04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체적인 태도로 소비하는 사람
- ②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의연하게 살아가는 사람
- ③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을 지닌 사람
- ④ 자연 친화적인 태도로 자연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 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을 잃지 않는 사람

05 [서술형] 글의 문맥을 고려할 때, ㉤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5점]

[06-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이영희)

학문 및 연구를 하는 데 일체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리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과학자 공동체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며, 과학자들이 연구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유지되었다. 과학은 그 성격상 사회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영역으로, 객관적인 진리 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과학자 공동체의 전통적 믿음이었다.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과 사회 사이에 일종의 사회 계약(社會契約)이 맺어진다. 국가는 과학이 사회의 기반(基幹)이었던 농업, 의료 및 군사 부문의 성장, 즉 전반적으로 공공 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과학에 지원을 해 주고,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과학과 사회 사이의 ‘제1차 사회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함으로써 과학 연구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제1차 사회 계약에 따라 전후 미국의 과학자 공동체는 국립 과학 재단, 국립 보건 연구원 등의 정부 기관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도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학문 및 연구의 자유에 대한 외부적 규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문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학문의 자유는 연구 대상의 선정,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시기, 연구 장소 결정 등과 관련된 연구의 자유를 포괄하는 범주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 헌법 조항은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왜냐하면 학문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를 기반

으로 하므로 학문을 수행하는 개인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06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제1차 사회 계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② 제1차 사회 계약이 맺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③ 우리나라 헌법에서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규정은 무엇인가?
- ④ 학문 활동을 기본적으로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져 온 과학 연구에 대한 과학자 공동체의 전통적 믿음은 무엇인가?

0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문과 예술의 규제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조항이다.
- ② 학문과 예술이 사회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 ③ 과학 연구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
- ④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 ⑤ 개인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에 따라 학문 활동이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있다.

08 [서술형] ㉠가 과학 연구 활동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5점]

[0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이영희)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과학이 원자 폭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에 쓰이기도 하고,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1980년대 이후 과학과 사회 사이에 ㉠‘제2차 사회 계약’이 새롭게 맺어지면서 더 커졌다.

제2차 사회 계약이란 바로 ‘산학 협동’이라고 하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사회 계약하에서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게 된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연구 비밀주의가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 연구 활동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 과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에 따라 개별 과학자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 속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게 되어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 실험 과정, 방법, 결과 등을 조작하는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행위도 나타나게 되었다.

요컨대 이 ㉡제2차 사회 계약은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을 더 이상 객관적인 진리만을 탐구하는 순수한 학술 활동에 머무르지 않게 만들었다. 그 결과 20세기 중반까지 널리 퍼져 있던, 과학 연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담론은 점차 퇴조하였다. 그리고 과학 연구의 자유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과학 연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되어야 하며, 과학자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0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학 연구 활동의 일반적 과정을 단계에 따라 소개하고 있다.
- ② 과학 연구 활동의 다양한 성격을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③ 과학 연구 활동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있다.
- ④ 과학 연구 활동의 다양한 양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과학 연구 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0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입장이 강화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 ② 과학 연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담론의 퇴조를 가져왔다.
- ③ 과학자가 과제에 따른 연구 내용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④ 과학 연구의 비밀주의가 커지고 비윤리적인 과학 활동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⑤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게 되었다.

11 **서술형**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추론하여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8점]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화상(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0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참된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 ② ㉡: 화자의 초라한 처지와 달리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③ ㉢: 식민지 현실을 소극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 ④ ㉣: 어려운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있다.
- ⑤ ㉤: 사나이와 완전한 이별의 상황이 전제된 것으로 분열된 자아의 화해가 어려울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02 다음은 화자의 심리 변화를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가)	→	(나)	→	애증의 교차	→	(다)
-----	---	-----	---	--------	---	-----

- | | (가) | (나) | (다) |
|---|------|-----|-----|
| ① | 부끄러움 | 그리움 | 연민 |
| ② | 연민 | 미움 | 그리움 |
| ③ | 미움 | 연민 | 그리움 |
| ④ | 부끄러움 | 가엾음 | 미움 |
| ⑤ | 그리움 | 연민 | 미움 |

03 **수능형** 이 시와 <보기>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① 이 시와 <보기>는 모두 화자의 시적 상황이 제목에 반영되어 있다.
- ② 이 시와 달리 <보기>는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 ③ 이 시와 달리 <보기>는 화자가 처한 극한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구성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④ <보기>와 달리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보기>와 달리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04 **주관식** <보기>의 밑줄 친 ‘구리 거울’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소재를 이 시에서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보기>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옥될까.

- 윤동주, ‘참회록’

05 **고난도** 다음 중, ㉠와 같은 표현법이 사용된 것은?

- ① 퇴색(退色)한 성교당(聖敎堂)의 지붕 위에선 //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 김광균, ‘외인촌’
- ② 헤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 - 정지용, ‘향수’
- ③ 우리가 ‘풀잎’ 하고 그를 부를 때는 / 우리들의 입속에서는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 박성룡, ‘풀잎’
- ④ 여기 새빨간 찔레 열매 몇 개 이룩함이어. / 옹거니! 새벽까지 시린 귀뚜라미 울음소리 / 들으며 여물었나니 - 고은, ‘열매 몇 개’
- ⑤ 망망(茫茫)한 물굽이에 / 금시에 지워질 듯 근심스레 떠 있기에 / 동해 쪽빛 바람에 / 향시 사념(思念)의 머리 곱게 씻기우고 - 유치환, ‘울릉도’

[06-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척전(조위한)

(가)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

둔하고 싶다고 말했다.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겼으며, 또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 총병(吳總兵)의 천총(千總) 여유문(余有文)이라 하오. 집은 절강성 요흥(姚興)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살 만은 하다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나니,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노닐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며 웅색하게 살 이유가 무어 있겠소?”

이윽고 최척에게 말 한 필을 주어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갔다.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면밀하며 말 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 문장에도 능했으므로,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였다.

얼마 뒤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유문은 최척을 전사한 병사 한 사람 대신 명부(名簿)에 끼워 넣어 국경을 통과하게 한 뒤 요흥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

(나)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왜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왜적은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소홀히 했다. 두 사람은 왜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왜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 연곡사에 이르렀다. 그런데 연곡사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심 씨가 울며 최숙에게 말했다.

“어떤 아이 울음소리기에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은가요?”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다) 이때 옥영은 왜적 돈우(頓于)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돈우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왜장(倭將) 소서행장(小西行長)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하였다.

돈우는 명민한 옥영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주어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다. 옥영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옥영의 꿈에 장륙불(丈六佛)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옥영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란 법도 없을 것 같았다. 이에 억지로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

돈우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다.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에 달리 남자가 없어, 옥영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內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옥영은 돈우를 속여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라서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은 하질 못했습니다.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만 할 수 있지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㉔돈우는 펍 가련히 여겨 옥영에게 ‘사우(沙于)’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는,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갈 때마다 항해장(航海長) 일을 맡겨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다.

(라) 이때 최척은 요흥에 머물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여유문이 누이동생을 최척에게 시집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보이자 최척은 완강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일가족이 왜적의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혼인하여 나 혼자 편안히 잘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유문도 최척의 생각을 의롭게 여겨 더 이상 혼인을 권유하지 않았다.

(마) 그해 겨울, 여유문이 병으로 죽었다. 최척은 의탁할 곳이 없게 되자 양자강과 회수(淮水)를 떠돌며 명승지를 두루 돌아보았다. 용문을 보고 우혈도 구경하며 원수와 상수에까지 이르렀고, 배를 타고 동정호를 건너 악양루에 올랐으며 고소대에도 올랐다.

산과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름 사이에서 배회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훌쩍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이 들었다. 해섬 도사(海蟾道士) 왕용(王用)이란 사람이 청성산에 은거하며

신비로운 선약(仙藥)을 만들 뿐 아니라 신선이 되는 술법을 지녔다는 말을 듣고 촉(蜀) 땅으로 들어가 그 술법을 배우리라 마음먹었다.

(바) 최척과 지기(知己)라 인정하는 사이였는데, 최척이 촉 땅으로 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술을 들고 찾아왔다.

술을 마셔 열근히 취하자 송우가 최척을 친근하게 자(字)로 부르며 말했다.

“백승!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고금 천하에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나와 함께 배 타고 오월(吳越)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며 남은 생을 즐기는 게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의 할 일 아니겠나?”

최척이 홀연 깨닫고 마침내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났다.

(사) 경자년(1600) 봄이었다. 최척은 송우를 따라 한 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베트남)으로 장사하러 갔다.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浦口)에 정박해 있었다.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이튿날이 되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 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이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일본 배에서는 염불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뻤다.

최척은 홀로 선창(船窓)에 기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짐 꾸러미 안에서 통소를 꺼내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러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 보려 했다. ㉕최척의 통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했다.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염불하던 소리가 똑 그쳤다. 잠시 후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

(아) 옥영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통소 소

리를 들었다. 조선 가락인 데다 귀에 익은 곡조 인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 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 본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밖에서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허둥지둥 엎어질 듯이 배에서 뛰어 내려왔다.

최척과 옥영은 마주 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06 **수능형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이 소설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보기>

‘최척전’은 1592년의 임진왜란, 1597년의 정유재란, 1619년의 명과 후금의 전쟁이 포함되는 기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백성들은 오랜 전쟁 속에서 죽음, 피란, 이산(離散)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으며, 이 작품에는 이러한 모습이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척과 옥영은 매번 외부적 요인인 전쟁으로 인해 이별을 하게 되며, 각자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회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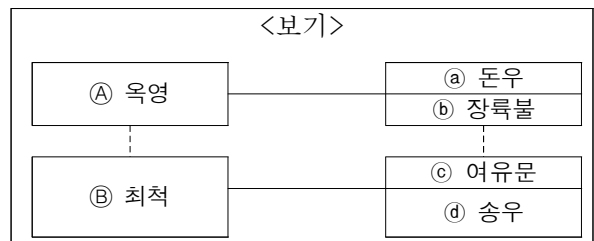
- ① 이별의 원인을 사회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으로 돌려 각 개인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이별은 백성들이 겪었던 전쟁의 참혹함을 부각시키고 후에 찾아올 행복을 극대화하는 기능을 한다.
- ③ 최척 일가의 이산(離散)과 여유문의 죽음을 통해 오랜 전쟁에 피해를 입은 백성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당시의 시대상과는 달리 이산(離散)을 최척 일가에만 일어난 사건으로 한정지어, 소설 특유의 허구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최척과 옥영이 안남으로 가는 항구에서 재회하게 되는 것은, 오랜 전쟁에 백성들이 조국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향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07 **주관식** (사)에서 최척과 옥영의 재회가 가능하도록 한 매개가 되는 소재 2가지를 찾아 쓰시오.

08 사건 발생의 시간을 고려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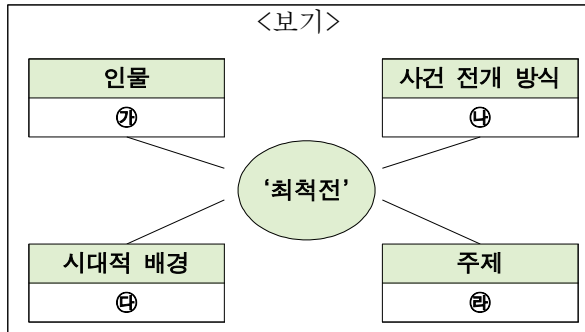
- ① 최척과 옥영이 바다에서 우연히 만난 것은 경자년 겨울의 일이다.
- ② 최숙과 심 씨가 몽석과 만났을 무렵 옥영은 돈우에게 붙잡혀 있었다.
- ③ 최척이 여유문을 따라 요흥으로 넘어갔을 때, 최척의 부친과 장모는 왜적에게 붙잡혔다.
- ④ 여유문이 죽고 힘들어하던 최척이 송우를 만난 시점에 옥영은 물에 빠져 죽기를 결심했다.
- ⑤ 옥영이 돈우와 함께 배를 타며 중국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 최척 역시 송우와 장사를 시작했다.

09 <보기>는 이 소설의 인물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는 전쟁으로 인한 이산(離散)의 아픔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하는군.
- ② a와 c는 각각 옥영과 최척에게 호의를 갖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군.
- ③ 옥영이 a를 속이고 최척이 c의 혼담을 거절한 것은 결말에서 옥영과 최척의 재회를 위한 것이었군.
- ④ a와 c는 최척과 옥영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군.
- ⑤ b와 d는 각각 삶을 포기하려는 옥영과, 속세를 등지려는 최척에게 새로운 태도를 갖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군.

10 <보기>는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작품의 구성 요소를 정리한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적강(謫降)의 화소를 갖춘 영웅적 인물'로 정리할 수 있어.
- ② ㉡은 '만남-이별-재회가 반복되는 구성'으로 정리할 수 있어.
- ③ ㉢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명과 후금 사이의 전쟁이 일어났던 시대'라고 정리할 수 있어.
- ④ ㉣은 '전란으로 인한 가족들의 이산(離散)과 재회(再會)'라고 볼 수 있어.
- ⑤ ㉠~㉣ 각각의 요소는 작품 안에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어.

11 ㉠~㉣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
①	고립무원 (孤立無援)	지음 (知音)	동병상련 (同病相憐)
②	관포지교 (管鮑之交)	동병상련 (同病相憐)	혈혈단신 (孑孓單身)
③	지기지우 (知己之友)	사고무친 (四顧無親)	지음 (知音)
④	측은지심 (惻隱之心)	관포지교 (管鮑之交)	사고무친 (四顧無親)
⑤	혈혈단신 (孑孓單身)	지기지우 (知己之友)	측은지심 (惻隱之心)

12 서술형 다음 <조건>에 맞게 이 소설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5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인 장면을 근거로 제시할 것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 및 이 소설과 다른 군담 소설의 차이점을 서술할 것

13 고난도 ㉠과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것을 고르면?

- ① 춘산(春山)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 데 없다. / 저근덧 비러다가 마리 우회 불니고져. / 귀 밋티 희목은 서리를 녹여 불가 흐노라.
- 우탁
- ② 뿔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터/ 자시논 창(窓) 밧기 심거 두고 보쇼셔. / 밤비에 새넌 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홍량
- ③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히 고은 님 여회옵고 / 너 막음 둘 터 업서 냇ᄃ의 안자시니, / 저물도 너 은 갓혀여 우리 밤길 네놓다.
- 왕방연
- ④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여, / 춘풍(春風) 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황진이
- ⑤ 강호(江湖)에 ᄃ올이 드니 고기마다 술져 있다. / 소정(小艇)에 그물 시러 홀리 띄여 더더두고, / 이 몸이 소일(消日)히옵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맹사성

[14-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신영복)

(가)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風霜)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 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였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고 경이였습니다.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광리의 솔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습니다.

(나) 언젠가 경복궁 복원 공사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정궁의 기본 궁제(宮制)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광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개,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 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 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 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라) 산판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 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不文律)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怒氣)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 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술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술발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 하였습니다.

(마)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 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술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바)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술방울 한 개를 주워 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술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술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술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젠가 붓글씨로 써 드렸던 글귀를 엮서 끝에 적습니다.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 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14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당신’이라는 칭자를 설정하여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
- ② 서간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특정 글귀로 글을 마무리 지어 독자에게 여운을 주고 있다.
- ④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부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자연물과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여, 인간의 삶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15 윗글을 참고했을 때,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무가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 ② 나무는 살아남기를 포기한 순간에도 자손을 기르겠다는 숭고한 체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③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이 있고, 자연은 인간의 선택에 좌지우지될 뿐이기 때문이다.
- ④ 자신을 해칠 수도 있는 사람과 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나무의 모습에 연민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 ⑤ 사람은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을 쉽게 하지만, 나무는 작은 땅에서도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때문이다.

16 배경지식과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의미를 구성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경지식, 자료	구성한 의미
①	소광리 소나무 숲은 수령이 200~500년 된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다.	소나무가 200 ~ 500년을 살아오는 동안 풍상을 겪으며 버텨 왔다.
②	경복궁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는 원목 200만 재에 이른다.	인간이 자연을 폭력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③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술가지를 꽂고,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술발에 묻히는 전통이 있다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까운 자리에서 인간과 함께 풍상을 겪으며 삶을 살아왔다.
④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술방울을 손에 쥐고 있어 소생했다는 신화가 있다.	우리도 소년과 같이 언제나 자연과 함께 살며 비판 없이 문명에 순응해야 한다.
⑤	쇠가 만들어졌을 때,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 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간 스스로가 문명의 폭력성을 휘두르는 자루가 되지 않으면 문명의 폭력이 인간을 해칠 수 없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넓지 않은 공간에서도 우람하게 서 있는 소나무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소나무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 스스로 느낀 부끄러움과 반성의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③ ㉢: 고궁을 복원하는 데 사용되는 소나무의 가치를 산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 무차별적인 소비 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좀 더 넓은 곳에 적용하여 일반화하고 있다.
- ⑤ ㉤: 삭막한 도시에서 소박하게 곳곳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한다.

18 (가)의 ㉠와 <보기>의 밑줄 친 구절의 공통 점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u>가만히 들여다봅니다.</u>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 윤동주, ‘자화상’	

- ① 타인의 태도를 관찰하게 한다.
- ②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게 한다.
- ③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한다.
- ④ 부정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과 저항적 태도를 기르게 한다.
- ⑤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 시각을 갖게 돕는다.

19 **[주관식]** 윗글에서 문명에 파괴되지 않는 생명력과 새로운 소생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소재를 찾아 쓰시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이영희)

(가)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과 사회 사이에 일종의 사회 계약(社會契約)이 맺어진다. 국가는 과학이 사회의 기반(基幹)이었던 농업, 의료 및 군사 부문의 성장, 즉 전반적으로 공공 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과학에 지원을 해 주고,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과학과 사회 사이의 ㉠‘제1차 사회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함으로써 과학 연구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제1차 사회 계약에 따라 전후 미국의 과학자 공동체는 국립 과학 재단, 국립 보건 연구원 등의 정부 기관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학문 및 연구의 자유에 대한 외부적 규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문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학문의 자유는 연구 대상의 선정,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시기, 연구 장소 결정 등과 관련된 연구의 자유를 포괄하는 범주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 헌법 조항은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임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왜냐하면 학문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를 기반으로 하므로 학문을 수행하는 개인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과학이 원자 폭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에 쓰이기도 하고,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1980년대 이후 과학과 사회 사이에 ㉣‘제2차 사회 계약’이 새롭게 맺어지면서 더 커졌다.

(라) 제2차 사회 계약이란 바로 ‘산학 협동’이라고 하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사회 계약하에서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게 된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연구 비밀주의가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 연구 활동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 과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에 따라 개별 과학자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 속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게 되어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 실험 과정, 방법, 결과 등을 조작하는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행위도 나타나게 되었다.

(마) 과학 연구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 연구에도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외부의 부적절한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자유 역시 매우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기본권이자 가치라는 점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과학 연구의 절대적인 자유냐 규제냐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동선(共同善)을 위해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 윗글과 관련하여 다음의 ㉠,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에서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3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였다. (중략) 임상 시험 심사 위원회는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문제들을 검토하며, 해당 시험이 윤리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용인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해 임상 시험을 제한할 수 있다.
- ㉡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노벨상 과학 부문 수상자 중 88명의 연구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수상자들은 원하는 주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가가 연구 주제, 목표, 방법 등을 지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는 수상자가 6명에 불과했다.

- ① ㉠은 과학 연구의 자율성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어.
- ② ㉠은 헌법 제 22조 제 1항과 같은 맥락의 자료로, 과학의 발전 가능성과 개인의 학문 활동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과 연결할 수 있겠어.
- ③ ㉠은 과학이 초래할 수 있는 비윤리적 연구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으로서, 과학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겠어.
- ④ ㉡은 과학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어.
- ⑤ ㉡은 과학 연구에 있어 외부의 부적절한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과 연결할 수 있겠어.

2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학문의 자유권과 관련되는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 이후 과학 연구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 과학 연구의 윤리성 및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 ③ ㉢은 사람들이 과학을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고 믿던 태도가 기반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 ④ ㉢에서는 과학의 자율성을 온전히 보장받았지만, ㉣에서는 결과적으로 과학의 자율성을 일부만 보장받게 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 ⑤ ㉢은 규제보다는 무조건적 지원, ㉣은 산업적 이윤 또는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연구만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차이가 있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과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법률을 근거로 한다.
- ② ㉠은 과학이 국가 권력, 외부의 강요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율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 ③ ㉡는 제2차 사회 계약 이후 발생한 과학 연구의 비윤리적 특성 때문에 더 강조되기 시작했다.
- ④ ㉡는 대량 살상 무기, 인간 소외와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서의 역할을 한 과학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된 주장이다.
- ⑤ ㉠과 달리 ㉡는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상황과 대상에 맞게 표현하기



- (1) 마음을 나누는 대화
대화의 원리와 언어예절
- (2)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

단원	2. 상황과 대상에 맞게 표현하기 - (1) 마음을 나누는 대화	교과서	66~71쪽
학습 주제	공손성의 원리와 순서 교대 원리를 이해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대화의 원리를 적용하여 담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01 공손성의 원리와 정중 어법

개념	대화 참여자 사이에 공손하고 ⁽⁰¹⁾)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태도
설명 기준	이익과 부담, 칭찬과 비방, 일치와 차이
정중 어법	⁽⁰²⁾)의 원리를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

02 정중 어법의 다섯 가지 격률

설명 기준	종류	개념
'이익과 부담' 측면	⁽⁰¹⁾)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여 말하는 규칙
	⁽⁰²⁾)의 격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여 말하는 규칙
'칭찬과 비방' 측면	⁽⁰³⁾)의 격률	상대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여 말하는 규칙
	⁽⁰⁴⁾)의 격률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은 최대화하여 말하는 규칙
'일치와 차이' 측면	⁽⁰⁵⁾)의 격률	상대와 자신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를 최대화하여 말하는 규칙

03 순서 교대 원리

개념	참여자들이 말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이어 가는 대화의 성격을 고려하여, 말하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해야 한다는 원리
순서 교대 원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⁰¹⁾)만 오랫동안 말을 하는 경우 •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⁰²⁾)만 지키는 경우 •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 • 진행되는 화제와 관련이 없는 화제를 갑자기 이야기하는 경우

0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1) ()의 원리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대를 배려하며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이를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을 ()이라 한다.
- (2) 자신과 상대의 이익과 부담의 관계에 따른 격률은 ()의 격률과 ()의 격률이며, 자신과 상대에 대한 칭찬과 비방에 따른 격률은 ()의 격률과 ()의 격률이다. 또한 자신과 상대의 의견 일치와 차이에 따른 격률은 ()의 격률이다.
- (3) 대화란 참여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이어 가는 것으로, 이를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 교대 원리를 지켜야 한다.

02 다음 대화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각각 쓰시오.

<보기>	
㉠ 요령의 격률	㉡ 관용의 격률
㉢ 겸양의 격률	㉣ 칭찬의 격률
㉤ 동의의 격률	㉥ 순서 교대 원리

- (1) **승우**: 다음 주에 우리 모듬이 발표해야 하니까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 줘.
서연: 그렇게 빨리?
 → 지켜지지 않은 것: ()
- (2) **승우**: 이번 학기 소풍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서연: 응, 나는……
윤아: (말을 끊으며) 안동 하회 마을 어때? 나는 진짜 좋던데.
 → 지켜지지 않은 것: ()

03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주면 상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
- (2)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예의 바른 표현이다. (○, ×)
- (3) 대화를 할 때에는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보다는 공손성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
- (4)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부분적 동의나 일체감을 드러내기보다는 초반부터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 좋다. (○, ×)

04 다음에 제시된 각 개념에 해당하는 격률이 무엇인지 쓰시오.

- (1)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은 최대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 ()
- (2)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최대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 ()
- (3)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대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 ()
- (4) 상대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 ()
- (5) 상대와 자신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를 최대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 ()

어휘 체크

05 다음 의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 (1) 행위의 규범이나 윤리의 원칙. ()
- (2)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묘한 이치. ()
- (3)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함. ()

단원	2. 상황과 대상에 맞게 표현하기 - (2)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	교과서	80~86쪽
학습 주제	문법 요소의 특성을 이해한다.		
학습 목표	문법 요소의 특성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01 높임 표현

- **높임법**: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법

(⁰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 •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되며, 격식체(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와 비격식체(해요체, 해체)로 나뉜다.
주체 높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으)시-’가 붙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 어휘(잡수시다, 주무시다 등)를 사용하기도 함. • 주격 조사 ‘이/가’ 대신 ‘께서’를 사용하기도 함.
(⁰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 •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 어휘(모시다, 뵈다, 뵈다, 드리다, 여쭙다, 여쭙다 등)를 통해 실현됨. •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기도 함.

02 시간 표현

- **시간 표현**: 어떤 상태나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과 관련된 일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법 요소로, 국어의 시간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음.
- **시제**: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종류	개념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
(⁰¹)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	-았- / -었-, -았었- / -었었-, -더-	• 동사: -(으)ㄴ, -던 • 형용사: -던	어제, 아까 등
현재 시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	• 동사: -는- / -ㄴ- • 형용사: 없음.	• 동사: -는 • 형용사: -(으)ㄴ	오늘, 지금 등
(⁰²)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	-겠-, -(으)리-	-(으)ㄹ	내일, 곧 등

(⁰³):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뉜다.

진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작의 진행을 나타냄. • ‘-고 있다’, ‘-어(아) 가다’ 등의 표현을 통해 실현됨.
완료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작의 완료를 나타냄. • ‘-어(아) 버리다’, ‘-어(아) 있다’, ‘-어(아) 놓다’ 등의 표현을 통해 실현됨.

단원	2. 상황과 대상에 맞게 표현하기 - (2)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	교과서	80~86쪽
학습 주제	문법 요소의 특성을 이해한다.		
학습 목표	문법 요소의 특성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01 시간 표현의 다양한 표현 효과

- 는 - / -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시제를 표현함. 가까운 (⁰¹)를 표현할 수 있음. 과거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음.
-았- / -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시제를 표현함. 상태가 완료되어 발화시까지 지속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음. 발화사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할 수 있음.
- 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시제를 표현함. 화자의 (⁰²)을 나타낼 수 있음.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음.

02 피동 표현

- **피동 표현**: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 **피동 표현의 형성 방법**: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⁰¹)’를 결합하여 피동사를 만들거나, ‘-되다’, ‘-어지다’, ‘-게 되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피동의 의미를 나타냄.
-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표현 효과)**

-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하고자 함.
-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사용함.
- 행위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아는 대상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함.
-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함.

- **피동 표현의 오용**: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표현 효과가 떨어지므로 유의해야 함.

이중 피동 표현	<p>피동사나 ‘-어지다’, ‘-게 되다’ 등의 표현을 두 개 이상 중복하여 사용하는 표현</p> <p>예) 나눠어지다(나누- + -이- + -어지다)</p>
불필요한 피동 표현	<p>능동 표현을 사용해야 국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번역 투의 영향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p> <p>예) 이 건축물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p>

03 인용 표현

- **인용 표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으로, 전달 방식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뉨.

직접 인용	인용하는 문장에 큰따옴표를 붙이고, 조사 ‘(⁰¹)’를 사용함.
간접 인용	조사 ‘고’를 사용함.

0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높임법이라고 한다. (○, ×)
- (2) 주체 높임법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어진다. (○, ×)
- (3)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법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 ×)
- (4) 어떤 상태나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과 관련된 일을 표현하기 위한 문법 요소로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 ×)
- (5) ‘-어(아) 놓다’, ‘-어(아) 버리다’는 진행상을 실현한다. (○, ×)
- (6)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피동 표현이라고 한다. (○, ×)
- (7)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 ×)
- (8)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인용하는 문장에 큰따옴표를 붙이고 조사 ‘고’를 사용해야 한다. (○, ×)

0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 (1) 주체 높임법은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가 붙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다.
- (3) 현재 시제를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 ()은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거나, 과거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 (4) 피동사는 능동사의 어간에 () ‘-이-’, ‘-히-’, ‘-리-’,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 (5)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조사 () 사용해야 한다.

03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표 하시오.

- (1)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으로, (종결 표현 / 특수 어휘 / 부사격 조사)을/를 통해 실현된다.
- (2) 상대 높임법의 (격식체 / 비격식체)는 공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며, 심리적 거리를 두는 느낌을 준다.
- (3)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는 (과거 시제 / 현재 시제 / 미래 시제)이다.
- (4) (-었- / -는- / -겠-)은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기도 하고,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 (5) 피동 표현은 특정한 행위의 (주체 / 대상)을/를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 (6) (직접 인용 / 간접 인용)을 할 때에는 인용하는 문장에 큰따옴표를 붙여야 한다.

어휘 체크

04 다음 어휘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하시오.

- | | | |
|---------|---|---|
| (1) 어간 | • | ㉠ 문장 내에서 술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대상이나 술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 |
| (2) 주체 | • | ㉡ 말하는 이가 말을 하는 시점. |
| (3) 발화시 | • | ㉢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
| (4) 사건시 | • | ㉣ 둘 이상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 |
| (5) 접미사 | • | ㉤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 |
| (6) 담화 | • | ㉥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근이나 단어의 뒤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광호: 다 모였으니 축제 때 우리 동아리에서 할 시화전의 주제를 정해 보자.

은태: 선배가 동아리 회장이시니까 그냥 선배가 내는 의견으로 정해요.

광호: 내 의견으로? 함께하는 시화전인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고 가장 좋은 주제로 정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진아: ‘사랑’을 주제로 하면 어때요? 시인들도 ‘사랑’에 대한 시 많이 쓰잖아요.

새별: 말도 안 돼. 나는 ‘사랑’이라는 주제는 싫어. 시인들이 ‘사랑’에 대한 시를 많이 썼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써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시는 너무 흔해. 윤석이 네 생각은 어때?

윤석: ‘사랑’이라는 주제는 좋은 것 같아요. 시인들이 ‘사랑’을 주제로 시를 많이 썼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새별 선배 말처럼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시는 많으니까 가족애, 인류애, 모성애, 조국애 등 ‘다양한 사랑의 모습’에 대해 써 보는 건 어떨까요?

진아: 좋은 생각이다. 나는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새별: 그러게. 윤석이는 생각이 참 깊은 것 같아.

윤석: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이건 기본이죠.

광호: 자, 그럼 다른 의견은 더 없어? 의견이 더 없으면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시화전 주제로 정하도록 하자. 다들 주제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해 보자.

01 위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태는 광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관용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윤석은 진아와 새별의 칭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겸양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새별은 진아의 의견에 직접적으로 반대를 표하

고 있으므로 칭찬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광호는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시화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므로 요령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윤석은 진아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한 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동의를 격률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2 **서술형** 위 대화에서 공손성의 원리에 어긋난 예를 하나 고르고, 그것을 예의 바른 표현으로 고쳐 쓰시오. [5점]

03 대화의 원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표현보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② 상대와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어 말해야 한다.
- ③ 상대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무조건 비방하기보다는 칭찬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 ④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원인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예의 바른 표현이다.
- ⑤ 상대와 의견이 다를 때 무조건 동조하기보다는 상대의 의견 중 존중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표현하고 그 이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좋다.

04 다음 ㉠, ㉡에서 어기고 있는 격률로 적절한 것은?

<보기>

㉠ 선생님, 목소리가 작으셔서 하나도 안 들려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 선생님: 지애야, 발표 자료를 정말 잘 만 들었더구나. 그래서 내용도 더 잘 전달된 것 같아.

지애: 당연하죠. 제가 뭐 못하는 거 보셨어요? 다음 발표 자료도 기대하세요.

- | ㉠ | ㉡ |
|----------|--------|
| ① 겸양의 격률 | 요령의 격률 |
| ② 관용의 격률 | 겸양의 격률 |
| ③ 관용의 격률 | 칭찬의 격률 |
| ④ 요령의 격률 | 관용의 격률 |
| ⑤ 요령의 격률 | 동의의 격률 |

05 <보기>에 나타난 승우의 말하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승우: 어제 발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 발표가 그게 뭐니? 왜 그렇게 떨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서연: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 발표가 뭐가 어때서? 내가 했으면 안 떨어졌을 것 같아?

- 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요령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며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칭찬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용의 격률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상대의 상황이나 의견에 찬성하는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동의의 격률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서연이 한 발표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으므로 겸양의 격률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6 **수능형** 다음의 대화들은 대화의 원리를 바르게 지키지 않고 있다. 지키지 않은 대화의 원리가 다른 하나는?

- ① 찬희: 민재야, 오늘 학급 회의 안건에 대한 네 생각은 어때?
민재: (아무 말 없이 앉아서)……
- ② 선용: 오늘 저녁은 뭐 사 먹을까?
민수: 음, 오늘은……
강민: (말을 끊으며) 역시 돈가스지. 치즈 돈가스로 먹자! 어때?
- ③ 지연: 이제 시험 기간도 가까워졌으니 학습 분위기도 조성할 겸 점심시간에 서로 조용히 해 주면 어떨까?
수연: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수민: 오늘 국어 숙제 정말 많지 않나?
- ④ 서연: 우리 동아리는 지역 아동 센터로 봉사 활동을 가는데, 너무나 보람차고 좋아. 거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 승우라는 애가 있는데……
하영: (속으로) 10분째 모르는 애 얘기만 계속 하네. 휴, 언제 끝나.
- ⑤ 하원: 우리 날씨도 좋은데 공원에 놀러 갈까?
지우: 공원? 시원하고 좋긴 하겠다. 근데 나 영화 초대권 두 장이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영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하원: 답답하게 무슨 영화야. 공원이나 가자.

01 다음 중 <보기>의 ㉠에 포함되지 않는 문장은?

<보기>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으로,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상대 높임법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는데, 격식체에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가 있고, 비격식체에는 해요체와 해체가 있다.

- ① 자네가 날 도와주겠나?
- ② 여기 앉아서 좀 쉽시다.
- ③ 이따 집에 갈 때 같이 가.
- ④ 오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 ⑤ 아직 8시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자느냐?

02 <보기>에 주어진 문장을 바탕으로 주체 높임 표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신다.
- 할아버지께서 떡을 잡수신다.
- 선생님은 키가 크시다.

- ① 주격 조사 '께서'는 주체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구나.
- ② 주체 높임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하는구나.
- ③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실현되는구나.
- ④ 문장의 주어가 높임의 대상과 관계된 것일 때에는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 ⑤ 청자가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보다 높을 때에는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구나.

03 <보기>를 참고할 때, 객체 높임법이 바르게

실현된 문장은?

<보기>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 ① 이 문제는 선생님께 물어보도록 하자.
- ② 음식이 맛있어서 어머니에게 주고 싶다.
- ③ 어제 할머니를 만나러 지방에 다녀왔다.
- ④ 오늘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갈 예정이다.
- ⑤ 할아버지께 무엇을 잡수시겠냐고 여쭙 보았다.

04 **서술형** 다음 그림에서 학생이 사용한 높임 표현이 어떠한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서술하시오. [5점]



05 <보기>를 참고할 때, '- (으)ㄴ'이 나타내는 시제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보기>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동사와 결합하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① 홀륭하신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
- ② 군인인 형을 면회하러 가는 중이다.
- ③ 푸른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 ④ 요즘은 검은 고양이를 보기가 어렵다.
- ⑤ 눈이 쌓인 도로에서 꼼짝도 못 하고 있다.

06 **수능형** <보기>를 참고하여 선어말 어미 '-ㄴ-'의 용법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보기>

ㄱ. 지금 바람이 분다.
 ㄴ. 승주가 내일 떠난다.
 ㄷ. 지구는 태양을 돈다.
 ㄹ. 그는 늘 앞드려서 잔다.
 ㅁ. 이순신은 명량 대첩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다.

- ① ㄱ을 보니 ‘-ㄴ-’은 발화자와 사건시가 일치함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 ② ㄴ을 보니 ‘-ㄴ-’은 주체의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 ③ ㄷ을 보니 ‘-ㄴ-’은 보편적 진리를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 ④ ㄹ을 보니 ‘-ㄴ-’은 습관적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 ⑤ ㅁ을 보니 ‘-ㄴ-’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장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07 **서술형** 다음의 ㄱ과 ㄴ에 사용된 ‘- 겠 -’의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서술하시오. [5점]

ㄱ.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
 ㄴ. 올해는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

08 다음 중 <보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은?

<보기>

㉠ 피동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동문으로 만들면 의미가 어색해지는 능동문들이 있다. 피동문으로 만들었을 때 어색한 이유는, 그 주어가 전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① 벌이 은혜를 쏘았다.
- ② 구름이 앞산을 덮었다.
- ③ 염소가 풀을 열심히 뜯는다.
- ④ 고양이가 그의 얼굴을 긁었다.
- ⑤ 어젯밤 모기가 내 코를 물었다.

09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문장은?

<보기>

피동 표현은 대체로 피동사나 ‘-어지다’, ‘-게 되다’ 등의 표현 중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데, ‘나뉘어지다’와 같은 경우는 피동사 ‘나뉘다’와 ‘-어지다’가 둘 다 사용되었다. 이런 ㉠ 이중 피동 표현은 국어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 ① 그의 말이 도무지 사실로 믿겨지지 않았다.
- ② 이 노래는 요즘 많은 사람에게 불려진다.
- ③ 칠판에 쓰여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
- ④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온 명작이다.
- ⑤ 그는 맡겨진 신분증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10 **주관식** <보기>의 문장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려고 할 때 밑줄 친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쓰시오.

<보기>

종이접기, 수채화 그리기 등 미술 분야의 교육을 맡고 있는 그녀는 “물감 하나에도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봉사하는 때 순간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01 <보기>를 참고할 때, 예의를 갖춘 표현이 아닌 것은?

<보기>

상대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등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부담을 줄여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대신 이익이 되는 표현을 하라는 말하기 규칙을 요령의 격률이라고 하는데, 이 격률에 따르면 상대의 부담이 줄어들수록, 상대의 이익이 커질수록 예의 있는 표현이 된다.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이 상대의 부담을 덜어 주므로 예의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① ㉠: 내가 오늘 청소 당번인데, 혹시 나 좀 기다려 줄 수 있을까? 바쁘면 먼저 가도 괜찮아.
- ② 다음 주에 우리 모둠 발표해야 되니까, 각자 맡은 부분 내일까지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 줘.
- ③ 동아리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작업을 맡아서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고르면, 나머지 작업을 내가 할게.
- ④ 오늘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그런데, 혹시 자료 정리하는 것 네가 해 줄 수 있을까? 발표 자료는 내가 만들게.
- ⑤ 우리 과제 일정이 촉박해서 그런데, 혹시 괜찮다면 이번 주말까지는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02 [주관식] <보기>에서 설명하는 공손성의 원리가 무엇인지 쓰시오.

<보기>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최대화하라는 말하기 규칙이다. 이 격률에 따르면 자신의 부담이 커질수록,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수록 예의 있는 표현이 된다.

03 (가)~(다)의 말하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석재: 어제 발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발표 정말 잘하더라. 이해가 잘 되었어. 조금 떠는 것 같긴 했는데, 너였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만 떨었을 거야.

지애: 고마워, 석재야. 많이 떨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 주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

(나) 선생님: 서연아, 발표 자료 정말 잘 만들었더구나. 그래서 내용도 더 잘 전달된 것 같아.

서연: 당연하죠. 제가 뭐 못하는 거 보셨어요? 다음 발표 자료도 기대하세요.

(다) 지애: 애들아, 우리 발표 끝난 기념으로 다 같이 피자 사 먹고 가자. 그동안 다들 힘들었잖아.

석재: 좋은 생각이야. 발표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텐데. 다만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 내일 가는 건 어떨까

- ① (가)에서 석재는 상대방에 대한 칭찬은 최대화하고 비방은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칭찬의 격률을 지켜 말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석재는 상대방을 칭찬해야 할 상황에서 칭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칭찬의 격률을 지켜 말하고 있다.
- ③ (가)에서 지애는 상대의 칭찬을 지나치게 부정하고 자신을 비하함으로써 겸양의 격률을 어겨 말하고 있다.
- ④ (나)에서 서연은 선생님의 칭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만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겸양의 격률을 어겨 말하고 있다.
- ⑤ (다)에서 석재는 상대와 의견이 달라도 공감할 먼저 표하고 이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동의의 격률을 지켜 말하고 있다.

04 동의의 격률을 지켜 말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의 의견 중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현하고 순차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상대와 자신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대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일치시켜 이견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③ 대화 초반부터 상대의 의견이 자신과 다를 경우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는 먼저 상대의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고, 의견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언급하여 일체감을 높인 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좋다.
- ⑤ 상대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때에는 ‘다만’과 같은 완충적인 표현이나 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좋다.

05 <보기>에서 순서 교대 원리에 해당하는 것들로 짝지어진 것은?

<보기>

ㄱ.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기.
 ㄴ. 혼자만 오랫동안 말하지 않기.
 ㄷ.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ㄹ. 침묵하지 않고 대화에 참여하기.
 ㅁ.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
 ㅂ. 다른 화제로 대화의 흐름 방해하지 않기.

- ① ㄱ, ㄴ, ㄷ, ㅁ
- ② ㄱ, ㄴ, ㄹ, ㅂ
- ③ ㄱ, ㄷ, ㄹ, ㅁ
- ④ ㄴ, ㄷ, ㄹ, ㅂ
- ⑤ ㄷ, ㄹ, ㅁ, ㅂ

06 서술형 <보기>의 ㉠, ㉡에서 지켜지지 않은 공손성의 원리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8점]

<보기>

광호: 다 모였으니 축제 때 우리 동아리에서 할 시화전의 주제를 정해 보자.

진아: ‘사랑’을 주제로 하면 어때요? 시인들도 ‘사랑’에 대한 시 많이 쓰잖아요.

새별: ㉠말도 안 돼. 나는 ‘사랑’이라는 주제는 싫어. 시인들이 ‘사랑’에 대한 시를 많이 썼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써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시는 너무 흔해. 윤석이 네 생각은 어때?

윤석: ‘사랑’이라는 주제는 좋은 것 같아요. 시인들이 ‘사랑’을 주제로 시를 많이 썼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새별 선배 말처럼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시는 많으니까 가족애, 인류애, 모성애, 조국애 등 ‘다양한 사랑의 모습’에 대해 써 보는 건 어떨까요?

진아: 좋은 생각이다. 나는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새별: 그러게. 윤석이는 생각이 참 깊은 것 같아.

윤석: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저한테 이런 건 기본이죠.

07 대화할 때 공손성의 원리를 지켜 말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할 때, 평가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를 칭찬하며 말하였는가?
- ②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였는가?
- ③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였는가?
- ④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였는가?
- ⑤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는가?

08 **주관식** <보기>의 ㉠~㉣은 각각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지 쓰시오.

<보기>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높임법이라고 한다. 국어의 높임법은 높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나누어진다.

09 상대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 ② 대상을 낮추어 표현할 수도 있다.
- ③ 격식체 4종류와 비격식체 2종류로 나누어진다.
- ④ 한 대상에게 격식체에 속하는 두 개의 표현을 섞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⑤ 동일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공적인 상황이나 사적인 상황이나에 따라 높임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10 <보기>의 ㉠~㉣을 국어의 높임법에 맞게 고친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할아버지, 많이 아파요?
 ㉡. 선생님, 이따 물어보러 찾아갈게요.
 ㉢. 필요한 상품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 나 내일 할머니 데리러 가야 돼.
 ㉤. 가격은 3만 원이됩니다.

- ① ㉠: 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세요?
- ② ㉡: 선생님, 이따 여쭙보러 찾아갈게요.
- ③ ㉢: 필요한 상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④ ㉣: 저 내일 할머니 데리러 가야 됩니다.
- ⑤ ㉤: 가격은 3만 원입니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과거 시제 표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정우는 집에 가자마자 밥부터 먹었다.
 ㉡. 초등학교 때 나는 키가 작았었다.
 ㉢. 그때 보니까 너 어머니랑 어디 가더라.
 ㉣. 이걸 어제 내가 먹은 과자이다.
 ㉤. 그 아름답던 강산이 이렇게 훼손되었다.

- ① ㉠에 사용된 ‘-자마자’와 ‘-었-’은 모두 사건의 시점이 발화시 이전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② ㉡에서 ‘-았었-’은 ‘-았-/했-’에 비해 과거 사건과의 단절감을 강조하는 기능이 있다.
- ③ ㉢에서의 사건은 화자가 자신이 관찰을 통해 지각한 내용을 떠올려 말한 것이기 때문에 ‘-더-’를 사용하였다.
- ④ ㉣에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동사와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에서 관형사형 어미 ‘-던’은 형용사와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12 <보기>에서 설명하는 현상에 의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이 아닌 것은?

<보기>

‘-고 있다’가 쓰인 문장은 결과 상태 지속을 나타내는 완료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보통의 진행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신체에 무엇인가를 접촉하게 되는 행위 중 어느 정도 시간의 폭을 요구하는 동사에 ‘-고 있다’가 쓰이면 이처럼 중의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 ① 그는 빵을 먹고 있다.
- ② 그는 교복을 입고 있다.
- ③ 그는 버스에 타고 있다.
- ④ 그는 신발을 신고 있다.
- ⑤ 그는 넥타이를 매고 있다.

13 <보기>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의 기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나 다음 달에 군대 간다.
 ㄴ. 꽃이 활짝 피었구나.
 ㄷ. 이대로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ㄹ. 이번 달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
 ㅁ. 지금쯤이면 서울에 도착했겠구나.

- ① ㄱ의 ‘-ㄴ-’은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 ② ㄴ의 ‘-었-’은 과거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 ③ ㄷ의 ‘-었-’은 발화사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 ④ ㄹ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 ⑤ ㅁ의 ‘-겠-’은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14 <보기>의 ㉠이 실현되지 않는 능동문은?

<보기>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능동 표현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피동 표현이라고 한다. ㉠피동 표현은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에 의해 실현된다.

- ① 그는 공을 멀리 던졌다.
- ② 사람들이 소설을 읽는다.
- ③ 그녀가 나뭇가지를 꺾었다.
- ④ 그는 옷을 옷걸이에 걸었다.
- ⑤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었다.

15 서술형 <보기>의 (가)와 (나)에서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사용했을 때의 표현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서술하시오. [5점]



16 문장을 국어 어법에 맞게 고친 결과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창문이 잘 닫혀졌는지 확인해 봐.
→ 창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해 봐.
- ② 그가 했던 말들이 잊히지 않는다.
→ 그가 했던 말들이 잊혀지지 않는다.
- ③ 이 건축물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 이 건축물은 그가 만들었습니다.
- ④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집니다.
→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집니다.
- ⑤ 최근 수돗물에서 녹물이 섞여 나와 말썽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최근 수돗물에서 녹물이 섞여 나와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17 주관식 <보기>의 문장을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어 쓰시오.

<보기>

그는 ‘너와 함께 산책하고 싶다.’고 말했다.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선일보 2014년 1월 8일 자 기사

(가) ○○ 병원 정신 건강 의학과 우○○ 교수는 ㉠“뇌는 언어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에 담긴 심리가 우리 몸과 마음에 그대로 투영된다.”라고 말했다. “좋아.”, “감사하다.”, “사랑한다.”와 같은 말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반면, “짜증 나.”, “힘들어.”, “죽고 싶어.”와 같은 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한다는 것이다.

(나) 언어가 심신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례는 많다. ○○ 대학교 김○○·남○○ 교수 팀이 60대 남성을 대상으로 티에스엘(TSL: Thank Sorry Love)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했다. 10명에게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매일 쓰게 하는 티에스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고, 10명은 평소대로 생활하게 한 뒤 몸과 마음의 변화를 측정했다.

티에스엘 프로그램 참여 집단의 스트레스 지표는 현격히 감소한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집단의 스트레스 지표는 증가했다. 우울 지표도 프로그램 참여 집단은 떨어진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집단은 변화가 없었다.

남○○ 교수는 중년 여성, 직장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할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영국의 ○○ 대학교 연구,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할 때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는 미국의 ○○ 대학교 연구도 있다.

(다) 건강한 언어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부정적인 말이 자주 튀어나온다면 그 말을 “우아.” 같은 감탄사나 “괜찮아.” 같은 말로 순화하려 노력해야 한다. 우○○ 교수는 막다른 길에 섰을 때도 “안 된다.”, ㉢“끝이야.”라고 말하기보다 “그럼 어떡하지?”처럼 해법을 찾는 언어를 쓰는 게 좋다고 말했다.

특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늘’, ‘항상’ 같은 말로 상황을 일반화하기보다 ‘이번에는’과 같이 상황을 개별화하고, “나는 늘 이래.”라고 하기보다 ㉣“이번에는 운이 없네.”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반드시’, ‘꼭’ 같은 말보다 ‘……하면 좋겠

다’와 같이 심리적 압박을 줄일 수 있는 말을 쓰는 것이 좋다.

18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 ② 부정적인 말은 심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순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③ 상황을 부정적으로 일반화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 심리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④ 타인에게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표현하는 말을 매일 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다.
- ⑤ 타인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매일 사용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19 <보기>는 ㉠~㉣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 ㉠ 뇌는 언어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며
- ㉡ 끝이라고 말하기보다
- ㉢ 이번에는 운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0 [주관식] ㉡를 다음 상대 높임에 맞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시오.

- 하계채: ()
- 해라채: ()

[3] 삶을 담은 문학,

삶을 담아 쓰기



(1) 서정 갈래의 이해
첫사랑(고재종)

(2) 서사 갈래의 이해
돌다리(이태준)

(3) 극 갈래의 이해
성난 기계(차범석)

(4) 교술 갈래의 이해와 글쓰기
상기(박지원)

01 활동&정리

(1) 서정 갈래의 이해

첫사랑

학년 | 반 | 번 | 이름

| 점수

단원	3. 삶을 담은 문학, 삶을 담아 쓰기 - (1) 서정 갈래의 이해	교과서	100~101쪽
학습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정 갈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서정 갈래의 형상화 방법에 유의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사랑’을 통해 서정 갈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첫사랑’에 드러난 정서와 표현상의 특징 등을 파악한다. 		

01 서정 갈래의 특성

개념	작가의 주관적 (⁰¹)를 (⁰²) 언어로 형상화하는 문학 양식
형상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어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 (⁰³)을 드러냄.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구체화함으로써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함.

02 서정 갈래의 유형

고대	>	신라	>	고려	>	조선	>	현대
고대 가요(황조가, 정읍사 등)		(⁰¹)		고려 가요		(⁰²)		현대 시

03 ‘첫사랑’의 시상 전개 과정

눈이 내리는 이유	>	눈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과 시련	>	눈이 피워 낸 눈꽃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봄. 난분분 난분분 춤을 춤.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반복함.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감. 		‘마침내 피워 낸 저 (⁰¹)’

04 윤동주의 ‘자화상’과 이육사의 ‘절정’ 비교

수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인법: ‘눈’을 사랑을 이루려는 사람처럼 표현함. 설의법: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⁰¹): ‘햇숨 같은 마음’ (⁰²):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원관념: 눈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역설법: ‘(⁰³)’ → 첫사랑의 아픔 뒤의 정신적 성숙과 성숙한 사랑을 표현함.
리듬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의 반복: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등 음성 상징어의 사용: ‘싸그락 싸그락’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적 이미지: ‘흔들리는 나뭇가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등 (⁰⁴) 이미지: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촉각적 이미지: ‘(⁰⁵)’

• 첫사랑(고재중)

갈래	서정시, 자유시
제재	눈
성격	서정적, 회화적, 비유적
특징	① 설의적 표현, 비유적 표현이 드러남. ②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함. ③ 역설적 표현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냄.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함.
주제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 낸 첫사랑과 정신적 성숙

01 이 시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 ×)
 (2) 1연과 2연의 배경은 동일한 계절이다. (○, ×)
 (3) 눈을 사랑을 이루려는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
 (4) 1연과 2연은 화자가 관찰한 자연 현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 (○, ×)
 (5) 2연에는 동일한 시어나 어미의 반복을 통한 리듬감이 나타나 있다. (○, ×)
 (6) 2연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
 (7) 화자의 감정은 3연에 이르러 가장 고조되어 드러난다. (○, ×)

02 다음 시구에 사용된 감각적 이미지는 무엇인지 쓰시오.

- (1)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적 이미지
 (2) ‘짜그락 짜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적 이미지
 (3) ‘한 번 댄 자리’: ()적 이미지

03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시어나 시구를 ‘첫사랑’에서 찾아 쓰시오.

- (1) 1연의 ‘도전’에 해당되는 단어를 2연에서 찾으려면 (), (),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이다.
 (2) 2연의 ‘두드려 보았겠지.’나 ‘춤추었겠지.’의 주체는 모두 ()이다.
 (3) 3연의 ()은 직유법을 사용한 표현이다.
 (4) 3연의 ()과 ()는 시련을 암시하는 시어이다.
 (4) 4연의 ()는 모순 형용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어휘 체크

04 다음 시구의 의미에 부합하는 한자 성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고진감래(苦盡甘來), 새옹지마(塞翁之馬),
허장성세(虛張聲勢), 칠전팔기(七顛八起)

- (1)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
 (2)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

05 다음의 어휘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 하시오.

- (1) 난분분 • ㉠ 한차례의 바람이 나 빗줄기.
 (2) 자락 • ㉡ 바람이 갑자기 아주 세게 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3) 획 • ㉢ 눈이나 꽃잎 따위가 흩날리어 어지럽게.

단원	3. 삶을 담은 문학, 삶을 담아 쓰기 - (2) 서사 갈래의 이해	교과서	108~117쪽
학습 주제	서사 갈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학습 목표	'돌다리'를 통해 서사 갈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01 소설의 서술 방식

보여주기(showing)	장면이나 대화 등을 묘사하여 제시함. 현장성이 강하게 드러나지만 사건 진행이 느림.
(⁰¹)(telling)	서술자가 사건을 요약하여 전달함. 사건 진행이 빠름.

02 소설의 시점과 거리

시점	개념	서사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서술하는 시각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칭 주인공 시점: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함. (⁰¹):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과 다른 인물들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달함. (⁰²):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달함.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 밖의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알고 이야기를 전달함.
거리	개념	서술자와 등장인물 혹은 독자와 등장인물 사이 등에 존재하는 심리적 태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경우,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독자와 서술자, 서술자와 등장인물, 등장인물과 독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반면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작가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인물을 관찰하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작가 관찰자 시점은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는 멀고, 등장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깝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등장인물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서술하므로 독자와 서술자의 관계는 가까운 반면, 등장인물과 독자의 관계는 멀다. 말하기 방식보다는 (⁰³) 방식을 사용할 때 상황과 독자의 거리는 가깝게 느껴진다.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거리는 서술자가 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등장인물에 대해 친근감을 가질 때 가깝게 느껴진다. <p>*그러나 거리의 문제는 일반화하여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작품을 대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p>

03 인물의 유형

성격의 변화 여부에 따라	평면적 인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의 변화가 없는 인물
	(⁰¹)	사건이 전개되면서 성격이 바뀌는 인물
성격의 보편성 여부에 따라	(⁰²)	특정 연령, 직업, 성별,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
	개성적 인물	전형적인 인물과 달리 자신만의 개성을 지닌 인물
인물이 맡은 직능에 따라	주동 인물	작품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인물. 주인공
	(⁰³)	작품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역행하는 인물

단원	3. 삶을 담은 문학, 삶을 담아 쓰기 - (2) 서사 갈래의 이해	교과서	108~117쪽
학습 주제	서사 갈래의 형상화 방법에 유의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다리’를 통해 서사 갈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 ‘돌다리’에 드러난 인물, 사건, 배경, 서술자를 이해한다. 		

01 ‘돌다리’의 구성

발단	창섭은 누이가 의사의 오진으로 죽자 의전에 진학해 의사가 됨. 창섭은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는 제안을 하러 고향에 옴.
전개	창섭은 고향으로 들어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과 (⁰¹)를 고치고 있는 아버지와 마주침.
위기	창섭은 아버지께 땅을 팔자는 제안을 하며 땅을 판 돈으로 병원을 확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된다는 것과 부모님은 서울 집에 모시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함.
절정	아버지는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고 땅은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역설함. 창섭은 땅에 대한 아버지의 확고한 신념을 다시금 깨달음.
결말	창섭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돌다리를 지나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다음 날 아버지는 고쳐 놓은 돌다리에서 앞으로도 땅을 지키며 살 것을 다짐함.

02 ‘돌다리’의 인물 분석

(1) 주요 인물

아버지	일생 농사만 지어온 농부. 땅에 대해 강한 애착심을 지니고 있음. (⁰¹) 가치보다 전통적 가치를 소중히 여김.
어머니	아들, 손자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평범하고 소박한 농촌의 여성
창섭	서울에 사는 의사로, 병원을 확장하여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음. 물질 지향적인 가치관을 지님.

(2) 아버지와 아들의 가치관 비교

	아버지	아들(창섭)
직업	농부	(⁰²)
사는 곳	시골(철원)	도시(서울)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⁰³) 가치 • 정신적 가치 • 내면적 가치 • 비합리적 가치 • 본질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적 가치 • 물질적 가치 • 외면적 가치 • 합리적 가치 • (⁰⁴) 가치

• 돌다리(이태준)

갈래	단편 소설
제재	돌다리
성격	사실적, 비판적, 교훈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특징	①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냄. ② 인물들의 대립되는 가치관을 치밀하게 제시함. ③ 당대 사회의 언어나 풍속 등을 사실적으로 보여 줌.
주제	물질적인 가치관에 대한 비판과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

01 이 글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창옥은 의사의 오진으로 사망하였다. (○, ×)
- (2) 창옥이 사망했을 때는 여름이었다. (○, ×)
- (3) 창섭은 창옥이 죽을 당시에 집에 없었다. (○, ×)
- (4) 창섭은 가족과 함께 고향을 찾아갔다. (○, ×)
- (5) 창섭의 고향 마을에는 큰 내가 마을의 복판을 흐르고 있다. (○, ×)
- (6) 창섭이 고향을 찾았을 때 아버지는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다. (○, ×)
- (7) 창섭은 고향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갈 생각으로 내려왔다. (○, ×)
- (8) 창섭이 고향의 부모를 찾은 것은 병원 건물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
- (9)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한 생활을 통해 자신의 당대에 농토를 많이 늘렸다. (○, ×)
- (10) 창섭이 고향을 찾았을 당시 그의 아버지 연세는 환갑이 채 되지 않았다. (○, ×)
- (11) 창섭의 고향 마을에는 새로운 나무다리가 생겼다. (○, ×)
- (12) 창섭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어머니는 돌다리를 고치는 사람들을 위한 점심을 짓고 있었다. (○, ×)
- (13) 창섭이 새로 사려고 하는 건물은 원래는 인쇄소를 하던 곳이었다. (○, ×)

- (14) 창섭의 아버지는 창섭이 땅을 팔자고 하자 그 자리에서 거절하였다. (○, ×)
- (15) 창섭의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를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짓기를 바란다. (○, ×)
- (16) 창섭의 어머니는 시집을 올 때 가마를 타고 돌다리를 건넜다. (○, ×)
- (17) 창섭의 어머니는 고향에서 조상을 모시는 것보다 서울로 가서 손자 아이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 ×)
- (18) 창섭의 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땅을 팔지 않고 아들이 땅을 지켜 주기를 바란다. (○, ×)
- (19) 창섭은 땅을 팔 수 없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 ×)

어휘 체크

02 다음 어휘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 하시오.

- (1) 모리 지배 • ㉠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람.
- (2) 야인 • ㉡ 배운 데 없이 제풀로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3) 작인 • ㉢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 (4) 지주 • ㉣ 시골에 사는 사람.
- (5) 후레 자식 • ㉤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남에게 빌려주고 지대(地代)를 받는 사람.

01 이 글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이 글의 서술자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 ×)
- (2) 이 글은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
- (3) 서술자는 ‘창섭’과 ‘아버지’의 심리까지 모두 파악하여 전달하고 있다. (○, ×)
- (4) ‘창섭’이 의사가 된 계기는,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누이의 허무한 죽음이다. (○, ×)
- (5) 이 글은 ‘창섭’과 ‘아버지’의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을 축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
- (6) ‘아버지’는 ‘땅’을 실용성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 ×)
- (7) 아버지는 땅은 작인들에게 맡기고 도회지에서 관리만 하는 지주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
- (8) ‘아버지’는 비가 많이 쏟아져 물이 분수 없이 늘었기 때문에 돌다리가 부서졌다고 생각한다. (○, ×)

0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표 하시오.

- (1) 이 글의 갈래는 (서정 / 서사 / 극 / 교술)에 해당한다.
- (2) 근대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소재는 (돌다리 / 나무다리)이다.
- (3)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일을 (악업 / 인술)이라고 생각한다.
- (4) 마을에 돌다리를 처음 만든 사람은 ‘창섭’의 (할아버지 / 아버지)이다.
- (5) ‘어머니’는 (땅 / 산소나 사당 / 손자 아이들)에(게) 마음이 가장 이끌리고 있다.
- (6) ‘아버지’는 ‘창섭’이 (고농(高農) / 의전(醫專))에 들어가기를 바랐다.

어휘 체크

03 다음 뜻에 해당되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그 기호를 쓰시오.

<보기>		
㉠ 걸다	㉡ 굴굴리다	㉢ 변장하다
㉣ 도지다	㉤ 소슬하다	㉥ 애석하다
㉦ 일매지다	㉧ 재우치다	㉨ 절용하다
㉩ 타산하다		

- (1) 슬프고 아깝다. ()
- (2) 으스스하고 쓸쓸하다. ()
- (3) 빨리 몰아치거나 재촉하다. ()
- (4) 나아지거나 나았던 병이 도로 심해지다. ()
- (5) 아껴 쓰다. ()
- (6) 모두 다 고르고 가지런하다. ()
- (7) 어떤 사물을 이리저리 굴리다. ()
- (8) 흙이나 거름 따위가 기름지고 양분이 많다. ()
- (9) 본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옷차림이나 얼굴, 머리 모양 따위를 다르게 바꾸다. ()
- (10)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헤아리다. ()

어휘 체크

04 다음 부사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그 기호를 쓰시오.

<보기>	
㉠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 순서에 따라 조리 있게.	
㉢ 이미 정하여진 것처럼 어쩔 수 없이.	

- (1) 천생: ()
- (2) 자고로: ()
- (3) 채견채견히(차근차근히): ()

단원	3. 삶을 담은 문학, 삶을 담아 쓰기 - (3) 극 갈래의 이해	교과서	126~133쪽
학습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 갈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극 갈래의 형상화 방법에 유의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난 기계’를 통해 극 갈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성난 기계’에 드러난 인물, 사건, 이야기 전달 방식을 이해한다. 		

01 희곡의 특성

- 무대 (01)을 전제로 함.
- 인물들 간의 (02)이 중심을 이룸.
- 서술자의 개입이 없음.
- (03)와 행동 및 배경, 음향 효과 등을 통해 형상화됨.

02 ‘성난 기계’의 구성

발단	폐결핵에 걸린 인옥이 외과 의사인 회기를 찾아와 수술을 해 달라고 애원함.
전개	회기는 수술 결과에 자신이 없다며 인옥의 요청을 거절함.
절정	회기가 아내 인옥의 수술을 하지 말아달라는 (01)과 대립함.
하강	회기는 상현의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낌.
대단원	회기가 급속을 시켜 인옥에게 수술을 받으러 오라는 편지를 보내게 함.

03 ‘성난 기계’의 갈등 양상

회기 ↔ (01)	살기 위해 수술을 요청하는 인옥과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절하는 회기의 갈등
회기 ↔ 상현	경제적 이유와 아내의 부정에 대한 의심으로 인옥의 수술을 반대하는 상현과 비인간적인 상현의 태도에 분노하는 회기의 갈등

04 소재의 상징적 의미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상실된 (02)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전달함.
담배: 인간	포장: (01)	알맹이: 내면(인간성)	

05 제목의 의미

기계	인간미를 상실한 채 인옥의 호소를 외면하는 회기의 (01)인 면을 나타냄.
(02)	기계 같던 회기가 인옥을 살려야겠다며 인간적인 면모를 보임.

제목 ‘성난 기계’는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을 상징함.

• 성난 기계(차범석)

갈래	희곡, 단막극
제재	비인간적인 현대인의 삶
성격	사실주의적, 세태 비판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적 배경: 1950년대 늦가을 공간적 배경: 종합 병원 폐 외과 과장실
특징	①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립되는 구조임. ② 비정한 현대인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묘사함. ③ 단순한 구성과 사건을 통해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냄.
주제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의 인간성 상실과 회복

01 이 글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회기는 종합 병원에서 근무하는 폐 외과 의사이다. (○, ×)
- 인옥은 담배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 ×)
- 평소 회기는 환자와 사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해 왔다. (○, ×)
- 인옥은 회기가 약을 처방해 준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 (○, ×)
- 상현은 회기가 인옥의 수술을 거절한 사실에 화가 나 병원을 찾아온다. (○, ×)
- 상현은 회기에게 인옥의 병이 회복되면 인옥과 자신은 더 불행해진다고 말한다. (○, ×)
- 상현이 아내의 수술을 포기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 ×)
- 상현은 아내의 생사보다도 자신이 살아갈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 ×)
- 회기는 상현의 가족들이 인옥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
- 회기가 상현을 만나는 동안 금숙은 과장실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 ×)
- 회기는 상현의 비인간적 태도에 분노를 드러낸다. (○, ×)

0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표 하시오.

- 회기는 수술을 못하는 대신 인옥에게 (다른 병원 / 좋은 약)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한다.
- 인옥은 담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고객 / 자식)을 생각했다고 말한다.
- 회기의 별명은 (머리 / 손)은/는 사람이고 (머리 / 손)은/는 기계인 이십 세기 스프링스이다.

03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 인옥은 수술을 거절하는 회기에게 ()처럼 냉정하다고 말한다.
- 인옥이 진찰실을 나가는 모습을 본 회기는 허무감과 ()을 느낀다.
- 회기는 인옥을 수술하기로 결심하고 금숙에게 ()을 보내라고 지시한다.
- 회기는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가 좋아야 한다고 중얼거린다.

어휘 체크

04 다음 어휘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하시오.

- | | | |
|----------|---|------------------------|
| (1) 음침하다 | • | ㉠ 투박하고 무겁다. |
| (2) 육중하다 | • | ㉡ 옹골 있게 여김. |
| (3) 수궁 | • | ㉢ 분위기가 어두컴컴하고 스산하다. |
| (4) 목례 | • | ㉣ 의심스럽고 이상하다. |
| (5) 내용 | • | ㉤ 쌀쌀한 태도로 비웃음. |
| (6) 쓴웃음 | • | ㉥ 어이가 없거나 마지못하여 짓는 웃음. |
| (7) 노골적 | • | ㉦ 숨김없이 모두를 있는 그대로 드러냄. |
| (8) 의아하다 | • | ㉧ 눈인사. |

단원	3. 삶을 담은 문학, 삶을 담아 쓰기 - (4) 교술 갈래의 이해와 글쓰기	교과서	142~146쪽
학습 주제	교술 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을 쓰는 방법을 이해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술 갈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형상화 방법에 유의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01 교술 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

개념	대상이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 대상이나 세계를 (⁰¹)하거나 (⁰²)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문학 양식
형상화 방법	대상이나 세계에 대한 개인의 경험, 사색, 성찰 등을 (⁰³)인 발상이나 문체로 형상화함.
종류	설(說), 기(記), 수필 등

02 '상기(象記)'의 구성

기	움직이는 (⁰¹)를 보았을 때 느낀 충격과 경이로움	승	코끼리의 (⁰²)에 대한 자세한 묘사	전	하늘의 이치에 관한 통념에 대한 논리적 반박과 입증	결	고정된 관점이 아니라 변화하는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
---	---	---	-----------------------------------	---	------------------------------	---	--------------------------------------

03 코끼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제시

보편적 인식 (부정적 관점)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임.	새로운 인식 (긍정적 관점)	코끼리의 (⁰¹) 성품이 바로 눈에서 나옴.
--------------------	--	--------------------	---------------------------------------

04 '사람들'과 작가의 문답

사람들	(⁰¹)이 이빨을 준 것은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임,	작가	코끼리는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아 씹는 것에 방해가 됨.	사람들	코끼리에게 긴 어금니를 준 것은 코가 있기 때문임.	작가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것이 나옴.
-----	--	----	--	-----	------------------------------	----	------------------------------

05 고정된 시각으로 판단할 때의 오류

코끼리	크고 사나운 범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쥐를 더 꺼려함.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는 것은 일반적인 (⁰¹)에서의 이치와 맞지 않음.	고정된 관념으로 대상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불합리함.
-----	-------------------------------	---	---------------------------------

• 상기(박지원)

갈래	고전 수필
제재	코끼리를 본 경험
성격	묘사적, 비유적, 교훈적
특징	①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념을 깨는 철학적 진리를 전달함. ② 비유와 묘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개성적으로 표현함. ③ 문답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함.
주제	고정된 관점이 아니라 변화하는 관점에서의 대상 인식의 필요성

0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상기’는 코끼리의 습성을 기록한 경수필이다. (○, ×)
- (2) 작가가 처음 코끼리를 본 곳은 중국의 연경이다. (○, ×)
- (3) 작가는 동해를 여행했을 때도 코끼리를 본 적이 있다. (○, ×)
- (4) 작가는 코끼리의 어진 성품이 눈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 ×)
- (5) 작가는 ‘뿔이 있는 것에게는 뿔니를 주지 않는다.’라는 말에 공감한다. (○, ×)
- (6) 작가가 글을 쓴 궁극적인 의도는 코끼리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다. (○, ×)

0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 (1) 작가는 코끼리의 코끝이 ()의 끝 부분처럼 생겼다고 묘사하였다.
- (2) 강희 황제 때 남해자에서 코끼리가 코를 휘둘러 죽게 한 동물은 ()이다.
- (3) 사람들은 만물의 근본을 ()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 (4) “주역”에서 ()이란 그 빛이 검고 모양은 흙비가 내리는 듯한 상태를 말한다.
- (5) 코끼리는 ()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멍하니 서 있다.

03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표 하시오.

- (1) 그 몸체를 생각해 보면 (소 / 나귀)의 몸뚱이에 (소 / 나귀)의 꼬리, (낙타 / 호랑이)의 무릎에 (낙타 /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귀는 구름을 드리운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두 아람이나 되고, 키는 한 장 남짓이나 되었다.
- (2) 아,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 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 / 땅)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하늘 / 땅)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어휘 체크

04 다음 어휘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 하시오.

- | | | |
|--------|---|---------------------------------------|
| (1) 진기 | • | ㉠ 타고난 본성. |
| (2) 요량 | • | ㉡ 앞일을 잘 헤아려 생각함. |
| (3) 성정 | • | ㉢ 어떤 일을 맡아 중심이 되어 처리함. |
| (4) 주재 | • | ㉣ 유교의 경전인 오경 중의 하나로 우주 변화의 이치를 설명한 책. |
| (5) 풀무 | • | ㉤ 매우 귀하면서 기이함. |
| (6) 주역 | • | ㉥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 |
| (7) 봉황 | • | ㉦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 |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첫사랑(고재중)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A]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텐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01 이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나뭇가지에 핀 눈꽃을 보고 시상을 떠올린 것 같아.
- ② 화자는 첫사랑은 언제나 쉽게 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 ③ 화자는 눈꽃이 핀 과정을 상상과 추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 ④ 화자는 첫사랑을 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 ⑤ 화자는 눈꽃이 피었던 자리에서 봄이 되면 꽃이 핀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

02 이 시에 드러나지 않은 표현 방법은?

- ① 역설법
- ② 직유법
- ③ 설의법
- ④ 연쇄법
- ⑤ 의인법

03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는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을 드러낸다.
- ②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은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시련을 말한다.
- ③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는 첫사랑을 위한 헌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④ ‘한 번 텐 자리’는 첫사랑의 아픈 경험을 의미한다.
- 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첫사랑을 이룬 기쁨을 의미한다.

04 **주관식**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를 3연에서 찾아 쓰시오. (정답 2개)

<보기>

시에서 정서를 형상화할 때 많이 쓰는 수법은 관념이나 정서를 구체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로 구체적인 대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05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어와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눈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을 음성 상징어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사랑의 순간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눈이 내리는 소리를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⑤ 눈이 내리는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06-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첫사랑(고재중)

(나) 낙화(이형기)

(가)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텐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나)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06 (가)와 (나)를 읽고 독후감을 쓰려고 할 때,
그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 속에서 누리는 삶의 여유
- ② 자연 현상에서 배우는 삶의 교훈
- ③ 자연의 무한성과 인간 삶의 유한성
- ④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물질적인 혜택
- ⑤ 절대적 존재로서의 자연 현상의 신비성

0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차례대로 전개하고 있다.
- ② 의인법을 사용하여 자연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 ④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이별을 통한 성숙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8 (가)와 (나)의 소재 중, <보기>에서 설명한
'투사화가 된 자연물'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시에서 '투사(projection)'란 세계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자신의 의지와 욕망에 따라 자아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대상에 이입하여 대상과 자아의 동일성을 얻는 방법이다. 이것은 곧 감정 이입을 통하여 자아와 세계가 일체감을 얻는 것으로 투사화가 된 자연물은 서정적 자아의 분신과 같다.

- ① (가)의 '나뭇가지'
- ② (가)의 '바람'
- ③ (나)의 '낙화'
- ④ (나)의 '녹음'
- ⑤ (나)의 '열매'

09 서술형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랑'의 속성을 서술하십시오. [5점]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돌다리(이태준)

정거장에서 샘말 십 리 길을 내려오노라면 반이 될락 말락 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뜨인다.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보았다.

봄에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누르테데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어느 것이라고 짐어낼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는 짐작이 된다. 창섭은 마음으로 ‘창옥아’ 불러 보며 묵례(默禮)를 보냈다.

다만 오뉘뻘으로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 창옥은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읊으로 뛰어들어 가 의사를 청해 왔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돌아갔다.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고 새벽녘엔 아파하는 것도 더해 갔다.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 하였다.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으나 역시 오진을 했었다. 다시 하루를 지나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 버린 뒤에야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아낸 눈치였다.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먹살을 들었을 것이었다.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高農)을 마다하고 의전(醫專)으로 들어갔고, 오늘에 이르러는, 맹장 수술로는 서울서도 정평이 있는 한 권위가 된 것이다.

「‘창옥아, 기뻐해다구.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개인병원으론 [A]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네 사진을 크게 확대해 내 새 진찰실에 걸어 놓으마…….’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후 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

길은 그전보다 넓어도 족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비나 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

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어서까지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창섭은,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걸’ 하였다.

01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자신의 심리나 행동을 서술하였다.
- ② 작품 속의 서술자가 다른 등장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였다.
- ③ 서술자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요약하여 서술하였다.
- ④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
- ⑤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나 행동 등을 모두 파악하여 서술하였다.

0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창섭의 직업
- ② 창옥이 사망한 이유
- ③ 사건의 계절적 배경
- ④ 창섭이 의사가 된 계기
- ⑤ 창섭이 당일 돌아가는 이유

03 **수능형** [A]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창섭이 고향을 찾은 목적을 암시한다.
- ② 창옥에 대한 창섭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 ③ 창섭이 뛰어난 의사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 ④ 창옥의 죽음 후 일어난 사건을 요약해 보여 준다.
- ⑤ 아버지가 창섭에게 고봉을 권했던 이유를 알게 해 준다.

04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하게 사용된 것은?

- ① 국어사전에는 낱말들의 뜻이 풀이되어 있다.
- ②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뜻이 깊다.
- ③ 그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
- ④ 자기 뜻을 이룬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다.
- ⑤ 누구든 자신의 일에서 뜻과 보람을 찾아야 한다.

[05-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돌다리(이태준)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채견채견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으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열한 것, 얹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

[A]

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답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담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참 놀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 낱은 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B]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니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졌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05 윗글의 대화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들과 아버지 모두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 ② 아들의 제의에 대해 아버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 ③ 아들과 아버지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말했다.
- ④ 아들은 감정적으로 자기주장을 폈고, 아버지는 권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 ⑤ 아들은 자신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으나, 아버지는 땅을 팔지 않겠다는 생각을 직설적으로 밝혔다.

06 윗글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이야기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자식 된 도리를 하려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 ② 새로 사려고 하는 건물의 활용 가치를 언급했다.
- ③ 현재 쓰고 있는 병원 건물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 ④ 새로 건물을 지으면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언급했다.
- ⑤ 땅을 팔아 병원을 확장하는 것이 실익이 많음을 이야기했다.

07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사건이 빠르게 전개된 반면, [B]는 사건이 느리게 전개되고 있다.
- ② [A]는 인물의 심리 위주로 그리고 있고, [B]는 인물의 행동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A]는 서술자가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고, [B]는 인물의 대화 장면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A]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서술하고 있고, [B]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⑤ [A]는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이야기하고 있고, [B]는 전지적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다.

08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의 공격을 막음.
- ② ㉡: 값이 싼.
- ③ ㉢: 열이 조금 넘는 수.
- ④ ㉣: 하루 동안.
- ⑤ ㉤: 요즘 사람들.

[0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돌다리(이태준)

“땅을 밟구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應果)가 분명헌 게 무어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두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작인들헌테나 맡겨 버리구, 떡 도회지에 가 있어 소출(所出)은 팔아다 모다 도회지에 낭비해 버리구, 땅 가꾸는 텐 단돈 일원을 벌벌 떨구, 땅으루 살며 땅에 야박한 높은 자식으로 치면 후례자식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 보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구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냐? 독이 떠나가니 아냐? 거름한 번을 제대로 넣냐? 정 급허게 돼 작인이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신의(新醫)들 주사침 놓듯, 애꾸진 금비(金肥)만 갖다 털어 넣지. 그렇게 땅을 홀델 허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루들 갈 텐구!”

창섭은 입이 열어 버리었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本位)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루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헌 욕심은 아닐 줄두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런 못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仁術)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허게 진실허게 해라.”

“.....”

“네가 가업을 이어 나가지 않는다군 탄허지 않겠다. 넌 너루서 발전할 길을 열었구, 그제 또 모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活人)허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허니? 다만 삼사 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 논 전장(田莊)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옥 애석헌 심사가 없달 순 없구.....”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두 이제두 말했지만 너두 문서 쪽만 쥐구 서울 앓어 지주 노릇만 허게? 그따위 지주허구 작인 틈에서 땅들만 얼마 골른지 아냐?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임시(臨時)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냐? 사람헌테 팔 테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는 같은 건 한 해만 부쳐 보구 죽어두
 농군으로 태낭은 걸 한허지 않겠다구 했다.
 독시장밭을 내놓는다구 해 보라, 문보나 덕길
 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드라두 집을 팔
 아 살려구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 넘자
 안 되구 누가 돼야 옳으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
 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해구 그 땅 소
 출을 팔아 연년이 갚아 나가게 헐 테니 너두
 땅값을랑 그렇게 받아 갈 줄 미리 알구 있거
 라. 그리구 네 모가 먼저 가면 내가 물을 거
 구,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만은 네가 서
 울루 그때 다려가렴. 난 샘말서 이렇게 야인
 (野人)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

“.....”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
 된 맘으루두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
 두 그만 신념쯤 지켜 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
 하지 말어다구.”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
 치는 데로 나갔다.

09 윗글에 나타난 ‘아버지’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아들이 의사인 것을 못마땅히 여긴다.
- ② 아들의 병원 확장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 ③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아내를 돌봐 주기를 바란다.
- ④ 지주들은 소작인들에게 많이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⑤ 자신이 죽은 후에 땅을 팔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염려한다.

10 **주관식** 문맥을 고려할 때, @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쓰시오.

1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나타난 ‘아들’과 ‘아버지’의 인물 유형을 바르게 파악한 것은?

<보기>

소설의 인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의 변화가 없는 ‘평면적 인물’과 사건이 전개되면서 성격이 변화하는 ‘입체적 인물’로 나누기도 하고, 특정 연령, 직업, 성별, 집단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과 자신만의 개성을 지닌 ‘개성적 인물’로 나누기도 한다. 또 작품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주동 인물’과 작품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역행하는 ‘반동 인물’로 분류하기도 한다.

- ① 아들은 평면적 인물이면서 주동 인물로 볼 수 있군.
- ② 아들은 입체적 인물이면서 주동 인물로 볼 수 있군.
- ③ 아버지는 평면적 인물이면서 주동 인물로 볼 수 있군.
- ④ 아버지는 입체적 인물이면서 반동 인물로 볼 수 있군.
- ⑤ 아버지는 전형적 인물이면서 반동 인물로 볼 수 있군.

12 **서술형** 아버지가 땅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생각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8점]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난 기계(차범석)

때: 현대, 늦가을

곳: 종합 병원 폐 외과 과장실

무대: ××종합 병원 폐 외과 과장실. 정면 벽 우측에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문의 5분의 1은 두꺼운 반투명 유리가 끼어 있고 검은 페인트로 ‘과장실’이라는 세 글자가 씌어 있다. 좌측에는 진찰용 침대와 흰 광목으로 된 칸막이 커튼. ㉠좌편 벽엔 두 개의 유리창이 남쪽으로 향하여 있어, 하마터면 음침하게 될 뻔한 이 방에 환한 햇볕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 옆쪽으로 큼직한 책상과 회전의자와 환자용 의자, 벽 구석에 책장과 캐비닛. 우편 벽에 진찰실과 수술실로 통하는 욱중한 문. 이 문과 정면 문 중간에 전임 간호사의 사무용 책상과 의자. ㉡그 앞에 응접세트, 출입문 한 구석에 흰 타일로 된 세면대와 옷걸이가 붙어 있다. 따라서 이 방은 가벼운 진찰과 외래객의 응접과 연구를 겸한 과장의 사실(私室)이다.

㉢방 전체는 청결하다는 장점을 제하면 단조(單調)하고 냉랭하여 일말의 음산한 공기가 떠돌고 있다.

막이 오르면 양회기가 흰 가운의 소매를 걷어붙이며 우편 문을 열고 등장. 그 뒤에 간호사 정금숙과 환자 김인옥이 따라 나온다. ㉣양회기의 흰 피부와 후릿한 키는 혼한 외국 신사에게서 받는 세련됨과 과학자가 지니는 냉담성을 동시에 발산하고 있다. 인옥의 형클어진 옷맵시와 핏기 없는 안색은 첫눈에도 그녀가 중환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양회기가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는 동안 금숙은 수건을 펴 든 채로 우편에 서 있고, 인옥은 힘없이 무대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는다. ㉤그녀의 표정은 비애보다는 차라리 어떤 신장적인 절절한 욕망이 감돌고 있다.

회기는 금숙이 내미는 수건으로 손을 씻으며 좌편 책상 쪽으로 간다.

01 <보기>의 ㉠~㉤ 중 윗글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보기>

해설은 희곡의 첫머리에 나오는 부분으로 대체로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제시해 주고, ㉡무대 장치와 소품, ㉢음향 효과 등을 설명해 준다. 또 ㉣배우들의 의상을 알려 주고 ㉤배우들의 무대 상의 위치나 동선을 알려 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02 윗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문학 작품은 유기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은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성난 기계’는 인간성을 상실했던 한 인간이 어떤 계기로 인해 상실한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가는 이런 결말을 이미 해설을 통하여 암시해 두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03-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난 기계(차범석)

인옥: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회기: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인옥: 환자가 죽어 가도 말씀이에요?

회기: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인옥: (안타깝게) 선생님…….

회기: 댁이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지요. 그렇잖아요?

인옥: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이때 금숙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회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댁의 손처럼…….

인옥: 그리고 내 손처럼……. (이제는 눈물도 말라 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 (서서히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 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회기: (약간 감동되며) 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댁이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릴 테니 써 보세요.

인옥: (혼잣소리처럼) ㉢알맹이는 어찌 되었던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미라는 말이군요……. 늘 듣던 얘가지.

회기: (약간 난처해하며) 그런 뜻이 아니라…….

인옥: 팬찮아요……. 수술을 못 맡아 주시겠다는 데 억지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힘없이 문 쪽으로 걸어 나가며) 살아 보겠다는 내가 잘못된 게죠. 남들은 다 사는데 나만 죽어야 할 까닭은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여쭙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수 있어요? (그 누구를 저주하는 듯) 내 살을 뜯어 먹든 값아 먹든 마음대로 하라지! 흥!

회기: (측은해지며) 가시렵니까?

인옥: 너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사는 날까지 살겠어요. (하고 금숙에게도 목례를 던지며 초연히 밖으로 나간다.)

(회기는 건잡을 수 없는 허무감과 자책심에 사로잡혀 인옥이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 말고 돌아서 제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고 ㉣담배를 갈아 피운다. 매우 난처한 표정인 금숙은

책상 위의 서류를 뒤적이면서 시선은 회기에게 쏠고 있다.)

회기: (무심코 담배를 든 손을 내려다보며 혼잣소리로) 내 손이 기계라고? 음…….

금숙: (채 알아듣지 못한 듯) 예?

회기: (제정신으로 돌아가며) 참, 정 간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금숙: 뭘 말씀이에요?

회기: 내 손 말이야…… 아까 그 환자가 나더러 기계라고 하던 말…….

금숙: (과장된 표정으로) 정말 그 환자는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깜짝 놀랐어요.

회기: 왜?

금숙: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듯이 웃으며) 저…… 선생님…… 흠…….

회기: 응? 뭐야?

금숙: 선생님 별명이 뭇인지 아세요?

회기: 아니, 내게도 별명이 있나?

금숙: 그럼요!

회기: 그래 뭘테?

금숙: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이십 세기 스프링스!

0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숙은 평소에 회기의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② 회기는 의사로서 인옥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 ③ 회기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다.
- ④ 인옥은 가족들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⑤ 인옥은 자신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04 **수능형**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서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
- ② ㉡: 인옥도 담배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일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③ ㉢: 근본적 치료 대신 임시 방편으로 약을 처방하려는 회기를 비판하고 있다.
- ④ ㉣: 회기가 수술을 거절하고 난 후 심리적 동요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 회기의 손을 기계라고 한 인옥의 말이 지나치게 당돌하여서 놀라고 있다.

05 **서술형** ㉤에 담긴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5점]

<조건>
스핑크스와 회기의 모습을 연결 지어 서술할 것

[06-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난 기계(차범석)

회기: 그러나 선생께서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상현: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회기: 아니, 불행해지다니……. 건강해야 더 벌어서 아이들도 편하게…….

상현: 흥! 내 처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원하느 줄 아십니까?

회기: 그럼…….

상현: (내뱉듯이) ㉡내 아내는 건강을 회복하면 지금보다 더 자주 놀아날 생각에서예요!

회기: (어이없다는 듯) 원…… 그럴 리가…….

상현: (㉢) 아닙니다. 선생님, 그 여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옛날부터…….

회기: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요?

상현: (㉣)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회기: 누가 말어요?

상현: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내는 항상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대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런 아내에게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바보였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회기: ㉥선생님은 너무 의심이 많으시군요.

상현: 내가요? 천만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진 않았죠. 도리어 알고도 모르는 척했을 뿐입니다.

회기: (㉦)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 것을…….

상현: 아닙니다. 그건…….

회기: (조용하나 위엄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상현: (냉혹하게) 별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중략)

회기: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상현: (반항적으로)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으로 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선생님! 그러니 나는…….

회기: (외치며)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이 말이 떨어지자 금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기를 쳐다본다.)

0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현은 아내의 생명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한다.
- ② 회기는 상현의 비인간적 태도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 ③ 금숙은 상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회기에게 반감을 느낀다.
- ④ 상현은 아내가 자기 자신을 위해 수술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 ⑤ 회기는 아내가 놀아날 생각을 한다는 상현의 말을 믿지 않는다.

07 ㉠~㉣ 중 <보기>에서 설명한 ‘장면 암시의 기능’을 하는 대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희곡은 대사가 중심을 이루는 문학이다. 희곡의 대사는 성격 묘사의 기능, 사건 전개 기능, 장면 암시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 중 ‘장면 암시의 기능’이란 무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전달해 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08 ㉠~㉣에 들어갈 지시문이 바르게 묶인 것은?

	㉠	㉡	㉢
①	미심쩍게	완강히	혼잣소리로
②	미심쩍게	혼잣소리로	완강히
③	완강히	미심쩍게	혼잣소리로
④	혼잣소리로	미심쩍게	완강히
⑤	완강히	혼잣소리로	미심쩍게

[0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성난 기계(차범석)

희기: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며) 정 간호사!
금숙: 예?
희기: 아까 그 환자의 주소 알지?
금숙: 예, 접수부를 보면…….
희기: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금숙: 예? (하며 가까이 온다.)
희기: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금숙: (놀란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희기: (속삭이듯) 자신은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마! 알겠어?
금숙: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 웬일이세요?
희기: 응? (가볍게 웃으며) 이번 환자는 꼭 살려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금숙: 왜요?
희기: (분노를 띠우며)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맡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금숙: (흠뻑 쳐다보며) 기계가 노하셨네요…….
희기: 잔소리 말고, 편지나 어서 써!
금숙: 예! (하며 제자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희기는 상현이 두고 간 담뱃갑을 발견하자, 담배 한 개비를 빼더니 물끄러미 바라본다.)
희기: (혼잣소리로) ㉠담배는 포장도 중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금숙: (편지를 쓰다 말고) 그 담배만은 진짜겠지요……. 공장에서 직접 나왔을 테니까…….
희기: 그렇지! (하며 라이터 불을 켜다.)

09 [주관식]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대사를 찾아 2어절로 쓰시오.

<보기>

- 작품의 제목과 관련됨.
- 기계와 같던 희기가 인간성을 회복했음을 의미함.

1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현의 행동과 본심이 다름을 지적한 말이다.
 ② 금숙의 행동이 진실성이 없음을 탓하는 말이다.
 ③ 의사는 명정보다는 실력이 중요함을 강조한 말이다.
 ④ 희기가 잠재되었던 인간성을 자각했음을 암시한 말이다.
 ⑤ 수술을 할 때는 과정보다 결과가 좋아야 함을 깨달은 말이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마) 상기(박지원)

(가)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먼저 선무문(宣武門)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내가 연경(燕京)에서 본 코끼리는 열여섯 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열하(熱河) 행궁(行宮)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나)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버렸다. 지금 열 걸음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다) 그 ㉠물체를 생각해 보면 소의 몸통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귀는 구름을 드리운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두 아람이나 되고, 키는 한 장(丈) 남짓이나 되었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러졌다 폼다 하며 굽뽕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끝은 누에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돌돌 말아서 입에 집어넣는다.

(라) 어떤 사람은 코를 부리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다섯 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눈이 쥐와 같다고 하지만, 이는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몸통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대체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마) 강희 황제 때였다. 남해자(南海子)에 사나운 범 두 마리가 있었다. 키운 지 오래 되었는데도 길을 들이기가 어렵자, 황제가 노하여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 코를 한 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 두 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 된 것이다.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다.

01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움직이는 코끼리를 처음 보고 느낀 충격과 경이로움을 말하고 있다.
- ② (나): 코끼리와 비슷한 물체를 본 과거 경험을 회상하고 있다.
- ③ (다): 코끼리의 모습을 신체 부위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코끼리의 코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글쓴이의 새로운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⑤ (마): 코끼리의 코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02 윗글에 드러난 표현상 특징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보기>

- ㄱ. 대상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 ㄴ.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다.
- ㄷ. 시간이나 공간의 이동에 따라 글을 전개한다.
- ㄹ. 구체적 지명을 밝혀 글의 신뢰성을 높인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ㄷ

03 **주관식** 윗글에서 ‘코끼리의 눈’을 비유한 단어 2개를 찾아 쓰시오.

[04-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기(박지원)

나는 알지 못하겠다. 캄캄하고 흠비 자옥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 냈을까. ㉠국숫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게는 뿔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감히 묻는다. /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썩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썩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트락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A]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썩도록 한 것이라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댈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

고 만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들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바 이치가 아니다.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임에랴.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象)’ 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窮究)하려는 까닭이었으리라.

04 윗글에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증에서 전제가 틀리면 결론도 틀릴 수 있다.
- ②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③ 세상의 모든 사물은 각자 자기만의 생존 원리를 지니고 있다.
- ④ 하나의 고정된 관점이 아니라 변화하는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해야 한다.
- ⑤ 진정한 진리는 다양한 사물을 인식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

0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들고 있다.
- ② 유추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④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동일한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06 서술형 [A]에서 작가가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서술하십시오. [5점]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첫사랑(고재중) (나) 가시리(작자 미상)

(다) 첫사랑(용혜원)

(가)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텐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나)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벗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벗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잡사와 두어리마는
선호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다) 불이 빨개졌지요.

가슴이
두근두근
마구 뛰었지요.

누가 마음 알까
숨고만 싶었지요.

01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반어를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의인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역설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02 (가)의 화자가 (나)의 화자를 위로한다고 할 때, (가)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가 가장 잘 반영된 것은?

- ① 이별은 고통스럽지만 이별을 통한 정신적 성숙은 훗날 당신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 ② 첫사랑은 쉽게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이별이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사랑은 곧 잊힐 감정입니다.
- ③ 사랑이나 이별과 같은 것은 절대자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절대자의 섭리를 잘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 ④ 저의 경우에도 그랬듯이, 기다리면 언젠가는 떠난 임이 돌아올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참고 기다리세요.
- ⑤ 저는 첫사랑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당신은 이별의 아픔을 의연히 견디고 있군요. 임을 다시 만날 희망을 잃지 마세요.

03 (가)와 (다)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다)의 화자보다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② (가)에 나타난 사랑의 주체는 (다)의 화자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 ③ (가)에는 사랑의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다)에는 그 주체가 드러나 있다.
- ④ (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고, (다)는 사랑받는 사람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
- ⑤ (가)는 첫사랑에 대한 화자의 개별적 경험을 말하고 있고, (다)는 일반적 의미를 말하고 있다.

04 (가)의 1연, 2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연에서 말한 내용을 2연에서 더 구체화시켜서 진술하고 있다.
- ② 1연에서 화자의 정서를 언급하고, 2연에서는 풍경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
- ③ 동일한 대상을 보면서 느낀 여러 정서들을 1연과 2연에서 대등하게 열거하였다.
- ④ 1연에서는 객관적 사실을 말하고, 2연에서는 그 상징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 ⑤ 1연에서는 대상을 보면서 추측한 내용을 전달하고, 2연에서는 확인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05 서술형 (나)와 <보기>를 비교하여 화자의 처지와 태도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5점]

<보기>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르더냐 이시랴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div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 황진이</div>
--

(1) 화자의 처지: _____

(2) 화자의 태도상 공통점: _____

[06-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돌다리(이태준)

(가)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참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 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 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니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졌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작만(作滿)허신 논들이야. 돈 있다가 어디 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 밭 같은 걸 사? 느르지는 독에 선 느티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에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 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가 땅이 뭇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邊利)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都是)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보지 않드라.”

(나) “땅을 밟구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應果)가 분명헌 게 무어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두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혼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작인들헌테나 맡겨 버리구, 떡도회지에 가 앓어 소출(所出)은 팔어다 모다 도회지에 낭비해 버리구, 땅 가꾸는 덴 단돈

일 원을 벌벌 떨구, 땅으루 살며 땅에 야박한
 높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 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
 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구 땅은 자
 갈밭이 되니 아냐? 독이 떠나가니 아냐? 거름
 한 번을 제대로 넣냐? 정 급허게 돼 작인이
 우는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신의(新醫)들 주
 사침 놓듯, 애꾸진 금비(金肥)만 갖다 털어 넣
 지. 그렇게 땅을 흘델 허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루들 갈 텐구!”

창섭은 입이 열어 버리었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本位)였던 것
 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
 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루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
 려는 게 과히 엉뚱헌 욕심은 아닐 줄두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린 못쓰는 거다. 의술은 예
 로부터 인술(仁術)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허
 게 진실허게 해라.”

(다) “팔지 않으면 그만 아십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두 이제두 말
 했지만 너두 문서 쪽만 쥐구 서울 앓어 지주
 노릇만 허게? 그따위 지주허구 작인 틈에서
 땅들만 열말 골른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임시(臨時)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헌테 팔 테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는 같은 건 한 해만 부쳐 보구 죽어두
 농군으로 태낳은 걸 한허지 않겠다구 했다.
 독시장밭을 내놓는다구 해 봐라, 문보나 덕길
 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드라두 집을 팔
 아 살려구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 넘자
 안 되구 누가 왜야 옳으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
 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해구 그 땅 소
 출을 팔아 연년이 값어 나가게 헐 테니 너두
 땅값을랑 그렇게 받아 갈 줄 미리 알구 있거
 라. 그리구 네 모가 먼저 가면 내가 물을 거
 구,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만은 내가 서
 울로 그때 다려가렴. 난 셈말서 이렇게 야인
 (野人)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

“.....”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
 된 맘으루두 섭섭허다. 그러나 이 늙은이헌테

두 그만 신념쫓 지켜 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
 하지 말어다구.”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
 치는 데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
 에 눈물을 쭈루루 흘리었다.

“너이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뇨,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었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한 인물
 이십니다.”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하였다. 자기
 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
 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
 이었다.

06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창섭’은 실리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아버지’는 둘다리를 가족사의 일부로 생각한
다.
- ③ ‘창섭’은 땅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을 이해하고
있다.
- ④ ‘아버지’는 농사일을 하며 소박하게 사는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 ⑤ ‘창섭’은 자신의 뜻을 들어주지 않는 아버지
에게 원망의 마음을 갖는다.

07 윗글에 나타난 ‘아버지’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설득력을 높인다.
- ② 옛일을 회고하며 대상에 의미를 부여한다.
- ③ 잘못된 세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한
다.
- ④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
힌다.
- ⑤ 상대방이 한 말 중 논리적으로 어긋난 내용
에 대해 반박한다.

08 **서술형**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땅’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을 서술하시오. [5점]

[0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돌다리(이태준)
(나) 성난 기계(차범석)

(가)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노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시었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두 안 데리구 왔습시다.”

㉠“오늘루 갈 걸 뭘 해 오누?”

“인전 어머니서건 서울로 모셔 갈 채빌 허러 왔다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데서 살아 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것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채견채견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옴한 것, 옴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 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나) **회기:** (조소하는 태도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 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댁과 마찬가지로…….

인옥: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회기: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인옥: 환자가 죽어 가도 말씀이예요?

회기: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인옥: (안타깝게) 선생님…….

회기: 댁이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지요. 그렇잖아요?

인옥: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이때 금속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회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댁의 손처럼…….

인옥: 그리고 내 손처럼……. (이제는 눈물도 말라 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 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회기: (약간 감동되며) 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댁이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릴 테니 써 보세요.

인옥: (혼잣소리처럼) ㉠알맹이는 어찌 되었든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미라는 말이군요……. 늘 듣던 얘가지.

회기: (약간 난처해하며) 그런 뜻이 아니라…….

인옥: 괜찮아요……. 수술을 못 맡아 주시겠다는 데 억지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힘없이 문 쪽으로 걸어 나가며) 살아 보겠다는 내가 잘못된 게요. 남들은 다 사는데 나만 죽어야 할 까닭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쭙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수 있어요? (그 누구를 저주하는 듯) 내 살을 뜯어 먹든 값아 먹든 마음대로 하라지! 흥!

09 (가)의 ‘아들’과 (나)의 ‘회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해타산에 밝은 인물이다.
- ② 가족에게 희생하는 인물이다.
- ③ 사업적인 수완이 뛰어난 인물이다.
- ④ 전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이다.
- 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성격의 인물이다.

10 수능형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소설이 창작되고 발표된 시기는 일제강점기로, 이 시기에 우리 사회는 급격하고 파행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도시에는 근대적인 서양 건축물들이 들어섰고, 일본 문화와 서양 문화가 밀려 들어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익혀야 한다는 사고가 나타났으며, 고향의 집과 땅 등이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 ① ‘삼층 양옥’은 서양 건축물이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건물에 ‘수도과 가스’가 들어오는 것은 일본 문화와 서양 문화가 들어온 것을 보여 주는군.

- ③ 땅을 팔아 새 건물을 사겠다는 아들의 생각은 땅을 도구적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④ 병원을 새로 확장하면 일 년에 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시 우리 사회가 파행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서울로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11 (나)에 나타난 갈등의 진행 양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한 인물의 내적 갈등이 점차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 ② 의지의 대립으로 인한 인물들의 갈등이 이념적 갈등으로 변하고 있다.
- ③ 인물들 간의 갈등이 특정 대상을 통해 풀리며 극적으로 화해하고 있다.
- ④ 한 인물의 내적 갈등이 인물과 그가 속한 사회와의 갈등으로 전이되고 있다.
- ⑤ 인물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한 인물의 체념으로 갈등이 정리되고 있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급히 왔다 가려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 있다.
- ② ㉡: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③ ㉢: 아버지는 대답을 유보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 ④ ㉣: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하는 회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 ⑤ ㉤: 근본적인 치료 대신 약 처방으로 임시방편을 삼으려는 회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다.

[13-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첫사랑(고재중)
(나) 돌다리(이태준)
(다) 성난 기계(차범석)

(가)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텅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나) 길은 그전보다 넓어도 젖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비나 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어서까지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창섭은,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걸.’ 하였다.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 논이며 돌각 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다. 논둑에 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던 것이나 밭에 돌각 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勤儉)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그러나 자기 대에 와서는 밭 하루갈이도 늘리지는 못한 것으로도 소문난 영감이다.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전대(前代)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란 것이 큰 부담인데다가,

“할아버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린 못 들어도 굶는단 소린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구 가셨다. 드럭드럭 탐내 모아선 뭘 허니,
[A] 할아버니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시던 논, 아버니께서 명덜을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건 논으로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닦달만 해 가기에 내겐 벅찬 일일 게다.”

하고 절용(節用)해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비뚤은 논배미를 바로잡기, 밭에 돌을 주려 바람맞이로 담을 두르기, 개울엔 독막이하기,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

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뭇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읍 길과 정거장 길까지 닦아 놓았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매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으로 버티어 왔다. 실속이 타작(打作)만 못하다는 등, 일꾼 셋이 저희 농사해 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되,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거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洋館)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중략)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채견채견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옴한 것, 옴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뵈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
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룻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다) 인옥: 선생님…….

회기: (조소하는 태도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
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 주겠다거나 사회를 위
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택과 마찬가지로…….

인옥: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회기: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
을 안 대는 성질이오.

인옥: 환자가 죽어 가도 말씀이예요?

회기: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
람은 아니니까.

인옥: (안타깝게) 선생님…….

회기: 택이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지요. 그렇
잖아요?

인옥: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
군요…… 기계처럼…….

(이때 금숙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중략)

회기: (제정신으로 돌아가며) 참, 정 간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금숙: 뭘 말씀이예요?

회기: 내 손 말이야……. 아까 그 환자가 나더러
기계라고 하던 말…….

금숙: (과장된 표정으로) 정말 그 환자는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깜짝 놀랐
어요.

회기: 왜?

금숙: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듯이 웃
으며) 저…… 선생님…… 흠…….

회기: 응? 뭐야?

금숙: 선생님 별명이 뭇인지 아세요?

회기: 아니, 내게도 별명이 있나?

금숙: 그럼요!

회기: 그래 뭘테?

금숙: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이십 세기
스핑크스!

회기: 이십 세기 �핑크스!

금숙: 옛날 �핑크스는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었잖아요?

회기: (쓴웃음을 뱉으며) �핑크스라…….

금숙: 그러니 아까 그 환자가 하는 말은 선생님
의 별명을 알고나 있는 눈치 아니예요?

회기: 내가 �핑크스처럼 괴상하게 생겼나?

금숙: 원, 선생님두……. �핑크스의 장점만을
들어서 지은 이름인 걸요…….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간적 배경이 설정되어 있으나, (나)
는 시간적 배경을 생략하고 있다.
- ② (가)에는 화자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지만,
(나)에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가)에는 계절의 순환이 드러나 있고, (다)에
는 역순행적 시간 구성이 드러나 있다.
- ④ (나)는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고,
(다)는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나)는 서술자를 내세워 사건을 서술하고 있
고, (다)는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직접 보여
주고 있다.

14 **서술형** (나)와 (다)의 갈래와 비교하여 (가) 의 갈래의 특징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 [5점]

15 (가)의 ‘눈’과 (나)의 ‘아버지’의 공통적인 태도로 적절한 것은?

- ① 실리를 따져 가며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②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익을 위해서 헌신한다.
- ③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소박한 현실에 안주한다.
- ④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며 의미 있게 살려 한다.
- ⑤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16 **서술형** (나)의 ‘창섭’과 (다)의 ‘회기’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가치관 및 태도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5점]

17 (나)와 (다)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 ‘아버지’는 땅을 팔자고 하는 ‘창섭’을 껄뽀하게 여기고 있다.
- ② (나): ‘아버지’는 자신의 땅뿐만 아니라 마을 땅까지 소중하게 가꾸었다.
- ③ (나): ‘창섭’은 땅을 팔자고 제안하며 ‘아버지’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 ④ (다): ‘회기’는 의사를 단지 직업으로만 생각한다.
- ⑤ (다): ‘회기’는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를 ‘인옥’의 상황에 빗대어 합리화하고 있다.

18 **주관식** (가)에서 이별을 겪고 난 후의 정신적 성숙을 의미하는 시구를 찾아 4어절로 쓰시오.

19 (다)에 나타난 ‘금숙’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기의 말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회기의 태도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인옥의 처지를 대변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 ④ 인옥의 생각에 공감하며 회기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회기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기름진 땅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알리고 있다.
- ② 땅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땅의 금전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알리고 있다.
- ④ 자신의 대에서 땅을 늘리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⑤ 땅을 비옥하게 가꾸었던 선조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들을 비하하고 있다.

2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창섭’의 시점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고, ㉡은 ‘아버지’의 시점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은 서술자가 ‘창섭’의 시각으로 풍경을 서술하고 있고, ㉡은 서술자가 ‘아버지’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③ ㉠은 ‘아버지’가 ‘창섭’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은 ‘창섭’이 ‘아버지’에 관해 해석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은 ‘창섭’이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서술하고 있고, ㉡은 ‘창섭’이 ‘아버지’와 관련된 일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은 ‘창섭’의 감정이나 말투가 드러나지 않도록 서술하고 있고, ㉡은 ‘아버지’의 감정이나 말투가 드러나도록 서술하고 있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성난 기계(차범석)

(나)~(다) 상기(박지원)

(가) **회기**: 그러나 선생께서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상현: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회기: 아니, 불행해지다니……. 건강해야 더 벌어서 아이들도 편하게…….

상현: 흥! 내 처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원하느 줄 아십니까?

회기: 그럼…….

상현: (내뱉듯이) 내 아내는 건강을 회복하면 지금보다 더 자주 놀아날 생각에서예요!

회기: (어이없다는 듯이) 원…… 그럴 리가…….

상현: (완강히) 아닙니다. 선생님, 그 여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옛날부터…….

회기: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요?

상현: (혼잣소리로)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회기: 누가 말이요?

상현: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내는 항상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대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런 아내에게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바보였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회기: 선생님은 너무 의심이 많으시군.

상현: 내가요? 천만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진 않았죠. 도리어 알고도 모르는 척했을 뿐입니다.

회기: (미심쩍게)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 것을…….

상현: 아닙니다. 그건…….

회기: (조용하나 위엄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상현: (냉혹하게) 별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회기: (몽클 불쾌감이 솟으며)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요?

상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회기: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나)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며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먼저 선무문(宣武門)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내가 연경(燕京)에서 본 코끼리는 열여섯 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열하(熱河) 행궁(行宮)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 버렸다. 지금 열 걸음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그 몸체를 생각해 보면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귀는 구름을 드리운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두 아람이나 되고 키는 한 장(丈) 남짓이나 되었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러졌다 폈다 하며 굽뽕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끝은 누에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어떤 사람은 코를 부리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다섯 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눈이 쥐와 같다고 하지만, 이는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대체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다)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트락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A]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댈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22 (가)와 (다)의 대화 양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가)의 ‘상현’은 ‘회기’가 하는 말을 신뢰하면서 경청하고 있다.
- ② (가)의 ‘회기’는 ‘상현’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과장하여 전달하고 있다.

③ (가)의 ‘회기’는 ‘상현’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설득을 위한 말하기를 하고 있다.

④ (다)의 ‘나’는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을 질문을 골라 물어보고 있다.

⑤ (다)의 ‘사람들’은 ‘나’가 질문하는 의도를 간파하고 ‘나’의 의도대로 답하고 있다.

23 (가)에서 ‘회기’와 ‘상현’이 갈등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상현’이 ‘회기’의 실력을 의심했기 때문에
- ② ‘회기’가 ‘상현’의 무능함을 비난했기 때문에
- ③ ‘회기’와 ‘상현’이 수술의 성공 가능성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 ④ ‘상현’이 ‘인옥’의 생명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 ⑤ ‘회기’와 ‘상현’이 ‘인옥’의 병의 심각성을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2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대비하고 있다.
- ② 대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③ 비유법을 통해 경험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보편적 인식과 자신의 생각을 대비하고 있다.
- ⑤ 서로 다른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25 [서술형] [A]에서 ‘나’가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5점]

[4]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언어생활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① 음운의 변동

② 한글 맞춤법의 원리

(2) 다양한 의사소통의 모습

-듣기,말하기 방식의 다양성

단원	4.교양 있고 사려 깊은 언어생활 -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교과서	162~168쪽
학습 주제	음운 변동에 내재된 원리와 규칙을 탐구한다.		
학습 목표	음운 변동에 내재된 원리와 규칙을 탐구하여 올바르게 발음하고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01 음운 변동의 개념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조건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대체로 (01)을 쉽고 편리하게 하거나 표현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남.

02 음운 변동의 종류

종류	개념	용례
(01)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①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ㅌ, ㅌ, ㅍ, ㅍ)’이 비음인 ‘ㄴ, ㄴ’을 만나 비음인 ‘ㅇ, ㄴ, ㄴ’으로 바뀌는 현상 ② 받침 ‘ㄴ, ㅇ’이나 ‘ㄱ, ㅍ’ 뒤에 연결되는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는 현상	① 국민[궁민], 달는[단는], 밤물[밤물] ② 종로[종노], 독립[동닙]
유음화	비음인 ‘ㄴ’이 유음인 ‘ㄹ’의 앞이나 뒤에 오면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달님[달림], 신라[(02)]]
(03)	실질 형태소의 끝 자음 ‘ㄷ, ㅌ’이 형식 형태소의 첫 모음 ‘ㅣ’나 반모음 ‘ㅣ’ [j] 앞에서 경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해돋이[해도지], 피붙이[피부치]
된소리되기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현상 ① ‘ㄱ(ㄱ, ㅋ, ㆁ, ㄷ, ㄷ, ㅌ, ㅌ, ㅍ, ㅍ)’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 ‘ㄱ, ㄷ, ㅍ, ㅈ, ㅊ’이 된소리 ‘ㄱ, ㄷ, ㅍ,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② 용언의 어간 받침 ‘ㄴ(ㄴ), ㄴ(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자음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③ 관형사형 어미 ‘-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ㅍ, ㅈ, ㅊ’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④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결합되는 ‘ㄷ, ㅈ, ㅊ’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① 박사[박싸], 꽃다발[꼇따발], 옆집[엇집] ② 신다[신 : 따], 감다[감 : 따] ③ 갈 곳[갈꼇], 할 바[할빠], 만날 사람[만날싸람] ④ 갈등[갈똥], 일시[일씨]
두음 법칙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ㄴ’이나 ‘ㄹ’이 경우에 따라 본래의 소리를 잃거나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 ①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ㄴ’이 ‘ㅣ’나 반모음 ‘ㅣ’ [j]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②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ㄹ’이 탈락하거나 ‘ㄴ’으로 바뀌는 현상	① 요소(尿素) ② 양심(良心)
(04)	예사소리 ‘ㄱ, ㄷ, ㅍ, ㅈ’과 ‘ㅎ’이 결합되어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소리 나는 현상 ① 받침 ‘ㄱ(ㄱ), ㄷ, ㅍ(ㅍ), ㅈ(ㅈ)’이 뒤 음절의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현상 ② 받침 ‘ㅎ(ㄴ, ㄹ)’이 뒤에 오는 ‘ㄱ, ㄷ, ㅈ’과 같은 예사소리와 결합되는 현상	① 먹히다[머키다], 만형[마형] ② 놓고[노코], 앓다[안타]
모음 탈락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둘 중 하나가 발음되지 않는 현상 ① ‘ㅏ, ㅑ’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될 때 ‘ㅏ, ㅑ’가 탈락하는 현상 ② 어간 끝 모음 ‘ㅡ’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① 가 - + - 아서 → 가서 ② 꼬 - + - 어서 → 꺼서

0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뱀물’이 [뱀물]로 발음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 ×)
- (2) 비음인 ‘ㄴ’은 유음인 ‘ㄹ’의 앞이나 뒤에 오면 ‘ㄹ’로 바뀌어 발음된다. (○, ×)
- (3)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 ×)
- (4)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거센소리로 발음된다. (○, ×)
- (5) 한자어에서 단어 첫머리의 ‘ㄴ’이 ‘ㄷ’나 반모음 ‘ㄹ’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 (○, ×)
- (6) ‘먹히다’가 [머키다]로, ‘얹다’가 [안타]로 발음되는 현상을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 ×)

0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표 하시오.

- (1) 받침 ‘ㄱ, ㄷ, ㅂ’이 ‘ㄴ, ㄹ’을 만나 ‘ㅇ, ㄴ, ㄹ’으로 바뀌는 현상을 (비음화 / 유음화)라고 한다.
- (2) 실질 형태소의 끝 자음 ‘ㄷ, ㅌ’이 형식 형태소의 첫 모음 ‘ㄷ’나 반모음 ‘ㄹ’ 앞에서 ‘ㅌ,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구개음화 /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
- (3)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결합되는 ‘ㄷ, ㅅ, ㅈ’이 ‘ㄷ, ㅅ, ㅈ’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도 (된소리되기 / 거센소리되기)에 포함된다.
- (4)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둘 중 하나가 발음되지 않는 현상을 (두음 법칙 / 모음 탈락)이라고 한다.
- (5) ‘피어’를 [피여]로 발음하는 것은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그 사이에 (반모음 / 단모음)이 첨가된 것이다.

03 다음 단어의 발음을 쓰고 관련된 음운 변동 현상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 비음화	㉡ 유음화
㉢ 구개음화	㉣ 된소리되기
㉤ 거센소리되기	㉥ 모음 탈락

- (1) 협력 [()].....()
- (2) 국수 [()].....()
- (3) 한라산 [()].....()
- (4) 접히다 [()].....()
- (5) 여닫이 [()].....()
- (6) 꺼서(끄-+ -어서) [()].....()

어휘 체크

04 다음 어휘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하시오.

- | | | |
|------------|---|---|
| (1) 음운 | • | • ㉠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 |
| (2) 반모음 | • | • ㉡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 조사, 어미 따위가 있다. |
| (3) 실질 형태소 | • | • ㉢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
| (4) 형식 형태소 | • | • ㉣ 모음과 같이 발음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짧은 모음. |

단원	4.교양 있고 사려 깊은 언어생활 -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교과서	172~174쪽
학습 주제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학습 목표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이해하고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한다.		

01 한글 맞춤법의 개념과 필요성

개념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규정
필요성	맞춤법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없다면 언어생활에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므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⁰¹⁾)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에 맞게 표기할 필요가 있음.

02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⁰¹)대로 적되, (⁰²)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리대로 적되	소리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살려 국어의 형태소를 발음대로 적는다는 의미임.
어법에 맞도록 함.	모든 형태소를 소리대로 적으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나더라도 형태소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의미임.

제1장 총칙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띄어쓰기의 필요성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읽는 사람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필자의 의도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으므로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씀으로써 의미를 분명히 구별해야 함.
띄어쓰기의 단위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인 (⁰³)를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로 함. 단, (⁰⁴)는 단어이지만 홀로 쓰일 수 없고, 앞에 오는 말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앞말에 붙여 쓰도록 함.

03 한글 맞춤법의 개요

제1장 (⁰¹)	한글 맞춤법의 원칙, 띄어쓰기의 원칙, 외래어 표기의 원칙
제2장 자모	한글 자모의 순서와 이름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제2절 구개음화, 제3절 ‘ㄷ’소리 받침, 제4절 모음, 제5절 두음 법칙,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1절 체언과 조사, 제2절 어간과 어미,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5절 준말
제5장 띄어쓰기	제1절 조사,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3절 보조 용언,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6장 그 밖의 것, <부록> 문장 부호

0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한글 맞춤법에서는 모든 형태소를 소리대로 적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 ×)
- (2) 조사는 단어이지만 홀로 쓰일 수 없고 앞에 오는 말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
- (3)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를 규정한 국어 규범이다. (○, ×)
- (4) 의존 명사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띄어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 ×)
- (5) 한글 맞춤법에는 한글 자모의 순서와 이름이 제시되어 있다. (○, ×)
- (6) 한글 맞춤법에서는 문장 부호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 (○, ×)

0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표 하시오.

- (1) (넘어지다 / 드러나다)는 소리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원칙이 적용된 표기이다.
- (2) 굶다랴다는 (소리대로 /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원칙이 적용된 표기이다.
- (3) 한글 맞춤법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규정에 의하면 (안밖 / 안팎)이 옳은 표기이다.
- (4)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 한 마리 / 소 한마리)로 적는 것이 옳은 표기이다.
- (5) (아랫마을 / 아래마을)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03 <보기>의 규정을 참고하여 올바른 표기에 ○표 하시오.

<보기>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 (1) 관심 분야를 (연구토록 / 연구도록)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 (2) 정월 대보름날 (달마지 / 달맞이)를 하며 소원을 빌었다.

어휘 체크

04 다음 어휘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하시오.

- | | | | |
|-----------|---|---|---|
| (1) 규정 | • | • | ㉠ 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 알림. 주로 행정 기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경우를 이른다. |
| (2) 고시 | • | • | ㉡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가 있다. |
| (3) 의존 명사 | • | • | ㉢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 ‘것’, ‘따름’, ‘뿐’, ‘데’ 따위가 있다. |
| (4) 보조 용언 | • | • | ㉣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

단원	4.교양 있고 사려 깊은 언어생활 - (2) 다양한 의사소통의 모습	교과서	182~183쪽
학습 주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어떠한지 이해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기·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이해한다. • 다양성을 존중한 의사소통 방법을 이해한다. 		

01 듣기·말하기 방식이 나타나는 측면

듣고 말하는 ⁽⁰¹⁾ , 표현이나 말투, ⁽⁰²⁾ 방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남.

02 듣기·말하기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

요인	예
⁽⁰¹⁾ 적 특성의 차이	기질과 성향(듣기 또는 말하기에 대한 선호 차이)
	성장 과정(말의 내용, 말투의 차이)
⁽⁰²⁾ 적 특성의 차이	⁽⁰²⁾)(성인층과 청소년층이 선호하는 화제, 사용 어휘, 표현 등의 차이)
	성별(남성과 여성의 사용 어휘, 말투, 표현, 억양 등의 차이)
	지역(어휘, 억양 등의 차이)

03 듣기·말하기 방식을 대하는 자세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	바람직한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어가 아니라고 방언을 ⁽⁰¹⁾ 하는 자세 • 말투가 낮설다고 하여 우습게 생각하는 자세 	서로의 차이를 ⁽⁰²⁾ 하고 상대방의 듣기·말하기 방식을 ⁽⁰³⁾ 하는 자세 → 좋은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됨.

04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

언어적 ⁽⁰¹⁾ 기르기	자신의 듣기·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하기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듣기·말하기 방식 활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적 민감성: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말의 의도나 배경을 파악하는 성향 • 다양한 듣기·말하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말에 담겨 있는 생각과 느낌을 파악함으로써 기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듣기·말하기의 ⁽⁰²⁾ 을 알고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함. • 다른 사람의 듣기·말하기 방식을 존중하고 ⁽⁰³⁾ 인 태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 상황(공식적, 비공식적), 말의 목적(정보 교환, 문제 해결, 사회적 관계 유지)에 따라 ⁽⁰⁴⁾ 와 ⁽⁰⁵⁾ 이 달라질 수 있음. •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여 말의 내용과 표현, 상호 작용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0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세대, 성별, 지역 등과 같은 집단적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 ×)
- (2) 대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타인에게 적용하여 그 사람의 말투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 ×)
- (3) 나와 상대방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의 방식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길러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
- (4) 누군가는 듣기를 더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집단적 특성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

02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1)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과 ()에 따라 말의 내용, 표현, 상호 작용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 (2) ()이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말의 의도나 배경을 파악하는 성향을 말한다.
- (3)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듣기·말하기에 어떤 ()이 있는지 파악하여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듣기·말하기 방식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4) 기질이나 성향, 성장 과정 등에 따라 말의 내용이나 말투가 달라지는 것은 ()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성인층과 청소년층 또는 남성과 여성, 지역 간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 등이 다른 것은 ()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03 <보기>의 ㉠ ~ ㉢을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으로 구분하시오.

- ㉠ 노인층과 청소년층에서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에 차이가 있다.
- ㉡ 의사가 사용하는 전문 용어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 ㉢ 조선 시대 양반층이 사용하던 어휘와 평민층이 사용하던 어휘에 차이가 있다.
- ㉣ 서울 사람의 말투와 경상도, 전라도 지방 사람의 사용 어휘나 억양에 차이가 있다.

- (1) 지역 방언: ()
- (2) 사회 방언: ()

04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과 그 해설이 긴밀한 것끼리 연결하시오.

- | | | |
|-------------------------------------|-----|---|
| (1) 언어적 민 감성 기르기 | • • | ㉠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
| (2) 자신의 듣 기·말하기 특 성을 인식하 고 성찰하기 | • • | ㉡ 이를 위해 다양한 듣기·말하기 방식에 참여하여 말에 담긴 생각과 느낌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
| (3) 상황과 목 적에 따라 적절한 듣기· 말하기 방식 활용하기 | • • | ㉢ 말의 내용과 표현, 상호 작용 방식에 차이를 두어 말하는 방식이다. |

어휘 체크

05 어휘에 맞는 뜻을 골라 연결하시오.

- (1)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 ()
- (2) 느낌이나 반응이 날카롭고 빠른 성질. ()
- (3)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 ()

01 <보기>에서 설명하는 음운 현상이 모두 적용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ㄱ, ㄴ, ㄷ, ㄹ, ㅁ, ㅂ, ㅇ’에 속하지 않는 다른 자음이 받침 위치에서 ‘ㄱ, ㄷ, ㅂ’ 중 하나로 발음이 교체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 ㉡ 받침 ‘ㄱ, ㄷ, ㅂ’이 비음인 ‘ㄴ, ㅁ’을 만나 비음인 ‘ㅇ, ㄴ,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 ① 붙는[분는]
② 밥물[밤물]
③ 깎는다[깡는다]
④ 부엌만[부영만]
⑤ 쫓는다[쫘는다]

02 <보기>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종로[종노], 담력[담녁]
ㄴ. 독립[독닙] → 동닙], 협력[협녁 → 협녁]
ㄷ. 칼날[칼랄]
ㄹ. 관련[괄련]

- ① ㄱ과 ㄴ에서는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② ㄴ에서 ‘ㄱ’과 ‘ㅂ’이 ‘ㅇ’과 ‘ㅁ’으로 바뀌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③ ㄷ과 ㄹ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④ ㄷ과 ㄹ에서는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⑤ ㄱ~ㄹ을 통해 유음은 비음과 연속해서 발음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03-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버지: 논이랑 ㉠밭이랑 다 둘러보고 농사 계획을 세웠니?

아들: 저쪽 ㉡밭이랑에는 감자를 심으려 해요.

03 [주관식] ㉠과 ㉡ 중,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고르시오.

04 [서술형] ㉠과 ㉡의 표준 발음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5점]

<조건>

㉠과 ㉡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명할 것

05 다음 중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박사[박싸]
② 심다[심 : 따]
③ 합법[합뻑]
④ 옆집[엽집]
⑤ 꽃다발[꼇따발]

06 다음 중 단어와 그 단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① 국민: 비음화
② 갈등: 유음화
③ 해돋이: 구개음화
④ 국화: 거센소리되기
⑤ 양심(良心): 두음 법칙

07 밑줄 친 부분을 빠르게 발음할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 ① 오늘 저녁에는 만날 사람이 있다.
- ② 해녀가 물질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왔다.
- ③ 그는 빗물로 머리를 감다시피 하고 있었다.
- ④ 음식점에 간 우리는 국수를 한 그릇씩 먹었다.
- ⑤ 경제 발전이 국민 의식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08 **수능형** <보기>의 ㉠~㉣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습도가 높았으나, 내일은 다시 ㉢햇볕이 내리쬘고 무척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강릉, 속초, ㉤대관령에는 한차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 ① ㉠을 발음할 때에는 ‘ㅎ’과 ‘ㄱ’이 축약되어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② ㉡을 발음할 때에는 ‘ㅂ’의 영향으로 ‘ㄷ’이 된소리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③ ㉢을 발음할 때에는 ‘ㅌ’이 ‘ㄷ’의 영향으로 ‘ㅊ’으로 교체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 ④ ㉣을 발음할 때에는 ‘ㄹ’이 ‘ㄴ’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 ⑤ ㉤을 발음할 때에는 ‘ㄹ’이 ‘ㄴ’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09 **주관식** <보기>와 같은 형태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단어와, 결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쓰시오.

<보기>
담그-+-아

10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표준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다.
- ② 글을 읽는 사람이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③ 한글 맞춤법에서는 단어를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로 삼고 있다.
- ④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의주의 표기법이 반영된 원칙이다.
- ⑤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한다는 것이다.

11 <보기>의 ㉠이 적용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제1장 총칙 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②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
- ③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 ④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⑤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2 <보기>를 참고할 때, 띄어쓰기가 바르게 이루어진 것은?

<보기>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① 먹을만큼만 떠서 먹어라.
- ② 그를 만난지 한달이 지났다.
- ③ 나는 강아지를 두 마리 기른다.
- ④ 그는 가진 돈이 천원 밖에 없었다.
- ⑤ 아마 여기에서부터 두시간은 걸어야 할거야.

13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① 태풍에 가로수가 쓰러졌다.
- ② 달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 ③ 썰물 때는 드넓은 갯벌이 들어났다.
- ④ 문짝이 마루로 엮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 ⑤ 오동나무가 뿌리째 뽑혀 담 쪽으로 넌어졌다.

14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그것은 학생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 ②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저절로 닫혔다.
- ③ 어머니는 어제 배추를 소금물에 절였다.
- ④ 얼마나 놀랐든지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 ⑤ 그녀는 항상 귀걸이 한 쌍을 걸고 다닌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한 결과가 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① ‘나뭇가지’는 1-(1)을 근거로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이다.
- ② ‘빗물’은 1-(2)를 근거로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이다.
- ③ ‘뒤통’은 1-(3)을 근거로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이다.
- ④ ‘전셋집’은 2-(1)을 근거로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이다.
- ⑤ ‘땀나물’은 2-(2)를 근거로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이다.

16 주관식 <보기>의 문장을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띄어 쓰시오.

<보기>

그가달리기를잘하는줄은알았지만일등을할 줄은몰랐다.

01 듣기·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람들은 각자 말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듣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다.
- ②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말투에 나타나는 차이는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이다.
- ③ 성인층과 청소년층이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의 차이는 집단적 특성에 따른 차이이다.
- ④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 나타나는 듣기·말하기 방식의 차이는 집단적 특성에 따른 차이이다.
- ⑤ 개인이나 집단적 특성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02 **서술형** <보기>에서 잘못된 듣기·말하기 습관을 가진 사람을 모두 찾고,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설명하시오. [5점]

<보기>

혁민: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의도나 배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거야.

재경: 말을 하는 상황과 그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보다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어투에만 집중해서 듣기 활동을 할 거야.

성준: 일단 나 스스로의 듣기·말하기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야겠어.

주형: 스스로의 듣기·말하기 방식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말하기 방식을 평가하며 나와의 유사성을 따져봐야겠어.

03 다음 대화에 대한 반응이 적절한 것은?

영호: 안녕? 나는 김영호야. 우리 같은 동아리니까 친하게 지내자.

윤석: 응…….

영호: 그게 다야? 네 이름은 뭐니?

윤석: 김윤석.

영호: 윤석아, 나는 1반인데 너는 몇 반이야?

윤석: 3반.

영호: 혹시 나랑 말하는 게 불편해?

윤석: 내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낯을 가리는 편이라서…….

영호: (속으로) 재는 왜 기분 나쁘게 사람을 앞에 두고 싫은 티를 내지?

윤석: (속으로) 재는 왜 처음 보는 사이인데 저렇게 친한 척을 하지?

- ① 영호의 말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윤석이는 주의 깊게 듣는 태도가 부족해.
- ② 낯을 가리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윤석이와 같은 듣기·말하기 태도는 잘못된 거야.
- ③ 잘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으므로 영호와 같은 말하기 태도는 지양해야 해.
- ④ 영호와 윤석이는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개인의 성향에 따라 말투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해.
- ⑤ 서로가 속한 집단의 특성에 따라 사용 어휘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영호와 윤석이는 친구가 속한 집단의 특성을 민감하게 파악해야 해.

04 **주관식**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말하는 (㉠)이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에 따라 적절한 말투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말의 (㉡)이 정보의 교환에 있는지 문제 해결에 있는지, 사회적 관계 유지에 있는지에 따라 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과 (㉡)을 고려하여 말의 내용과 표현, 상호 작용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5 다음 대화에서 은기가 화가 난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은기: 경민아, 어떡해. 큰일 났어.
경민: 왜? 무슨 일이야?
은기: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아무리 찾아 봐도 없어.
경민: 왔던 길은 다시 가 봤어?
은기: 다시 가 봤는데 없어.
경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 안 나? 가방은 찾아봤어?
은기: 벌써 찾아봤지. 근데 없어.
경민: 우선 학생증 재발급 신청하고, 지갑을 주운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벽보를 붙여 봐.
은기: 정말 속상해.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
경민: 지갑처럼 중요한 물건을 아무 데나 놓고 다니면 어떡하니? 가방에 넣어 두든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지 해서 잘 보관했어야지. 앞으로는 자기 물건을 잘 챙기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
은기: 안 그래도 속상한데 지금 그런 소리를 꼭 해야겠어?
경민: 응? 갑자기 왜 화를 내?

- ① 경민이 은기의 단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 ② 경민이 은기의 상황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 ③ 경민이 은기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④ 경민이 은기의 처지와 관련 없는 말만 했기 때문이다.
- ⑤ 경민이 은기의 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06 다음 대화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철봉: 오늘 저녁도 네가 하는 거야? 보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 같던데.
나정: 맞나?
철봉: 뭘 자꾸 ‘맞나’야? 말끝마다. 아니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지. 아무튼 다 맞지는 않아.
나정: 맞나?
철봉: 하하하하하.
나정: 니 지금 내 놀리는 기지?

- ① 철봉이 나정을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철봉이 비공식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철봉과 나정이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유행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④ 철봉과 나정이 각자 살아왔던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⑤ 나정이 자신의 말하기 태도를 성찰하지 않고 철봉만 나무라고 있기 때문이다.

07 다음 대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엄마: 소연아, 친구 생일 선물은 무엇으로 할지 정했니?
소연: 생선은 문상이 최고죠!
엄마: 갑자기 웬 생선? 그리고 문상을 간다고 누가 돌아가셨니?
소연: 생일 선물로 문화 상품권을 준다고요. 참, 저 내일 버카충하게 만 원만 주세요.
엄마: 버카충? 처음 듣는구나? 그건 무슨 별레니?
소연: 아이 참, 버스 카드를 충전한다는 말이에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르신.
소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모녀가 정답게 집에 가는 길인가 보구먼.
엄마: 네, 어디 다녀오는 길이세요?
할아버지: 고등어를 한 손 사 오는 길이네. 자네 춘부장(春府丈)께서는 강녕(康寧)하신가?
소연: (속으로) 한 손? 춘부장? 강녕? 대체 다 무슨 말이지?

- ① 엄마가 소연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개인적 기질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 ② 소연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세대별로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③ 소연이는 유행어를 많이 쓰고 있으며, 할아버지는 청소년들은 잘 쓰지 않는 고유어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 ④ 할아버지의 말씀을 소연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할아버지와 소연이 속한 집단의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⑤ 엄마와 소연은 집단적 특성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01 **수능형** <보기>를 통해 파악한 구개음화의 발생 환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굳이[구지], 피붙이[피부치]
 ㉡ 붙여[부처]
 ㉢ 잔디[*잔지], 티끌[*치끌]
 ㉣ 밭이랑[바치랑] 논
 씨앗을 밭이랑[반나랑]에 심어라.
 ㉤ 굳히다[구치다]

- ① ㉠로 볼 때, ‘ㄷ’과 ‘ㅣ’가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ㅌ’과 ‘ㅣ’가 만났을 때에도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② ㉡로 볼 때, ‘ㅌ’이 ‘ㅣ’를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반모음 ‘ㅣ’를 만났을 때에도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③ ㉢로 볼 때, ‘ㄷ, ㅌ’과 ‘ㅣ’가 한 형태소 내부에 있을 때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④ ㉣로 볼 때, ‘ㄷ, ㅌ’이 실질 형태소인 ‘ㅣ’를 만날 때에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로 볼 때, ‘ㄷ’이 뒤에 ‘ㅎ’을 만나 ‘ㅌ’으로 축약된 후에도 ‘ㅣ’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02 **서술형** ㉠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을 ㉡, ㉢의 물음에 대한 적절한 답이 포함되도록 설명하시오. [8점]

학생: 선생님, ㉠‘국민[궁민], 닫는다[닫는다], 밥물[밤물]’, ㉡이 세 가지 단어에서는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나요? 그리고 ㉢이 변동은 조음 위치가 바뀌는 것인가요,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것인가요?

03 다음 중 적용되는 음운 변동 규칙이 다른 하나는?

- ① 국밥[국뽕]
 ② 합법[합뽕]
 ③ 꽃힌[꼬친]
 ④ 갈등[갈뽕]
 ⑤ 심다[심따]

04 ㉠~㉤ 중 모음 탈락에 해당되는 예를 모두 고른 것은?

- ㉠ 가-+-아서 → 가서
 ㉡ 잠그-+-아 → 잠가
 ㉢ 오-+-아서 → 와서
 ㉣ 꼬-+-어서 → 꺼서

-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05 <보기>를 통해 파악한 두음 법칙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여자(女子), 연세(年歲)
 ㉡ 남녀(男女)
 ㉢ 삼 년 동안
 ㉣ 뉴스(news)
 ㉤ 량심(良心) → 양심, 로인(老人) → 노인

- ① ㉠로 볼 때, ‘ㄴ’이 반모음 ‘ㅣ’를 만나면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로 볼 때,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로 볼 때, 단어의 첫머리일지라도 의존 명사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로 볼 때, 단어의 첫머리일지라도 외래어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로 볼 때, ‘ㄴ’은 모음 앞에서 언제나 ‘ㅇ’으로 변하는 두음 법칙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06 다음의 ㉠~㉣와 관련되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입학[이팍]	㉡ 읽히다[일키다]
㉢ 놓고[노코]	㉣ 앓다[안타]
㉤ 한라산[할라산]	㉥ 칼날[칼탈]
㉦ 의견란[의견난]	㉧ 상견례[상견네]

- ① ㉠, ㉡로 볼 때, ‘ㄱ, ㅂ’ 뒤에 ‘ㅎ’이 오는 경우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 ㉣로 볼 때, ‘ㅎ’이 앞에 오고 뒤에 ‘ㄱ, ㄷ’이 오는 경우에도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 ㉥로 볼 때, 거센소리되기는 접받침에서도 일어남을 알 수 있다.
- ④ ㉤, ㉥로 볼 때, ‘ㄴ’의 앞이나 뒤에 ‘ㄹ’이 오는 경우 유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 ㉧로 볼 때, 유음화는 ‘ㄴ’과 ‘ㄹ’의 만남이라는 특정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나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7 다음에 제시된 표준 발음법의 각 항에 해당하는 예시가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ㅌ,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ㄴ]로 발음한다.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ㅌ,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18항	제20항	제23항
①	국물	읽다	피불이
②	작년	물난리	옹고
③	있다	신라	쫓고
④	값지게	맞는다	축하
⑤	붙는	훗일	죽구

08 **고난도**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이번 연휴엔 백로를 보러 강릉에 갈 거야.
㉡ 대관령에 놀러가서 담력을 키웠다.
㉢ 여긴 팔이 가득 자라고 있는 밭이야.
㉣ 갈등(葛藤) 속에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 유속(流速)이 센 곳이라 노인(老人)은 가기 힘들다.

- ① ㉠: [뱅노], [강능]으로 발음되며, 모두 비음화가 적용된 예이다.
- ② ㉡: [대 : 괄령], [담 : 녀]으로 발음되며, 모두 유음화가 적용된 예이다.
- ③ ㉢: [과시], [바치야]로 발음되며, ‘밭이야’는 ‘팔이’와 달리 구개음화가 적용된 예이다.
- ④ ㉣: [갈똥], [할빠]로 발음되며, ‘할 바’와 달리 ‘갈등’은 된소리되기가 적용된 예이다.
- ⑤ ㉤: 한자의 원래 소리가 ‘류속’, ‘로인’이므로, ‘노인’과 달리 ‘유속’은 두음법칙이 적용된 예이다.

09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은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으로 나눌 수 있다.
--

- ① ‘직렬[징녔]’에서는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담그-+ -아[담가]’에서는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맨입[맨닙]’에서는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법학[버팍]’에서는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서-+ -어서[서서]’에서는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10 **주관식** 다음 단어에 적용되는 음운 변동 규칙이 무엇인지 차례대로 쓰시오.

앞문[암문], 해돋이[해도지], 역도[역또], 난로[날로]

11 **주관식** 다음 단어의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써 보고, 어떤 음운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쓰시오.

- (1) 좁히다: 발음 - ()
음운 변동 현상 - ()
- (2) 미닫이: 발음 - ()
음운 변동 현상 - ()

12 다음 한글 맞춤법의 조항과 관련되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 ① 제1항에 따르면, 제19항과 제25항은 어법에 맞게, 제31항과 제40항은 소리대로 적는 표기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제19항의 예로는 명사 ‘높이’와 부사 ‘곳곳이’를 들 수 있다.
- ③ 제25항의 예로는 각각 부사 ‘급히’와 ‘더욱이’를 들 수 있다.
- ④ 제31항의 예로는 각각 ‘좁쌀’과 ‘머리카락’을 들 수 있다.
- ⑤ 제40항의 예로는 ‘다정하다’를 ‘다정타’로 적는 것을 들 수 있다.

13 다음 한글 맞춤법의 조항을 고려하였을 때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① 내가 화가 날만 하다.
- ② 땅을 보니 비가 온듯 하다.
- ③ 밥은 커녕 죽도 못 먹었다.
- ④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
- ⑤ 전에 가 본데가 어디였는지 모른다.

14 다음의 ㉠~㉤에 알맞은 표현을 적절하게 고른 것은?

오늘따라 다리가 ㉠(절였지만 / 저렸지만) 곧 있을 시험을 위해 학생으㉡(로서 / 로써)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급하게 자리에 앉다가 책상에 정강이를 ㉢(부딪혔는데 / 부딪쳤는데), 어쩌나 아프㉤(던지 / 든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	㉡	㉢	㉤
①	절였지만	로써	부딪혔는데	던지
②	절였지만	로서	부딪쳤는데	든지
③	저렸지만	로서	부딪혔는데	던지
④	저렸지만	로써	부딪쳤는데	든지
⑤	저렸지만	로서	부딪쳤는데	던지

15 **주관식** 다음 중 표기가 잘못된 것을 모두 골라 바르게 쓰시오.

훗날, 아래마을, 전셋방(傳貰房),
나뭇잎, 북어국

16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고려할 때, 한자음의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11항 한자음 ‘랴, 러,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울’로 적는다.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 ① 제11항에 따라 ‘례의(禮儀)’가 아니라 ‘예의’라고 표기해야 한다.
- ② 붙임 1에 따라 ‘쌍룡(雙龍)’이 아니라 ‘쌍용’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③ 붙임 1에 따라 ‘실패률(失敗率)’이 아니라 ‘실패율’로 표기해야 한다.
- ④ 붙임 4에 따라 ‘역이용(逆利用)’이 아니라 ‘역이용’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⑤ 붙임 5에 따라 ‘육천륙백(六千六百)’이 아니라 ‘육천육백’으로 표기해야 한다.

17 **주관식**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단어 6개를 쓰시오.

18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한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언어적 민감성을 기른다.
- ② 자신의 듣기·말하기 특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성찰한다.

- ③ 말을 하는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듣기·말하기 방식을 사용한다.
- ④ 상대방의 말의 의도나 배경을 파악하며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 ⑤ 자신과 타인의 듣기·말하기 태도를 비교·평가하며 어떤 방식이 좋은 것인지를 판단한다.

19 (가), (나)의 대화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주형:** 오늘 게임 아이템 현질할 겸 PC방 갔다가 문상을 잃어버렸어. 도둑 있다고 난리를 쳤더니 PC방 출입 영정 먹었네.

엄마: 현질은 뭐고, 영정을 먹은 건 뭐니?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나) **칠봉:** 오늘 저녁도 네가 하는 거야? 보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 같던데.

나정: 맞나?

칠봉: 뭘 자꾸 ‘맞나’야? 말끝마다. 아니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지. 아무튼 다 맞지는 않아.

나정: 맞나?

칠봉: 하하하하하.

나정: 니 지금 내 놀리는 기지?

- ① (가), (나) 모두 방언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② (가)는 엄마와 주형의 세대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사회 방언과 관련이 있다.
- ③ (가)는 언어적 민감성이 부족하여 생긴 문제로, 개인적 특성을 집단적 특성에 맞추면 해결할 수 있다.
- ④ (나)의 칠봉과 나정은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지역 방언과 관련이 있다.
- ⑤ (나)는 집단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다.

20 (가), (나)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영호: 안녕? 나는 김영호야. 우리 같은 동아리니까 친하게 지내자. / 윤석: 응…….
영호: 그게 다야? 네 이름은 뭐니?
윤석: 김윤석.
영호: 윤석아, 나는 1반인데 너는 몇 반이야?
윤석: 3반.
영호: 혹시 나랑 말하는 게 불편해?
윤석: 내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낯을 가리는 편이라서…….

(나) 은기: 경민아, 어떡해.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경민: 왔던 길이나 가방은 확인해 봤어?
은기: 이미 다 해 봤어. 아끼는 건데, 속상해.
경민: 중요한 물건을 아무 데나 놓고 다니면 어떡해. 앞으로는 물건을 잘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
은기: 안 그래도 속상한데 그렇게 말해야겠어?
경민: 갑자기 왜 화를 내?

- ① (가)와 (나)는 개인적 성향이나 대화의 목적에 따라 대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가)의 영호는 자신의 물음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는 윤석이의 태도에 오해가 생겼을 것이다.
- ③ (가)의 윤석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영호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 ④ (나)의 경민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주려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은기에게 서운함을 느꼈을 것이다.
- ⑤ (나)의 은기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여 해결책을 제안한 경민의 배려에 대해 자신에게 공감하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21 다음은 듣기·말하기 방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이다. 이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세대, 기질, 성향, 성별, 성장 과정, 지역

	개인적 특성	집단적 특성
①	기질, 세대, 지역	성별, 성장 과정, 성향
②	기질, 성향, 지역	성별, 성장 과정, 세대
③	기질, 성장 과정, 성향	성별, 세대, 지역
④	성별, 성장 과정, 성향	기질, 세대, 지역
⑤	성별, 성장 과정, 지역	기질, 성향, 세대

22 [통합] (가)의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을 (나)와 연결 지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어.
그러자 어머니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 두신 비상금으로 시켜 주신
자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 지오디, '어머님께'

(나) 국립 국어원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39개의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했다. 이것은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에 차이가 있어 이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서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로 나뉜다. 발음의 경우도 규정에 맞는 발음이 정해져 있지만,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은 규정과 별개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 ① '맛있는'은 규정상으로는 [마딘는]으로 발음해야 하지만 [마신는]으로 발음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마신는] 역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었다.
- ② '자장면'은 '짜장면'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자장면'과 '짜장면'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 ③ '택견'이 널리 쓰여 '태견'과 '택견'이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 것은 '자장면'과 같은 경우의 예이다.
- ④ '내음'은 기존 표준어였던 '냄새'와는 어감의 차이가 있어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자장면'과 같은 예로 볼 수 있다.
- ⑤ 김밥의 발음은 원래 [김 : 밥]이지만 실제 발음을 반영하여 [김 : 뽕]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김밥'은 '맛있는'과 유사한 예로 볼 수 있다.

[5] 생각을 나누는 시간

(1) 어떻게 읽을까

-미완성의 걸작(오주석)

(2) 토론과 논증

-정책 토론의 원리와 방법

(3) 힘 있는 설득

설득하는 글 쓰기

단원	5. 생각을 나누는 시간 - (1) 어떻게 읽을까	교과서	200~205쪽
학습 주제	읽기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조정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완성의 걸작’을 읽으며 읽기 목적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이 있음을 이해한다. • ‘미완성의 걸작’을 통해 자신의 읽기 방법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조정한다. 		

01 글의 구성

처음	중간1	중간2	중간3	끝
윤두서 ‘자화상’의 첫인상과 그에 대한 상념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두 가지 의문점	현존하는 ‘자화상’과 다른 옛 사진 속 ‘자화상’에 대한 감탄	윤두서 ‘자화상’의 ⁽⁰¹⁾ 이 사라진 경위 추정	미완성 속에 높은 예술성을 간직한 윤두서 ‘자화상’

02 ‘자화상’에 대한 두 가지 의문

	윤두서의 ‘자화상’	필자의 의문	의문 해결
첫째 의문	작품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려 주는 글씨가 한 자도 없음.	작품 속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이하곤의 찬문에 묘사된 인물의 생김새가 ‘자화상’과 일치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둘째 의문	귀를 떼어 내고 신체를 생략하는 등 당대 사대부의 미감과 맞지 않음.	작품이 ⁽⁰¹⁾ 인 것은 아닌가?	1937년 “조선 사료집진속”의 사진을 통해 유탄으로 그려져 있던 상반신 윤곽선이 사라진 미완성작임을 확인함.

03 ‘자화상’에 대한 필자의 감정 및 태도 변화

첫인상	눈매가 매서움.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기를 발산하는 듯함. 섬뜩한 ⁽⁰¹⁾ 이 들.
↓	
선입견을 배제하고 바라봄.	이목구비가 ⁽⁰²⁾ 함. 바깥으로 뻗은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함. 귀, 목, 상체가 없어 옥에 갇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함. 정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모습에서 무서움을 느낌.
↓	
⁽⁰³⁾ 에서 받은 인상	어질어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뿜. 동정과 깃의 턱이 진 이중 구조가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안듯이 얼굴을 받쳐 줌.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을 뿜.
↓	
최종 평가	⁽⁰⁴⁾ 이지만 예술성에서는 완벽함.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과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보여 줌.

• 미완성의 걸작(오주석)

갈래	비평문(미술 비평)
성격	논리적, 분석적, 해석적, 묘사적
제재	윤두서의 그림 '자화상'
주제	미완성 속에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윤두서의 '자화상'
특징	① 대상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함. ②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로 친근감을 줌. ③ 대상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통해 내용을 전개함. ④ 대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추론적 기법을 활용함.

0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미완성의 걸작'은 역설적인 제목이라 할 수 있다. (○, ×)
- (2) '미완성의 걸작'은 윤두서의 '자화상'에 대한 정보와 객관적 평가가 담긴 미술 비평문이다. (○, ×)
- (3) 이 글의 필자는 첫인상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 ×)
- (4) 윤두서의 '자화상'은 바깥으로 뻗어 난 수염을 통해 입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 ×)
- (5) 윤두서는 엄숙한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화상'의 귀를 그리지 않았다. (○, ×)
- (6) 이 글의 필자는 '자화상'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한 생략에 무서움을 느꼈다. (○, ×)
- (7) 1937년 "조선 사료집진속"의 '자화상' 사진에는 인물의 상반신이 그려져 있었다. (○, ×)
- (8) 1937년 "조선 사료집진속" 사진에 나타난 '자화상' 속의 인물은 인자함이 배어나는 선비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 ×)
- (9) 윤두서의 '자화상'은 미켈란젤로의 '노예상'과 달리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보여 준다. (○, ×)

0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표 하시오.

- (1) 윤두서의 '자화상'이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높은 (예술성 / 완성도)을/를 지녔기 때문이다.
- (2) 필자는 (이하곤의 찬문 / 최순우의 고백)을 통해 '자화상' 속의 인물이 윤두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0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구절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 ㉠ 긴 수염이 나무끼고 안색은 붉고 윤택하니, 보는 사람들은 그가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 ㉡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 ㉢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 준다.

- (1) 미완성작인 '자화상'이 완벽한 예술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한 근거이다. ()
- (2) "조선 사료집진속"의 '자화상'에 대한 감탄으로, '자화상' 속 인물이 조선 선비의 이상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 (3)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에 묘사된 글로서 그림 속 인물이 윤두서임을 짐작하게 한다. ()

어휘 체크

04 다음 어휘에 해당하는 뜻을 골라 연결하시오.

- (1) 압도 • • ㉠ 인격이나 작품 따위에서 드러나는 고상한 품격.
- (2) 불후 • • ㉡ 보다 뛰어난 힘이나 재주로 남을 눌러 꺾을 수 없게 함.
- (3) 기품 • • ㉢ 영원토록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음.

단원	5. 생각을 나누는 시간 - (2) 토론과 논증	교과서	214~221쪽
학습 주제	토론할 때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토론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한다. • 토론의 입론을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토론한다. 		

01 정책 토론의 원리와 방법

배경과 목적	입증 책임의 원리	쟁점별 논증 구성 방법	설득력 있는 논증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사회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해결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목적: 정책적 변화와 관련한 쟁점들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따져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증 책임의 개념: ⁽⁰¹⁾ 이 수용되도록 증명해야 하는 책임 • 입증 책임의 주체: 현재 상태의 변화를 주장하는 찬성 측 • 반대 측의 역할: 찬성 측의 주장을 쟁점에 따라 검토하고 반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⁰²⁾의 개념: 찬성 측이 첫 번째 입론에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며 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 • 필수 쟁점의 의의: 반대 측에게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중요한 사안들을 검토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설득을 위한 논증의 구성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장: 화자가 제시하는 결론 ② 이유: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 ③ ⁽⁰³⁾: 주장이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02 정책 토론의 예 -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

찬성 측	반대 측
① [찬성 측 입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섭취 증가로 ⁽⁰¹⁾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함. • 당 섭취 감소를 위해 설탕세를 부과해야 함. 	② [반대 2의 반대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탕세와 당 섭취 감소의 인과 관계를 물음. • 설탕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④ [찬성 1의 반대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대 측의 근거 자료에 설탕 섭취 관련 내용이 있음. • 식습관 개선 권고가 효과가 없었음. 	③ [반대 1의 입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섭취는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님. • 설탕세 부과는 실행 불가능하며 많은 부작용이 있음.
⑤ [찬성 2의 입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 관련 건강 문제가 심각하므로 설탕세 부과가 필요함. • 단순 권고는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임. 	⑥ [반대 1의 반대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⁰²⁾의 원인이 설탕뿐인지 질문함. • 나트륨도 문제인데 설탕세만 주장하는 이유를 물음.
⑧ [찬성 2의 반대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⁰³⁾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한다는 객관적 근거를 요구함. • 설탕세의 실효성을 강조함. 	⑦ [반대 2의 입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의 부담을 고려할 때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임. • 설탕세 부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제시함.
⑩ [찬성 1의 반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탕세 부과는 장기적으로 이익임. • 설탕세 부과로 미래의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⑨ [반대 1의 반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올바른 설탕 섭취를 홍보하고 교육해야 함. • 설탕세는 부작용이 큼.
⑫ [찬성 2의 반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탕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보건 관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 • 설탕세는 미래의 ⁽⁰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⑪ [반대 2의 반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 같은 사회 문제를 서민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됨. • 설탕세 외의 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 함.

0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쟁점이란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나뉘는 지점을 가리키는 논점이다.
(○, ×)
- (2) 논제는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이 배제된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긍정의 청유문으로 진술해야 한다.
(○, ×)
- (3) 논증이란 여러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설득하는 방법이다. (○, ×)
- (4) 정책 토론의 목적은 정책적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들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엄정하게 따져 보는 데에 있다.
(○, ×)

0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표 하시오.

- (1) 토론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는 논제를 (사실 / 가치 / 정책) 논제라고 한다.
- (2) 논증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이유 / 근거)라고 한다.
- (3) 토론에서는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는 (찬성 / 반대)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

03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1) 논증의 요소에는 ()이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가 있다.
- (2) 토론에서 ()이란, 입증 책임이 있는 찬성 측이 첫 번째 입론에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며 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을 말한다.
- (3) 정책 논제는 ‘문제 → () → 이익/비용’의 쟁점별로 논증이 구성된다.

04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에서 찬반 양측의 입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괄호 안에 들어갈 구절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 ㉠ 당 섭취로 인한 문제는 단순 권고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 ㉡ 당 섭취로 인한 질병의 발생 위험과 의료비 부담 증가 문제가 심각하다.
- ㉢ 설탕세 부과는 외국의 가당 식품 구입,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섭취,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
- ㉣ 설탕세는 현재 제품에 표시된 당 함유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되므로 실행이 가능하다.

찬성 측		필수 쟁점		반대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⁰¹⁾) • 당 섭취 문제가 심각하므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 	→	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음. • ⁽⁰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⁰³⁾) 	→	해결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에 좋지 않은 모든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움. • 설탕은 일상적 식품이므로 설탕세는 실행 불가능함.
설탕세 부과는 국민 건강 증진 및 질병 관리 비용 감소 등 이익이 더 큼.	→	이익/비용	←	⁽⁰⁴⁾)

어휘 체크

05 다음 어휘에 맞는 뜻을 골라 연결하시오.

- (1) 입론 • ㉠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함.
- (2) 진술 • ㉡ 의논하는 취지나 순서 따위의 체계를 세움.
- (3) 부과 • ㉢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

단원	5. 생각을 나누는 시간 - (3) 힘 있는 설득	교과서	230~232쪽
학습 주제	주제, 예상 독자 등 작문의 맥락을 분석하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주제, 독자에 맞게 설득하는 글을 쓴다. 		

01 설득하는 글 쓰기

설득하는 글

다른 사람이 자신의 (⁰¹)이나 (⁰²)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

주제 분석

- 주제와 관련된 (⁰³)의 정의
- 왜 이 주제가 논의되어야 하는가?
- 주제와 관련된 (⁰⁴)에는 무엇이 있는가?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어떠한가?

독자 분석

- 성별, 연령, 직업 등은 어떠한가?
-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 주제에 얼마나 (⁰⁵)을 가지고 있는가?
- 주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타당한 근거 마련

설득하는 글을 쓸 때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⁰⁶)와 독자를 분석하고 그에 맞게 타당한 (⁰⁷)을 제시해야 한다.



글의 개요 작성하기

서론

문제를 제기하며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목적을 밝힘.

본론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함.

결론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며 강조함.



설득하는 글 쓰기

02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

- 주제와 독자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함.
- 글의 (⁰¹)을 높이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근거를 선정함.
- 가능한 한 자료를 풍부하게 모은 후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함.: 통계나 실험 결과 등 (⁰²)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자료,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나 증언 등을 활용함.

01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
- (2) 설득하는 글은 독자의 생각이나 태도, 행동 등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 ×)
- (3) 설득하는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주장만 강하게 내세울 필요가 있다. (○, ×)
- (4) 설득하는 글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글에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5)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설득하는 글을 쓴다면 ‘기부에 대한 인식’, ‘기부 방식의 한계’ 등이 관련된 논점이 될 수 있다. (○, ×)
- (6)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 예상 독자를 분석할 때에는 독자의 처지나 마음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

02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1) ()와 ()에 따라 제시해야 할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
- (2) 주제와 독자를 고려하여 타당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3) 주제와 독자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장을 정리하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면 글의 ()을 높이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4) 통계나 실험 결과 등 ()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자료, ()나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나 증언 등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5) 설득하는 글의 예상 독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후배라면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는 ()나 ()을 사용하는 것으로 글쓰기 방향을 정해야 한다.

03 설득하는 글을 쓰기 전 주제 및 독자 분석의 요소로 적절한 것을 연결하십시오.

- | | | |
|--------|---|--------------|
| (1) 주제 | • | ㉠ 개념 정의 |
| (2) 독자 | • | ㉡ 관련 논점 |
| | | ㉢ 성별, 연령, 직업 |
| | | ㉣ 관심도 |
| | | ㉤ 지식의 정도 |
| | | ㉥ 논의의 필요성 |

04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표 하시오.

- (1)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우선 가능한 한 자료를 (정확하게 / 풍부하게) 모으는 것이 좋다.
- (2) 수집한 근거는 (모두 / 선별해서) 사용해야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 (3)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가급적 (구체적 / 추상적)으로 제시해야 설득력이 높다.

어휘 체크

05 다음 중 어휘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견해(見解):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
- ② 동조(同調):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춤.
- ③ 논점(論點): 논의나 논쟁 따위의 중심이 되는 문제점.
- ④ 토대(土臺): 어떤 사람이나 단체 따위의 주의·정책·의견 따위에 찬동하여 이를 위하여 힘을 씀.
- ⑤ 활용(活用): 충분히 잘 이용함.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라) 미완성의 결작(오주석)

(가)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해 질문을 하나 던져 보자. 도대체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화면상에는 이분이 누구인지 알려 주는 글씨가 한 자도 없다. 윤두서에게는 아들 윤덕희, 손자 윤용 등 그림을 잘 그렸던 자손들이 있었다. 만약 현 작품이 다만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만 공제 초상이라고 전해 내려왔다면, 혹시라도 ㉠무정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전해진 것일 수도 있다. 더구나 작품에는 ㉡가로 접힌 금이 같은 간격으로 열일곱 줄이나 보인다. 이것은 작가가 종이를 둘둘 말아 둔 상태에서 그대로 납작하게 눌러 생긴 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물론 족자로 표구(表具)되지도 않았다. 갑자기 작업이 중단된 채 오랫동안 여러 종이 뭉치 속에 섞여 있다가 뒤늦게야 후손들이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 이상의 의문점들은 먼저 ‘자화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옛 분들이 남긴 윤두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대조해 봄으로써 풀어 나갈 수 있다. 먼저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하곤(1677~1724)이라는 분의 글,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尹孝彦自寫小眞贊]’을 살펴보기로 한다. 효彦(孝彦)은 윤두서의 자이다.

여섯 자도 되지 않는 몸으로 온 세상을 초월하려는 뜻을 지녔구나! 긴 수염이 나부끼고 안색은 붉고 윤택하니, 보는 사람들은 그가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진실하게 삼가고 물려서서 ㉣겸양하는 풍모는 역시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찬문에 묘사된 인물의 생김생김은 분명 윤두

서의 ‘자화상’ 속 그것과 같다. 그런데 글에는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로서 “진실하게 삼가고 물려서서 겸양하는 풍모”를 보인다고 설명된 ‘자화상’의 첫인상이 어째서 무섭기까지 하다는 말인가? 일찍이 ㉤감식안(鑑識眼)이 높았던 고(故) 최순우 전 국립 박물관장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대했을 때의 인상을 회고하면서 거의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물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생략에서 나온 감상이었다. 그 때문에 ‘자화상’은 그 놀라운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아니 묘사가 사실적인 만큼 더욱더, 몽환 중에 떠오른 영상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다) 그런데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美感)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자는 “효경(孝經)”의 첫머리에서 “신체는 터럭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후세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부모님을 드러나게 할 것이니, 이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니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귀를 떼어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라)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국립 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에도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1937년 조선사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사료집진속(朝鮮史料集眞續)”이라는 책의 제3집 속에 들어 있었다.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가 원래는 훨씬 어질어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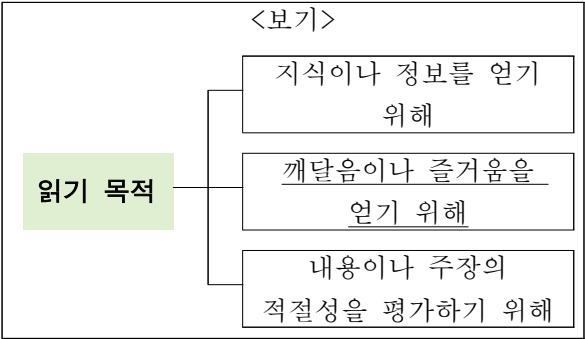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해결 과정을 밝히고 있다.
- ② 대상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밝히며 그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대상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오해를 경계하고 있다.
- ④ 대상에 대해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 ⑤ 대상과 관련한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0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화상’ 속에는 작가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② 이하곤과 필자는 ‘자화상’을 보고 느낀 첫인상이 다르다.
- ③ 윤두서는 ‘자화상’을 그릴 때 몸 부분을 그려 넣었다.
- ④ 이하곤은 ‘자화상’의 작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찬문을 작성해 놓았다.
- ⑤ 필자는 ‘자화상’에 나타나는 회화 효과가 작업이 우연히 중단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다.

03 <보기>의 밑줄 친 목적에 따라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필자가 제시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며 읽는다.
- ② ‘자화상’에 대한 필자의 사고의 흐름을 요약하며 읽는다.
- ③ 필자가 ‘자화상’을 미완성이라고 생각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며 읽는다.
- ④ ‘윤두서’의 삶과 관련지어 ‘자화상’의 창작 의도가 무엇일지 상상하며 읽는다.
- ⑤ ‘자화상’의 회화 효과에 대한 필자의 판단과 그 근거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0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화상’에 대해 섬뜩함을 느끼게 한다.
- ② ‘자화상’이 미완성작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③ 이하곤이 ‘자화상’에 찬문을 붙이게 된 계기로 작용한다.
- ④ 윤두서가 ‘자화상’의 예술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알려 준다.
- ⑤ 후손들이 ‘자화상’의 보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05 **주관식** 문맥을 고려하여 ㉡이 지시하는 내용을 쓰시오.

06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남의 사정에 아랑곳없음.
- ② ㉡: 둘 이상인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같고 다름을 검토함.
- ③ ㉢: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 ④ ㉣: 어떤 사물의 가치나 진위 등을 구별하여 알아내는 눈.
- ⑤ ㉤: 여러 가지 방법. 또는 온갖 수단과 방도.

[07-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완성의 걸작(오주석)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다.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쏘아 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 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07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구도 면에서 완벽함을 보이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창작 도중 작품의 완전성이 감지되어 작업이 중단되었다.
- ③ ㉡은 ㉠과 달리 작품의 재질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 내려는 작가 의식이 담겨 있다.
- ④ ㉠과 ㉡ 모두 인물의 안면에 대한 묘사가 생경하다.
- ⑤ ㉠과 ㉡ 모두 미완성작이지만 뛰어난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08 서술형 ‘자화상’을 완벽한 예술성을 갖춘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를 윗글의 구절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5점]

[01~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나) 정책 토론의 원리와 방법

(가)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시기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져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공동체는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현재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으로 말미암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정책 토론의 본질적인 목적은 정책적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들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엄정(嚴正)하게 따져보는 데에 있다.

입증 책임의 원리

정책 토론의 논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므로, 찬성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 이때 입증 책임이란 주장이 수용되도록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을 쟁점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며 반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장만 하고 입증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올바른 설득을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에 입증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쟁점별 논증 구성 방법

효과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논제에 따라 쟁점을 분석하여 논증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 있는 찬성 측이 첫 번째 입론에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며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들이 있는데, 이를 ‘필수 쟁점’이라고 한다.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에서 찬반 양측이 공유해야 할 쟁점들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반대 측이 이에 관해 질문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중요한 사안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찬성 측은 현재 존재하는 문제가 심각하므로 찬성 측에서 제시한 방안으로 해결할 [A] 것을 주장한다. 반대 측은 현재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며,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해결 방안의 이익과 비용을 논의하게 된다. 즉, ‘문제 → 해결 방안 → 이익/비용’의 쟁점별로 논증이 구성된다.

찬성 측	필수 쟁점	반대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가 중대하며 피해가 심각하다. 문제는 지속되며 시급하게 조치해야 한다.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가 중대하지 않으며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시급한 조치가 필요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결 방안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해결 방안이 실행 가능하다. 	해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결 방안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 해결 방안은 실행이 가능하지 않다.
비용보다 효과 및 이익이 더 크다.	이익/비용	효과 및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

설득력 있는 논증 구성 방법

합리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논증이 매우 중요하므로 좋은 논증을 구성하는 것은 토론의 핵심이다. 이유나 근거 없이 단순하게 주장만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설득력 있는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주장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유	인터넷상에서의 폭언이나 욕설 등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근거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을 경험한 중고생이 27.7%나 되었습니다.

(나)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논제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입니다. ㉠최근 설탕과 관련해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이에 관해 토론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1: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논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설탕세란 과일과 같은 천연 당을 제외하고 설탕이나 액상 과당 같은 당이 함유된 식품에 당 함유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①최근 당 섭취 증가에 따른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 섭취는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가공식품으로부터 일일 권장 열량의 10% 이상 당류를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발생 위험은 39%, 고혈압 발생 위험은 66% 높다고 합니다. 또한 ㉔과도한 당 섭취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8년간 비만 관련 사회적 비용은 2.2배 증가했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진료비는 국내 전체 진료비 중 3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당 섭취에 따른 문제가 점차 커질 것이므로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설탕세 부과를 주장합니다. ㉔설탕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오른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해 국민의 당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또한 식품 제조 업체는 제품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감소를 피하기 위해 자연히 식품에 첨가하는 당을 줄이게 됩니다. 설탕세는 현재 제품마다 표시하고 있는 당 함유량에 따라 그램당 기준을 정하여 부과하면 되므로 과세 기준 마련이 용이합니다. 법제화만 된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우선 비만, 당뇨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㉔질병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가정 경제 및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설탕세는 법제화 비용보다 질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반대 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반대 2: 설탕세를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당 섭취량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찬성 1: 세계 보건 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하는 소비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 2: ㉔저가의 수입 식품이나 인공 감미료 등으로 고가의 가당 식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는데, 오히려 교육이나 홍보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찬성 1: 교육이나 홍보 정책의 성공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반대 1: ㉔
(중략)

사회자: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찬성 2: 설탕세는 부과해야 합니다. 비만 관련 국민 건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보건 복지부의 건강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비만율은 2008년 21.6%에서 2014년 25.3%로, 연간 약 0.6퍼센트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또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5~17세의 과체중 비율은 남자 26.4%, 여자 14.1%로, 남자의 경우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평균인 24.3%보다 높습니다. 이는 6~11세의 46.6%, 12~18세의 44%가 가공식품으로부터 당류를 권고 기준 이상으로 섭취하였다는 국민 건강 영양 조사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01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반 양측은 각기 자신의 주장이 수용되도록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있다.
- ② 찬성 측에서 필수 쟁점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사안이 검토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 ④ 반대 측은 ‘문제 → 해결 방안 → 이익/비용’의 쟁점에 따라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한다.
- ⑤ 합리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제시하는 결론이다.
- ② ㉡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 ③ ㉢은 반드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 ④ ㉣은 주장이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 ⑤ ㉠, ㉡, ㉣이 모두 충족해야 설득력 있는 논증이 구성된다.

03 (가)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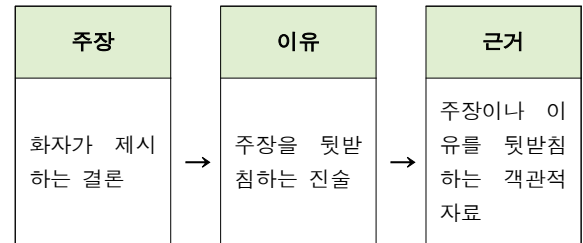
- ① ㉠: 효과적인 토론을 위해 논제에 따른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② ㉡: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 ③ ㉢: 해결 방안에 대한 이익과 비용을 논의하고 있다.
- ④ ㉣: 쟁점을 언급하여 반대 측에게 질문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⑤ ㉣: 현재 존재하는 문제가 심각함을 밝히고 있다.

04 서술형 ㉡에서 알 수 있는 ‘반대 2’의 역할을 서술하십시오. [5점]

05 [A]를 참고할 때, ‘반대 1’이 ㉡에서 언급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제’에서 당 섭취가 질병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아님을 주장한다.
- ② ‘문제’에서 당 섭취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지 않으므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 없음을 주장한다.
- ③ ‘해결 방안’에서 설탕세의 부과로 당 섭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 ④ ‘해결 방안’에서 당 함유 식품 값을 인상하여 당 섭취량을 감소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 ⑤ ‘이익/비용’에서 설탕세의 부과로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손실이 더 큼을 주장한다.

06 서술형 다음을 참고하여 [B]에 드러난 ‘근거’를 쓰시오. [5점]



07 [B]에 이어질 반대 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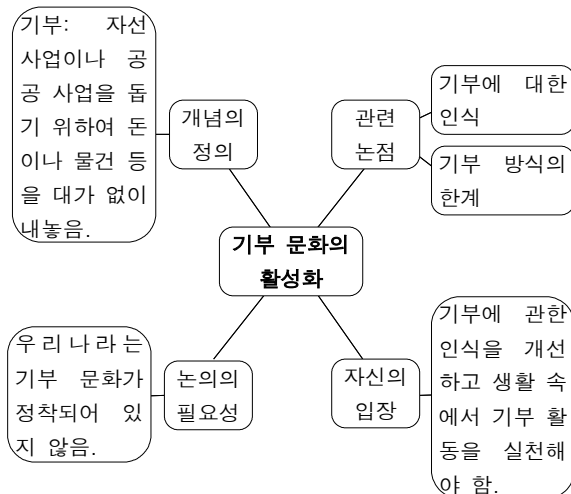
- ① 비만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비만의 원인이 설탕뿐입니까?
- ②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식생활 지침에 당 섭취에 관한 내용도 있지 않나요?
- ③ 당 함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 ④ 제품의 가격 인상을 피하기 위해 기업에서 제품의 당 함량을 줄이면 설탕세가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⑤ 간식, 탄산음료 등의 섭취를 줄이자는 식습관 개선 권고는 오래전부터 해 왔지만 큰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설득하는 글 쓰기

세상에는 수많은 생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나와 주장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상대의 동조를 구해야 할 때도 있다. 이처럼 설득하는 글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주제와 독자에 따라 제시해야 할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 주제를 분석할 때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 이 주제가 왜 논의되어야 하는지, 주제와 관련된 논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어떠한지 등을 중심으로 주제를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무엇을 설득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설득하는 글을 쓴다면 다음과 같이 주제를 분석해 볼 수 있다.



01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은?

- ① 설득하는 글의 종류
- ② 논리적인 근거의 종류
- ③ 자신의 입장을 파악하는 방법
- ④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
- ⑤ 설득하는 글 쓰기를 위한 주제 분석의 필요성

0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일상 속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다.
- ② 주제와 독자에 따라 제시해야 하는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
- ③ 주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설득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
- ④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면 된다.
- ⑤ 설득하는 글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3 다음 중 주제를 분석할 때 살펴보아야 할 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 ②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
- ③ 주제와 관련된 논점의 종류
- ④ 주제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
- ⑤ 주제와 관련된 연구의 존재 여부

04 다음은 윗글에 제시된 ‘기부 문화의 활성화’라는 주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글쓰기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부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 정도에 따라 글의 내용을 달리해야 한다.
- ② 생활 속에서 기부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 ③ 현재의 기부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부가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 ④ 독자에게 기부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면 기부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 ⑤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설득 근거가 필요하다.

[05-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설득하는 글 쓰기

주제를 분석한 후에는 예상 독자를 분석해야 한다. 설득하는 글은 독자의 생각이나 태도, 행동 등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독자의 처지나 마음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를 분석할 때에는 성별, 연령, 직업 등의 정보는 물론, 주제와 관련하여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입장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글쓰기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때 예상 독자를 보다 잘 분석하기 위해 설문 조사나 면담을 실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부 문화의 활성화에 대해 글을 쓴다고 할 때, 같은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예상 독자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예상 독자] 청소년(우리 학교의 학생들)

	예상 독자에 대한 정보	글쓰기 방향
성별, 연령, 직업 등은 어떠한가?	남녀, 학교 친구와 선후배(만 16~18세), 고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기부 현황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냄.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는 어휘나 표현을 사용함.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기부를 하려면 물질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주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관심이 별로 없음.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함.
주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기부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자신과 거리가 먼 일로 여겨 실천하지 않고 있음.	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이 실천하기 쉬운 다양한 기부 방법을 소개함.

주제와 독자를 분석한 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가능한 한 자료를 풍부하게 모은 후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한다. 이때 통계나 실험 결과 등 객관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자료,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나 증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05 다음 중 예상 독자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주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다.
- ② 주제에 대한 태도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파악한다.
- ③ 주제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한다.
- ④ 성별, 연령, 직업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한다.
- ⑤ 주제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다.

06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활용한다.
- ②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나 증언을 활용한다.
- ③ 자신의 생각만을 중심으로 하여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
- ④ 가능한 한 풍부한 자료를 모은 후 효과적인 것을 선정한다.
- ⑤ 주제와 독자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한다.

07 **서술형** 윗글에 제시된 예상 독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5점]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나) 미완성의 결작

(가) 다시 한 번 찬찬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무런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서 말이다. 인물은 정면상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 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더하여 새까만 탕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요령 있게 표현해 준다.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옥에 갇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하다.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갔다. 덩달아 탕건의 윗부분이 잘려 나갔다.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뿐인데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초상이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나)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조선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中庸)의 미감을 지켜 나가야 그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에 걸맞다. 윤두서는 옛 사진 속에서 도포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정돈된 옷 주름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을 달으므로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는 살짝 주름이 잡혔다. 그 동정과 깃의 턱이 진 이중 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듯이 얼굴을 받쳐 주고 있다. 그리고 화면 아래 좌우 구석은 주인공이 편안한 자세로 앉았을 때 생기는 자잘한 주름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안면에서 배어나는 ㉢이었다.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0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림 속 인물의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 ② 그림 속의 인물은 정면을 향하고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 ③ 극사실적으로 그려진 그림이지만 귀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
- ④ 탕건의 끝을 곡선으로 처리하여 머리의 부피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그림 속의 인물은 얼굴의 전체를 뒤덮은 수염 때문에 표정이 가려져 있다.

02 글쓴이가 ‘자화상’에 대해 ㉣과 같이 표현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이 입고 있는 옷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므로
- ② 성리학의 정신에 걸맞는 중용의 미감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 ③ 인물의 시선이 정면을 응시하여 보는 이를 압도하고 있으므로
- ④ 인물의 도포에 달린 동정이 성리학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으므로
- ⑤ 인물의 외양 묘사가 현실이 아닌 드높은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03 다음 중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냉정함
- ② 인자함
- ③ 우울함
- ④ 선량함
- ⑤ 침착함

04 **서술형** 글쓰기가 (가)와 (나)에서 각각 ‘자화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차이점을 서술하고, 그러한 시각의 차이가 생긴 이유를 <보기>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8점]

<보기>

1995년 가을, 국립 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에도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중략)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05-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책 토론의 원리와 방법

입증 책임의 원리

정책 토론의 논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므로, 찬성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 이때 입증 책임이란 주장이 수용되도록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을 쟁점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며 반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장만 하고 입증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올바른 설득을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에 입증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쟁점별 논증 구성 방법

효과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논제에 따라 쟁점을 분석하여 논증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 있는 찬성 측이 첫 번째 입론에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며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들이 있는데, 이를 ‘필수 쟁점’이라고 한다.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에서 찬반 양측이 공유해야 할 쟁점들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반대 측이 이에 관해 질문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중요한 사안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찬성 측은 현재 존재하는 문제가 심각하므로 찬성 측에서 제시한 방안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반대 측은 현재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며,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해결 방안의 이익과 비용을 논의하게 된다. 즉, ‘문제 → 해결 방안 → 이익/비용’의 쟁점별로 논증이 구성된다.

설득력 있는 논증 구성

합리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논증이 매우 중요하므로 좋은 논증을 구성하는 것은 토론의 핵심이다. 이유나 근거 없이 단순히 주장만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설득력 있는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0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정책 토론에서는 반대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
- ② 분명한 주장만 갖춰지면 설득력 있는 논증을 할 수 있다.
- ③ 쟁점별 논증은 ‘문제 → 해결 방안 → 이익/비용’으로 구성된다.
- ④ 정책 토론의 논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제도의 유지를 요구한다.
- ⑤ 반대 측의 첫 번째 입론 시 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을 ‘필수 쟁점’이라고 한다.

06 **서술형** 토론의 입론 단계에서 필수 쟁점에 따라 논증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5점]

07 **수능형** 다음은 ‘서머 타임제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찬성 측이 구성한 입론 내용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볼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철 전력 소모 급증으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 ----- ① 우리나라는 근로 시간이 길고 여가 시간이 부족하여 가족 해체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전력 대란이나 여가 시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므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 ②
해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머 타임제 도입으로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고 국민의 여가 시간을 늘릴 수 있다. ----- ③ 서머 타임제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 ④
이익/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머 타임제를 시행하면 에너지 절감, 내수 진작, 생산 유발 효과로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 ----- ⑤

[0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책 토론의 원리와 방법
(나) 설득하는 글 쓰기

(가) **사회자**: 다음으로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반대 1: 설당세 부과와 핵심 논리가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인데요. 당 섭취는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만의 주요 원인은 고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로, 보건 복지부도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통해 “아침밥을 꼭 먹자,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은 당을 많이 섭취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탄수화물의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 섭취가 국민 건강을 위

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학교 내의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식품에 당류 표시를 강화했는데, 이러한 정책상의 권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대상 자판기에 열량이나 당 등 영양 성분에 따라 진열 칸의 색을 구분해 음료를 배치했는데, 당 함유량이 가장 많은 빨간 칸의 음료 매출이 6개월 만에 62.1%에서 44.3%로 감소했습니다. 즉, 당 섭취 문제는 단순 권고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설당세를 부과하면 당 섭취량이 줄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성 측의 논리에 따르면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와 관련해 소금세를 부과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도 높습니다.

설당세의 부과는 사람들이 외국의 저렴한 가당 식품을 구입하거나, 인공 감미료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 식품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만 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당세 부과는 불필요합니다.

(나)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 주제를 분석할 때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 이 주제가 왜 논의되어야 하는지, 주제와 관련된 논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어떠한지 등을 중심으로 주제를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무엇을 설득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 (중략)

주제를 분석한 후에는 예상 독자를 분석해야 한다. 설득하는 글은 독자의 생각이나 태도, 행동 등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독자의 처지나 마음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를 분석할 때에는 성별, 연령, 직업 등의 정보는 물론, 주제와 관련하여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입장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글쓰기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때 예상 독자를 보다 잘 분석하기 위해 설문 조사나 면담을 실시할 수도 있다.

08 (가)의 ‘반대 측’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당 섭취는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 ② 정부는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 ③ 설탕세를 부과하면 생산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④ 당 섭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강한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
- ⑤ 보건 복지부의 식생활 지침을 통해 과도한 당 섭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09 (가)의 ‘반대 측’이 취하고 있는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측의 의견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근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 ④ 전문 기관의 견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여 찬성 측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10 **수능형** <보기>는 (가)의 ‘반대 측’ 입장에서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 ‘주제’와 ‘예상 독자’를 분석한 것이다. (나)를 참고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주제: 설탕세 시행	
개념 정의	설탕세: 당 과다 함유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
관련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탕세에 대한 인식 • 설탕세 부과로 인한 문제
논의의 필요성	국민들의 당 섭취가 높다는 의견이 있음.
자신의 입장	설탕세 시행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류해야 함.
• 예상 독자: 정책 입안자	
성별, 연령, 직업 등은 어떠한가?	남녀, 관련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 20~50대의 다양한 나이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설탕세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
주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최근 국민들의 당 섭취가 많아졌다고 생각하여 설탕세 시행에 관심이 많음.
주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국민들의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 시행을 검토 중임.

- ① 예상 독자가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따로 정의할 필요는 없겠군.
- ② 예상 독자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높은 근거를 제시해야겠군.
- ③ 예상 독자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쉬운 표현을 사용해서 전달해야 효과적이겠군.
- ④ 예상 독자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설탕세 시행이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 좋겠군.
- ⑤ 예상 독자가 국민들의 당 섭취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설탕세 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야겠군.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설득하는 글 쓰기
(나) 외부 효과와 죄악세

(가) 주제와 독자를 분석한 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가능한 한 자료를 풍부하게 모은 후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한다. 이때 통계나 실험 결과 등 객관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자료,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나 증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이처럼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주장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 주제와 독자를 고려하여 타당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통합

(나) 외부 효과란 누군가의 행동이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외부 효과가 타인에게 이익을 주면 외부 경제(긍정적 외부 효과), 반대로 손실을 끼치면 외부 불경제(부정적 외부 효과)가 된다. 예컨대 꽃집에서 화사한 화분을 진열해 놓은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낡은 트럭에서 내뿜는 시커먼 매연은 불편을 초래한다. 꽃집은 타인에게 외부 경제를, 매연을 내뿜는 트럭은 외부 불경제를 제공한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외부 경제는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좋지만 타인에게는 해를 끼치는 외부 불경제는 심각한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기에 늘 사회적 관심사가 된다.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해와 환경 문제이다. 술, 담배, 비만 유발 식품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것들은 즐기는 자신은 좋을지 몰라도, 과할 경우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

따라서 외부 불경제를 법으로 규제하거나 수혜자(受惠者)에게 비용(세금)을 물려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 외부 효과를 시정(是正)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피구세’라고 부른다. 피구세는 첫 제안자

인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피구(1877~1959)의 이름을 딴 것으로, 외부 불경제를 유발한 당사자에게 세금을 물림으로써 외부 효과를 내부화, 즉 본인 부담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다. 환경세(환경 부담금), 교통세(교통 부담금) 등이 피구세의 범주(範疇)에 속한다.

11 서술형 다음은 ㉠에 제시할 예시이다. (A)에 비해 (B)가 설득력이 높은 이유를,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5점]

(A) 청소년들의 기부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금전적인 문제로 기부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B) 청소년들의 기부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6년 통계청의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부 경험이 없는 13~19세의 청소년 중 45.6%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2%가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12 ‘피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설득하는 글을 쓰려고 할 때, (나)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구세의 개념이 무엇인지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 ② 피구세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하여 주장을 뒷받침한다.
- ③ 문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피구세 시행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 ④ 피구세를 시행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이야기하여 글의 설득력을 높인다.
- ⑤ 부정적 외부 효과가 주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언급하여 경각심을 일깨운다.